

2022년 상반기 수원시 재정 현안 및 민선7기 재정현황 분석

The Analysis of Suwon City's Financial Issues in the First Half of 2022 and 7th popular election

정재진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곽병욱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 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장)
서정섭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송상훈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준환 (경기도청 재정분석팀장)
한영희 (수원시청 예산총괄팀장)

© 2022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2년 10월 31일
발행 2022년 10월 31일
ISBN 979-11-6819-077-1 (9332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정재진. 2022. 「2022년 상반기 수원시 재정 현안 및 민선7기 재정현황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내용

- 민선 8기의 등장에 앞서 민선 7기 재정여건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진단, 민선 8기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 및 동향 등의 사전 파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
- 기타, 수원시가 요청하는 현안 분석·대응

■ 정책제안

- 분석결과, 수원시는 ①지방 세입 증가폭이 둔화되는 반면 ②경상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 ③지방채상환 부담 ④상급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열악 등으로 민선 8기 동안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 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운용의 낭비적 행태 개선, 재정책임성 확보, 정부간 재정제도 개편 유도 필요
- ②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원시 전 부서와 적극적 동참 필요
- ③ 재정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변화 제고와 재정위기 대응체계 구축
 - 전략적 세입확보(미불용지, 부존부적합용지 등 수원시 재산 전수조사, 세외수입 확대 등)
 - 전략적 재원 배분(민선 8기 재정운용 제도 개편을 통한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인 제거)
 -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
 -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재정부서 전문성 확보

국문요약



■ 서론

○ 연구의 배경

- 민선 8기 등장, 수원시는 12년만의 “혁신” 길목에서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필요
- 수원시는 2019년부터 재정압박에 직면하였고 재정운용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였으나 쉽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음
- 악조건 속, 민선 8기 성공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수원시 재정현황의 정확한 이해와 진단 필요

○ 연구의 목적

- 수원시 재정현황의 시계열적, 수직·수평적으로 연계된 구조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
- 민선 7기 재정운용 현황과 실태 정밀 분석, 민선 8기 재정운용 방향 설정
-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전략 수립으로 수원시 재정 부정적 영향 사전 방어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내용) 수원시 재정 현안 대응 및 민선 7기 재정현황 분석·진단
- (공간) 수원시, 유사자치단체(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창원시)
- (시간)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2011년~2022년)
- (방법)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시계열 분석, 수원 및 유사자치단체 횡단면 분석

■ 수원시 재정현황

○ 재정규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2.6조원, 특별회계 0.4조원
- 전국 대비 수원시 일반회계 비중은 1.01%, 특별회계 비중 0.88% 수준
- 경기도 시·군 평균 대비 일반회계 비중은 6.69%, 특별회계 비중 4.30% 수준

- 수원시 최근 5년간 일반회계 6.2% 증가, 특별회계 18.8% 감소, 전국 대비 일반회계 비중 2.73% 감소, 특별회계 비중 20.53% 감소, 경기도 시·군 평균 대비 일반회계 비중 3.44% 감소, 특별회계 비중 14.73% 감소

○ 세입 세출 특징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총 규모 108.4조원(취득세 30.3조원, 지방소비세 19.6조원, 지방소득세 17.2조원)
- 최근 8년간 경기도 본청, 31개 시·군, 수원시 세입의 연평균 증감률 비교 결과 경기도 본청은 10.1% 증가 된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6.6% 증가, 수원시의 경우 3.9% 증가하여 재정압박 지속 중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총 재정 중 자체수입은 11,363억원(44.2%), 이전수입은 12,397억원(48.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56억원(7.6%)로 전국과 비교해 이전수입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재정 자율성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사회복지 분야 지출 1조 1,645억원(45.3%)을 차지하며 전국 평균 30.5% 대비 14.8%p 큼. 이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수원시 재정분석

○ 분석 방향

- 재정여건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간편하게 판단하며 비교 가능하도록 보여줌
- 재정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희소한 재원의 효과적 사용, 재정운용 상태 조건, 법적기준 위배 여부 판단
- 재정부담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쉽게 그 구조와 부담수준을 변경하기 어려운 분야 내용 포함

○ 재정여건 분석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세출예산액, 순편익 모두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수원시는 인구 등 제반 규모가 재정과 비례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우나 이전재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수 재정수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정여건은 부정적인 상황

〈표 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여건 비교 종합

(단위: %, 천원)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재정자립도	44.19	48.66	32.81	62.22	58.62	32.31	46.92	-2.73
재정자주도	55.73	60.63	56.20	70.56	69.11	58.36	62.97	-7.24
1인당지방세부담액(A)	816	961	616	1,450	1,548	792	1,073	-257
1인당세출예산액(B)	2,173	2,411	2,331	2,786	2,903	2,877	2,662	-489
순편익(B-A)	1,357	1,450	1,715	1,336	1,355	2,085	1,588	-231

○ 재정운용 분석

- 시민을 위해 투입되는 공공재의 비중이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높아 희소한 재원의 효율적 투입 필요
-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정탄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도 재정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표 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운용 비교 종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정책사업비중	83.12	82.91	82.39	84.69	85.97	78.13	82.82	0.30
자체사업비중	31.66	34.79	28.19	43.24	39.38	24.79	34.08	-2.42
업무추진비비율	0.04	0.05	0.06	0.04	0.04	0.06	0.05	-0.01
지방의회경비비율	0.08	0.07	0.08	0.08	0.05	0.08	0.07	0.01
지방세징수실적	973,922	993,644	688,072	1,188,648	1,078,733	768,567	943,532	30,389
행사축제경비비율	0.11	0.09	0.16	0.12	0.19	0.48	0.21	-0.10

○ 재정부담 분석

- 분석 결과 대부분 지표에서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해 수원시는 상대적 열위에 있음
- 단기적 세출 구조조정을 넘어 보다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맥락에서 수원시 전체에 대한 재정 구조조정 시행이 필요함

〈표 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부담 비교 종합

(단위: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보조사업비중	51.45	48.13	54.20	41.44	46.59	53.34	48.74	2.71
사회복지비중	45.28	38.49	46.49	41.89	34.86	40.81	40.51	4.77
행정운영경비비중	13.58	10.57	11.61	11.84	8.95	15.57	11.71	1.87
예산대비채무비중	8.51	0.00	0.00	3.40	0.00	8.29	2.34	6.17
공기업부채비중	1.49	19.80	2.93	4.53	4.28	9.88	8.28	-6.79
인건비비중	8.52	6.87	7.12	8.07	5.25	9.87	7.44	1.08

■ 수원시 재정 악화 원인

○ 정부간 재정관계 측면

- 중앙 또는 광역의 이전재원 배분 체계가 재정 왜곡을 불러오며 비합리적인 이전재원 배분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순위 역전 현상 유발
- 균형위주의 정부간 재정관계는 가격효과 왜곡과 자치단체의 적극적 세입 확보 유인 제약
-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 증가, 사회복지 및 국·도비 매칭 부담 증가로 재정탄력성 제약
- 재산과세 중심인 지방세는 국부를 증가시켜 재정 확대 기대 어려움
- 삼성전자 법인소득세 기여분의 과도함은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수원시 세원확보 노력과 관련성 낮음

○ 재정운용 측면

-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 세입-세출 균형을 미준수하여 총 세출 증가를 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속시킴
- 공무원 정원 확대, 조직 신설은 인건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2018년 이후, 공무직 전환 등으로 인건비 지속 증가
- 준정부기관, 민간위탁 등 지속적 경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수,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원인

■ 민선 8기 수원시 재정 여건 및 전망

○ 재정 여건

- (세입 측면) 인구증가율 2015년 기점 감소 추세, 신생아 출산 2020년까지 4.90% 감소 등 인구 충격의 본격화로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며 국가재정 악화 충격은 이전재원 증가 폭 둔화 예상
- (세출 측면) 국가 정책상 목적사업 추진으로 세출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민선 8기 들어 정책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은 42개 사업, 9,782억원 ~ 6,887억원 재원 소요 예상

○ 재정 전망

-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 변수 및 불확실성으로 자주재원 증가폭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인건비, 공공기관 출연금 등 경상적 경비는 큰 폭 증가 예상
- 2022년부터 주요 경상·투자 사업비 자주재원 초과 상황으로 재정위기 진입 위험 상태이며 주요 투자(현안)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필요

■ 민선 8기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

○ 현재까지 주요 대응 노력

- 2019~2022년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정확한 타겟 설정·맞춤형 세일즈로 이전재원 확보
- 불합리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통한 재원 확충

○ 대응 한계와 원인

- 단일기준 세출 구조조정으로 사업별 특수성 미반영
- 재정위기 상황 공유 미흡, 성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
- 필수 경비 삭감할 수 없어 사업비 삭감되는 문제 발생
- 사업부서(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 담당)의 미온적 이행계획 수립
- 증세 없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대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 축소의 원인이 되며 균형발전의 강조는 선택·집중과 다양성·차별성이 불인정되는 구조적 한계 발생
- 재정의 혁신은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여 수동적 추진 경향

■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논리
 - 재정운용의 낭비적 행태 개선
 - 전 부서의 적극적 동참 필요
 - 재정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재정위기 극복 대안
 - 전략적 세입 확보
 - 전략적 자원 배분
 -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
 -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수원시 대응방안 마련
 - 재정부서 직원의 전문성 확보

■ 수원시 재정 현안 대응 분석(별책 부록)

주제어: 수원시, 민선 8기, 재정운용, 재정위기 극복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과 자료 구득	6
3. 연구 기대효과	7
제2장 수원시 재정 현황	9
제1절 지방재정 현황과 수원시 재정의 위상	11
1. 재정 규모	11
2. 세입 세출 특징	18
제2절 수원시 재정 현황과 추세 분석	24
1. 재정 규모	24
2. 수원시 세입 현황	29
3. 수원시 세출 현황	40
제3장 수원시 재정 분석	49
제1절 분석의 방향	51
제2절 재정여건	52
1. 2022년 현황분석	52
2. 재정여건의 시계열분석	55
제3절 재정운용	62
1. 2022년 현황분석	62
2. 운용여건의 시계열분석	67

제4절 재정부담	74
1. 2022년 현황분석	74
2. 재정부담의 시계열분석	79
제4장 수원시 재정악화 원인과 전망	87
제1절 수원시 재정악화 주요 원인	89
1. 정부간 재정관계 측면	89
2. 재정 운용 측면	104
3. 2022년 수원시 재정여건 요약	115
제2절 민선 8기 수원시 재정여건 및 전망	117
1. 분석의 전제	117
2. 세입 측면	118
3. 세출 측면	121
4. 수원시 재정 전망 종합	124
제5장 민선 8기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	127
제1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한계	129
1. 현재까지의 주요 대응 노력	129
2. 대응의 한계와 원인	130
제2절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132
1.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논리	132
2.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133
참고문헌	137
[부록] 수원시 재정 현안 및 대응	[별책]

표 차례

〈표 2-1〉 2022년 국가 및 지방재정 규모	12
〈표 2-2〉 최근 5년간 전국, 경기도, 수원시 재정 규모	13
〈표 2-3〉 최근 5년간 전국, 경기도 시·군 대비 수원시 재정 규모 비중 ..	14
〈표 2-4〉 2022년 기준 자치단체별 재정 규모	15
〈표 2-5〉 2022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재정 규모	16
〈표 2-6〉 2022년 기준 경기도 본청 및 시·군별 순계예산 규모	17
〈표 2-7〉 2022년 기준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재정 규모(총계)	17
〈표 2-8〉 연도별 지방세입 변화	19
〈표 2-9〉 경기도 본청, 31개 시·군, 수원시 세입 변화	20
〈표 2-10〉 2022년 기준 전국, 경기도, 수원시 세입 현황	21
〈표 2-11〉 2022년 기준 세입 특성별 현황	22
〈표 2-12〉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원시 기능별 세출	23
〈표 2-13〉 2022년 재정 규모	25
〈표 2-1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 총 규모 추세	26
〈표 2-1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일반회계 추세	27
〈표 2-1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특별회계 추세	28
〈표 2-1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주재원 및 이전재원 현황	31
〈표 2-1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주재원 추세	32
〈표 2-1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이전재원 추세	33
〈표 2-2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세목별 현황	36
〈표 2-2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소득세 추세	37
〈표 2-2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산세 추세	38
〈표 2-2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추세	39
〈표 2-2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기능별 지출 현황	41
〈표 2-2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복지 및 보건 분야 추세	42
〈표 2-2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교통 및 국토 분야 추세	43
〈표 2-2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성질별 지출 현황	45

〈표 2-2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경상이전 추세	46
〈표 2-2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본지출 추세	47
〈표 3-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여건 비교 종합	55
〈표 3-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재정자립도	56
〈표 3-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재정자주도	57
〈표 3-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1인당 세입액 추세	59
〈표 3-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1인당 세출액 추세	60
〈표 3-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1인당 세입 대비 1인당 세출액 추세	61
〈표 3-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운용 비교 종합	67
〈표 3-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정책사업비중 추세	68
〈표 3-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자체사업비중 추세	69
〈표 3-1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업무추진비비율 추세	70
〈표 3-1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의회경비비율 추세	71
〈표 3-1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세징수실적 추세	72
〈표 3-1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행사·축제경비비율 추세	73
〈표 3-1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부담 비교 종합	79
〈표 3-1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보조사업비중 추세	80
〈표 3-1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사회복지비비중 추세	81
〈표 3-1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행정운영경비비중 추세	82
〈표 3-1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예산대비채무비중 추세	83
〈표 3-1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공기업부채비중 추세	84
〈표 3-2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인건비비중 추세	85
〈표 4-1〉 2022년 기준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90
〈표 4-2〉 2022년 기준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91
〈표 4-3〉 2022년 기준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별 이전재원 보전 현황	93
〈표 4-4〉 두 차례 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액 추정	94
〈표 4-5〉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산식 변화	95
〈표 4-6〉 경기도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구간 변화	96

〈표 4-7〉 2022년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구간	96
〈표 4-8〉 수원시 자주재원 및 이전재원 변화 추세	98
〈표 4-9〉 수원시 의무부담 비중 추세	99
〈표 4-10〉 수원시 지방세 증감 추세	101
〈표 4-11〉 삼성전자 기여분이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율	102
〈표 4-12〉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을 추세	103
〈표 4-13〉 연도별 일반회계 및 자주재원 추세	104
〈표 4-14〉 연도별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추세	105
〈표 4-15〉 2022년 기준 지방채 발행 세부 내역	106
〈표 4-16〉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추세	107
〈표 4-17〉 연도별 공무원 현원 증가 내역	108
〈표 4-18〉 연도별 주요 경상비 증가 내역	109
〈표 4-19〉 분야 · 통계목별 예산 현황	111
〈표 4-20〉 연도별 주요 재산 취득 현황	113
〈표 4-21〉 연도별 출자·출연, 민간위탁, 직장운동경기부 기관수, 인력, 인건비 추세	115
〈표 4-22〉 수원시 일반회계 재원 배분 현황	115
〈표 4-23〉 연도별 일반회계 경상비 및 투자비 추세	116
〈표 4-24〉 수원시 연도별 인구 변화 실태	119
〈표 4-25〉 2022년 국가재정 수지 및 채무	120
〈표 4-26〉 2022년 수원시 보통교부세 내시 현황	121
〈표 4-27〉 주요 국비 신설사업에 따른 추가 부담액	121
〈표 4-28〉 2022년 수원시 보통교부세 내시 현황	122
〈표 4-29〉 민선 8기 정책판단 필요 사업	123
〈표 4-30〉 2022-2030 세입 세출 전망	125
〈표 5-1〉 혁신 저항 요소	13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	7
〈그림 2-1〉 2022년 국가재정 총 규모	11
〈그림 2-2〉 최근 5년간 국가재정 변화	13
〈그림 2-3〉 최근 5년간 경기도 본청 재정 변화	13
〈그림 2-4〉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 재정 변화	13
〈그림 2-5〉 최근 5년간 수원시 재정 변화	13
〈그림 2-6〉 최근 5년간 전국 대비 수원시 비중	14
〈그림 2-7〉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 대비 수원시 비중	14
〈그림 2-8〉 전국 자치단체별 재정 규모	15
〈그림 2-9〉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총계예산 규모	15
〈그림 2-10〉 경기도 및 시·군 재정 규모	16
〈그림 2-11〉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 규모	16
〈그림 2-12〉 지방세 세목별 세입 현황	18
〈그림 2-13〉 광역과 기초 세입의 변화	18
〈그림 2-14〉 경기도 본청, 31개 시·군, 수원시 세입 변화	19
〈그림 2-15〉 전국 단체별 세입 규모	20
〈그림 2-16〉 경기도 본청, 30개 시·군, 수원시 세입 규모	20
〈그림 2-17〉 전국 세입 규모	21
〈그림 2-18〉 수원시 세입 규모	21
〈그림 2-19〉 전국 기능별 세출 규모	22
〈그림 2-20〉 수원시 기능별 세출 규모	22
〈그림 2-21〉 2022년 재정 규모	24
〈그림 2-2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 총 규모 추세	25
〈그림 2-2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일반회계 추세	27
〈그림 2-2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특별회계 추세	28
〈그림 2-2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세입 구성 현황	30
〈그림 2-2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주재원 및 이전재원 비중 비교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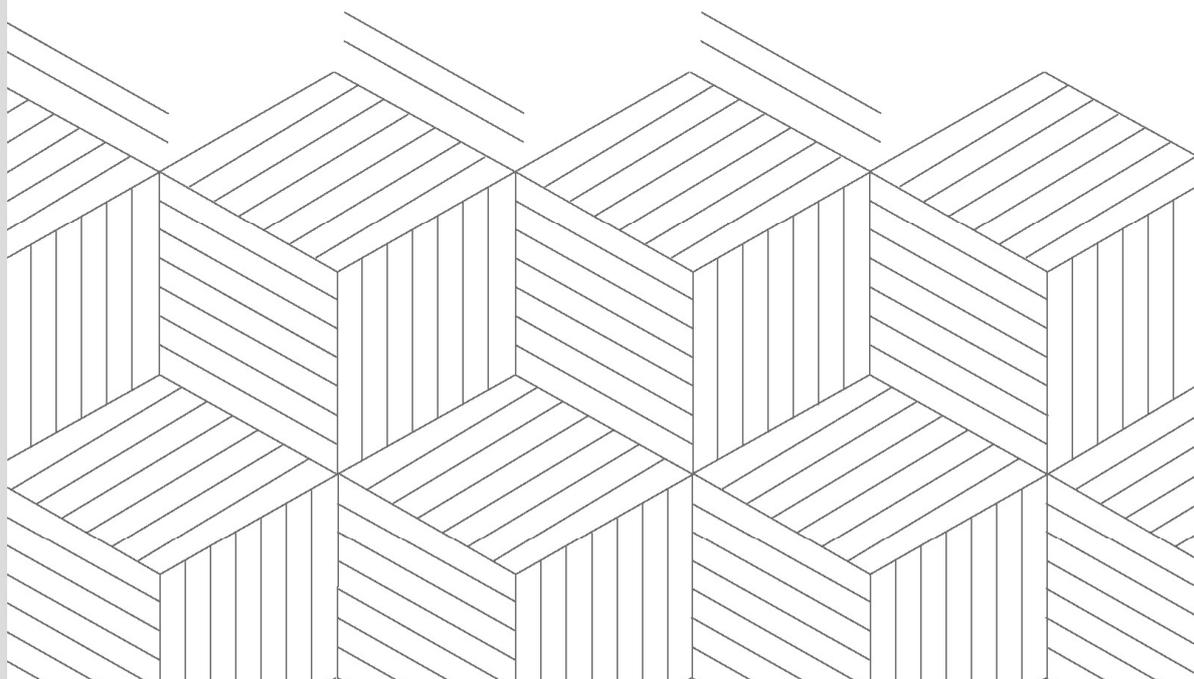
〈그림 2-2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주재원 추세	32
〈그림 2-2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이전재원 추세	33
〈그림 2-2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세 현황	34
〈그림 2-30〉 수원시 세목별 구조	34
〈그림 2-31〉 유사자치단체 세목별 구조	35
〈그림 2-3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세목별 구조 비교	35
〈그림 2-3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소득세 추세	36
〈그림 2-3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산세 추세	38
〈그림 2-3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추세	39
〈그림 2-3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기능별 지출 현황	41
〈그림 2-3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복지 및 보건 분야 추세	42
〈그림 2-3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교통 및 국토 분야 추세	43
〈그림 2-3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성질별 지출 현황	44
〈그림 2-4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경상이전 분야 추세	45
〈그림 2-4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본지출 분야 추세	47
〈그림 3-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52
〈그림 3-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현황	53
〈그림 3-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지방세 부담액	53
〈그림 3-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세출 예산액	54
〈그림 3-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부담과 편익 비교	54
〈그림 3-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세	56
〈그림 3-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추세	57
〈그림 3-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세입액 추세	58
〈그림 3-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세출 추세	60
〈그림 3-1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세입 대비 1인당 세출액 추세	61
〈그림 3-1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정책사업비중 현황	62
〈그림 3-1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체사업비중 현황	63
〈그림 3-1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업무추진비비율 현황	64
〈그림 3-1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비율 현황	64
〈그림 3-1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세징수실적 현황	65

〈그림 3-1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비율 현황	66
〈그림 3-1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정책사업비중 추세	67
〈그림 3-1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체사업비중 추세	69
〈그림 3-1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업무추진비비율 추세	70
〈그림 3-2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비율 추세	71
〈그림 3-2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세징수실적 추세	72
〈그림 3-2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비율 추세	73
〈그림 3-2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보조사업비중 현황	74
〈그림 3-2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사회복지비비중 현황	75
〈그림 3-2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행정운영경비비중 현황	75
〈그림 3-2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예산대비채무비중	76
〈그림 3-2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공기업부채비중	77
〈그림 3-2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인건비비중	78
〈그림 3-2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보조사업비중 추세	79
〈그림 3-3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사회복지비비중 추세	80
〈그림 3-3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행정운영경비비중 추세	81
〈그림 3-3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예산대비채무비중 추세	83
〈그림 3-3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공기업부채비중 추세	84
〈그림 3-3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인건비비중 추세	85
〈그림 4-1〉 국가-지방 세입 구조	89
〈그림 4-2〉 국가-지방 세출 구조	89
〈그림 4-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차이	90
〈그림 4-4〉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순위	91
〈그림 4-5〉 유사자치단체 지방세 충당 능력 및 이전재원 보전율	93
〈그림 4-6〉 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자원 축소 현황	94
〈그림 4-7〉 수원시 자주재원 및 이전재원 변화 추세	97
〈그림 4-8〉 국·도비 매칭 부담	98
〈그림 4-9〉 사회복지비 부담	98
〈그림 4-10〉 세입 부담과 세출 편익의 괴리	99
〈그림 4-11〉 국세 구조	100
〈그림 4-12〉 지방세 구조	100

〈그림 4-13〉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추세	101
〈그림 4-14〉 수원시 세입 중 지방소득세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	102
〈그림 4-15〉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추세	103
〈그림 4-16〉 일반회계 세출 총액과 자주재원 추세	104
〈그림 4-17〉 일반회계 세출 총액과 자주재원 증감 추세	104
〈그림 4-18〉 지방세 대비 채무 비중 추세	105
〈그림 4-19〉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추세	105
〈그림 4-20〉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추세	107
〈그림 4-21〉 2022년 기준 종별 인건비 현황	107
〈그림 4-22〉 연도별 공무원 종별 추세	108
〈그림 4-23〉 연도별 주요 경상비 증가 추세	109
〈그림 4-24〉 종별 연평균 증감률	109
〈그림 4-25〉 공공기관 통계목별 예산 현황	110
〈그림 4-26〉 위탁·보조사업 분야 통계목별 예산 현황	110
〈그림 4-27〉 교육지원 분야 통계목별 예산 현황	110
〈그림 4-28〉 행사·축제분야 통계목별 예산 현황	110
〈그림 4-29〉 주요경상비 증가요인(기관수)	112
〈그림 4-30〉 2011년 대비 2022년 변화(기관수)	112
〈그림 4-31〉 주요 경상비 증가요인(인력)	114
〈그림 4-32〉 2011년 대비 2022년 변화(인력)	114
〈그림 4-33〉 주요 경상비 증가요인(인건비)	114
〈그림 4-34〉 2011년 대비 2022년 변화(인건비)	114
〈그림 4-35〉 연도별 일반회계 경상비와 투자비 추세	116
〈그림 4-36〉 수원시 인구 총량 및 생산가능 인구 변화	119
〈그림 4-37〉 수원시 출산 및 전입·전출 현황	119
〈그림 4-38〉 수원시 인구 총량 및 생산가능 인구 변화 예측	120
〈그림 4-39〉 신생아 출산 예측	120
〈그림 4-40〉 주요 경상비 및 대규모 투자사업 부담 예측	124
〈그림 4-41〉 자주재원과 경상 투자비 부담액	124
〈그림 5-1〉 재정혁신 전략의 사고 변화	13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지방재정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옴
 - 지역주민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다양한 재정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재정분권 또는 정부간 재정관계 틀 속에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과거의 제도가 사라지기도 하였음
- 지방자치의 하는 이유는 재정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음
 -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실에서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한계에 직면함
 - (구조적 측면) 국세-지방세의 8:2 고착화, 지방재정의 45%를 차지하는 이전재원,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심화, 일반회계의 48%에 육박하는 보조사업과 32%를 차지하는 복지사업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크게 압박함¹⁾
 - (운영적 측면)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의 확대, 준정부조직의 방만 운영, 공약사업의 무리한 추진, 재정운영 절차와 기준 미이행,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 등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킴
- 2022년 민선 8기의 등장, 수원시는 12년 만에 혁신의 길목에서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1)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서 발췌

- 민선 8기는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우선 목적을 둘 것임
 -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달성하는 과정임
 - 민선 7기 주요 정책과 사업 중 일부는 계승될 것이나 12년 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정부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 추진이 예상됨.
 -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재원투입의 필요성을 발생시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수원시는 2019년부터 재정압박에 직면, 재정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였으나 지금도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
 - 수원시는 2020년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 수원시 역사상 처음 교부세를 지원받음
 - 재정운용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과 지속적인 세출 효율화를 통해 2022년 다시 불교부 단체의 지위를 회복함
 -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 대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 축소, 신규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재정투입의 시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짐
 - 이는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급한 상황에 대처한 것으로 향후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의 총량은 감소되지 않음
 -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 세입 증가율은 매년 둔화되고 있음. 과거처럼 수원시 세입을 지탱해온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할 것임
 -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이미 2022년은 국내외 정세 악화, 국제 공급망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위협받고 있음
 -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 저성장에 직면해 있고, 2022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취득세입 감소 등으로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감소가 예상됨
- 긍정적이지 않은 재정여건 속, 민선 8기 성공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원시 재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함
 - 현 상황은 수원시 재정에 긍정적이지 않음. 언제든지 재정은 크게 팽창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데 반해 세입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함
 - 세입과 세출의 괴리상태가 지속되면 재정압박을 넘어 재정위기로 전환됨
 - 민선 8기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수원시 재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은 보다 항구적이고 원칙적인 관점에서 재설정 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는 재정압박에 직면하여 현안에 대응한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 아래에서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을 늘리는 것인데, 다양한 이유로 실현되기 어려움
 - (법률상)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
 - (정치상) 지역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증세가 어려움
 - (현실상) 세입이 증가될수록 이전재원의 규모가 작아져, 세입확보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적음
- 수원시의 재정현황은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수직·수평적으로 연계되어진 구조와 환경의 산물로서 이를 종합 고려한 진단이 필요함
 - 현재 수원시의 재정 여건과 실태는 과거 12년간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결과물임
 - 민선 5, 6, 7기 동안 추진된 재정정책의 방향에 따른 결과로서 이러한 재정의 기초는 쉽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정부간 재정관계는 중앙-道-수원시로 또는 인근 자치단체간 매우 긴밀하게 연계
 - 한 국가 내에서 수원시의 재정 상태는 타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수원시 역시 타 자치단체로부터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정부간 재정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비교 분석 등을 통한 재정분석과 진단이 필요함. 이 연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민선 8기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짐
 - 첫째, 민선 7기 재정운용 현황과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민선 8기 재정운용 방향의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재정은 시간적으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 지금 수원시의 재정은 과거의 재정에서 점증적으로(incremental) 변화되어 온 것임
 - 따라서 현 상황의 정확한 이해는 과거 재정상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함
 - 둘째,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략을 함께 만들어 수원시 재정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함
 - 현안 발생시 즉각적인 정보의 획득과 이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을 건별로 제공
 - 이 부분은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되, 불가능한 부분은 비공개 처리하여 진행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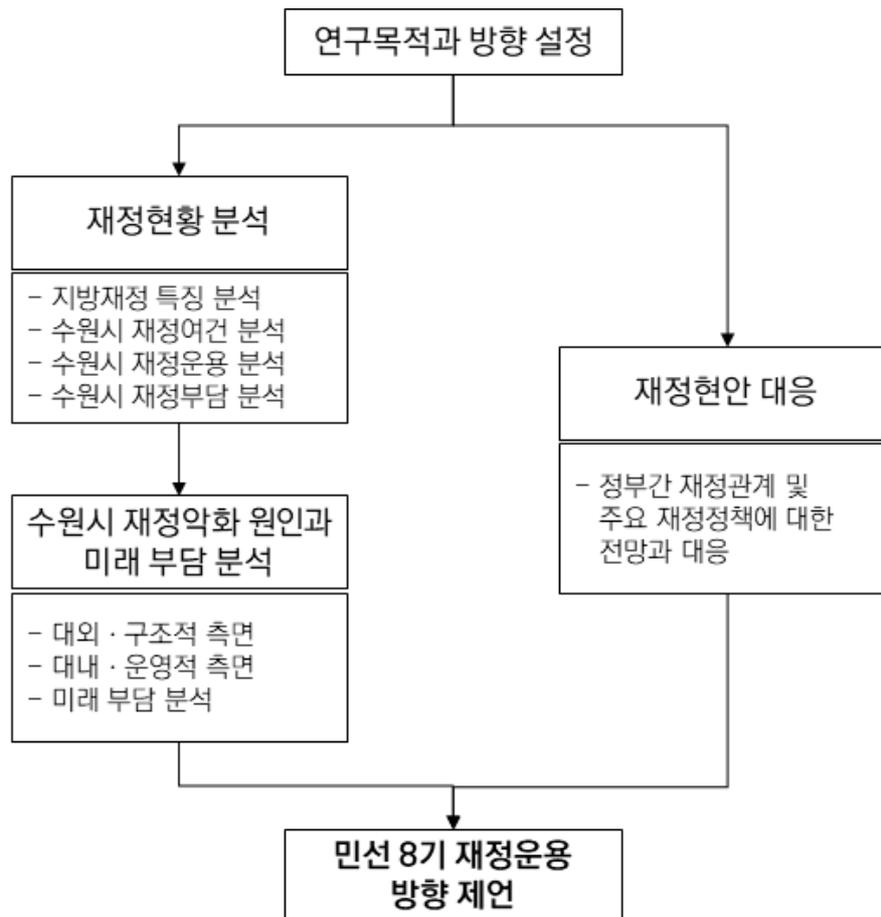
- 내용적 범위는 이 연구가 갖는 두 가지 목적의 이행을 위해 수원시 재정 현안 대응과 재정상태의 역사적 분석 및 진단이라는 two track 연구를 진행함
 - (민선 7기 재정현황 분석·진단)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진단 추진
 - 지방재정 실태에 대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수원시 재정여건, 재정운용 실태 등을 분석
 - 수원시만의 특수 재정요인을 추가해 분석함으로써 수원시 전체적인 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특수 재정 요인은 수원시가 재정압박에 직면한 이유와 원인을 대외·구조적 측면과 대내·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봄
 - (현안 대응) 수원시 요청에 따라 긴급한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함
 - 수원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 및 전략 등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분석 지원
 - 수원시에서 긴급하게 분석·대응을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해 지원
 -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되, 수원시와 재정 상태 및 인구가 유사한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수원시 재정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도출하고자 함
- 시간적 범위는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임
 - 민선 5기의 시작은 2010년인데, 분석상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2년까지로 함
 - 본 연구의 시간적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재정의 특수성 때문임. 재정은 흐름을 함께 볼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임

2. 연구 방법과 자료 구득

-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이 함께 사용됨
 - 당초 연구의 범위는 민선 7기에 한정되어 있으나 민선 7기의 재정상태는 그 이전인 6기 또는 5기와 무관하지 않음. 따라서 수원시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은 시계열적으로 그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 수원시와 유사한 경기도내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그리고 경상남도의 창원시 재정을 횡단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수원시 재정의 현주소를 이해하고자 함

- 분석을 위한 자료는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공식자료와 수원시 내부 자료를 활용함
- 연구 추진을 위한 two track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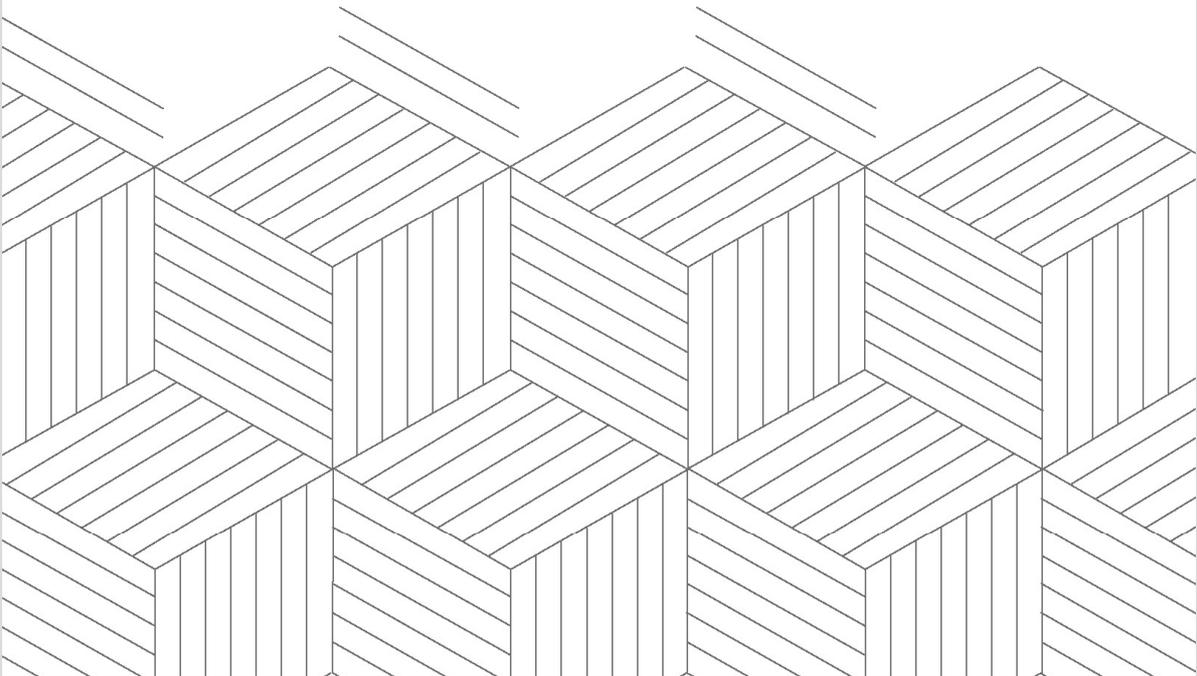


3. 연구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자료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짐
 -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재정의 역사와 변화에 대한 근거 자료에 기반한 분석으로 재정관련 정책 및 방향 결정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이 연구는 수원시 재정운용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함
 -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재정운용상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은 수원시가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될 것이며, 행정을 통해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음

제2장 수원시 재정 현황

제1절 지방재정 현황과 수원시 재정의 위상
제2절 수원시 재정 현황과 추세 분석



제2장 수원시 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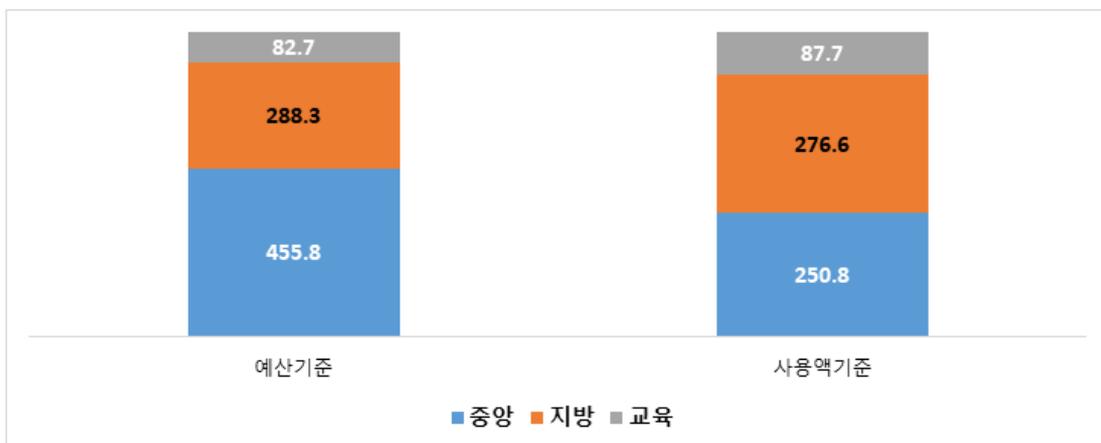
제1절 지방재정 현황과 수원시 재정의 위상

1. 재정 규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국가재정 총액은 826.8조원이며, 이 중 288.3조원이 지방재정으로 국가재정 총액의 34.9% 차지
 - 예산서상 대한민국 총 재정 : 중앙 455.8조원, 지방 288.3조원, 교육 82.7조원
- 2022년 사용액 기준 국가재정 총액은 615.1조원이며, 이 중 276.6조원을 지방이 사용하여 총 재정의 45.0% 차지
 - 재정사용액 기준 : 중앙 250.8조원, 지방 276.6조원, 교육 87.7조원

〈그림 2-1〉 2022년 국가재정 총 규모

(단위: 조원)



〈표 2-1〉 2022년 국가 및 지방재정 규모

(단위: 조원)

구분	예산 기준		사용액 기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앙	455.8	55.1%	250.8	40.8%
지방	288.3	34.9%	276.6	45.0%
교육	82.7	10.0%	87.7	14.3%
합계	826.8	100.0%	615.1	100.0%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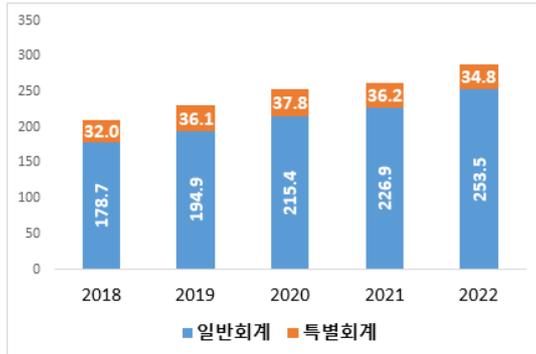
주1: 당초예산 기준

주2: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이 장에서의 분석 자료와 기준은 동일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규모는 253.5조원, 특별회계 규모는 34.8조원
 - 최근 5년간 일반회계는 9.1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6%가 증가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경기도 본청 일반회계 규모는 30.0조원, 특별회계 규모는 3.6조원
 - 최근 5년간 일반회계는 1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가 증가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일반회계 규모는 38.4조원, 특별회계 규모는 7.1조원
 - 최근 5년간 일반회계는 9.9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9%가 감소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일반회계 규모는 2.6조원, 특별회계 규모는 0.3조원
 - 최근 5년간 일반회계는 6.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8.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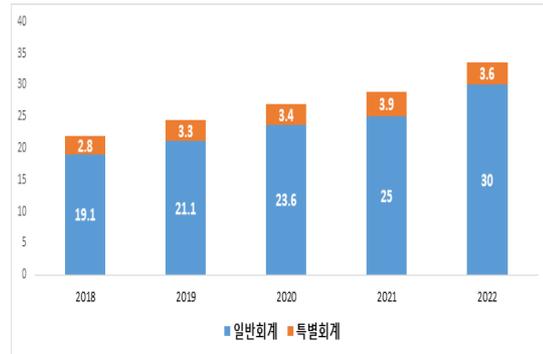
〈그림 2-2〉 최근 5년간 국가재정 변화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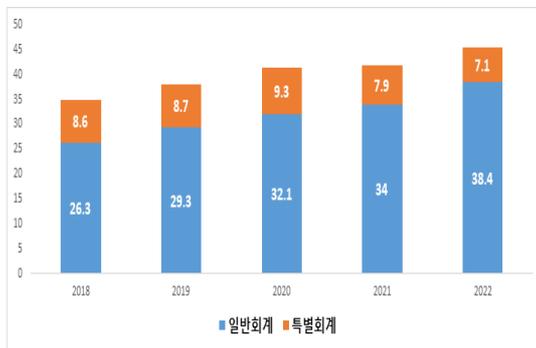
〈그림 2-3〉 최근 5년간 경기도 본청 재정 변화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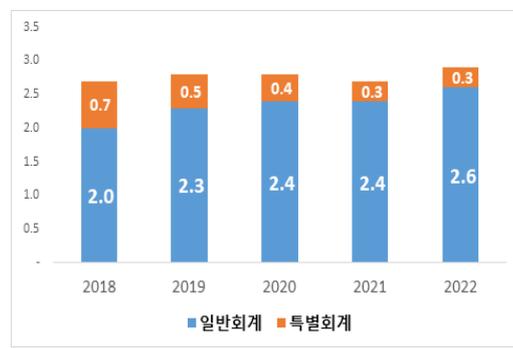
〈그림 2-4〉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 재정 변화

(단위: 조원)



〈그림 2-5〉 최근 5년간 수원시 재정 변화

(단위: 조원)



〈표 2-2〉 최근 5년간 전국, 경기도, 수원시 재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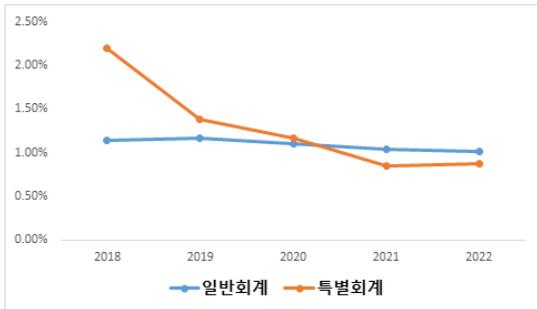
(단위: 조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일반회계	178.7	194.9	215.4	226.9	253.5
	특별회계	32.0	36.1	37.8	36.2	34.8
경기도 본청	일반회계	19.1	21.1	23.6	25	30
	특별회계	2.8	3.3	3.4	3.9	3.6
경기도 시·군	일반회계	26.3	29.3	32.1	34	38.4
	특별회계	8.6	8.7	9.3	7.9	7.1
수원시	일반회계	2.0	2.3	2.4	2.4	2.6
	특별회계	0.7	0.5	0.4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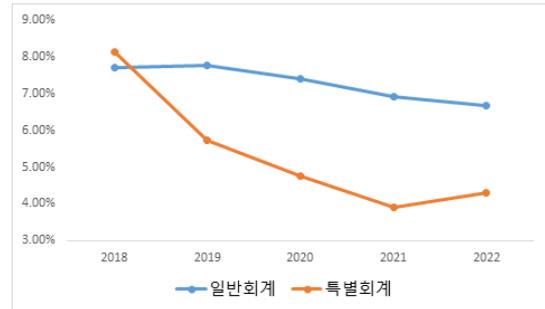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일반회계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9%임. 특별회계는 전국 대비 0.88%, 경기도 대비 4.30% 수준임.
- 최근 5년간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대비 연평균 2.73%가 감소되었고,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대비 3.44%가 감소함. 특별회계는 전국 대비 연평균 20.53%가 감소되었고, 경기도 시·군 평균 대비 14.73%가 하락함.

〈그림 2-6〉 최근 5년간 전국 대비 수원시 비중 (단위: %)



〈그림 2-7〉 최근 5년간 경기도 시·군 대비 수원시 비중 (단위: %)



〈표 2-3〉 최근 5년간 전국, 경기도 시·군 대비 수원시 재정 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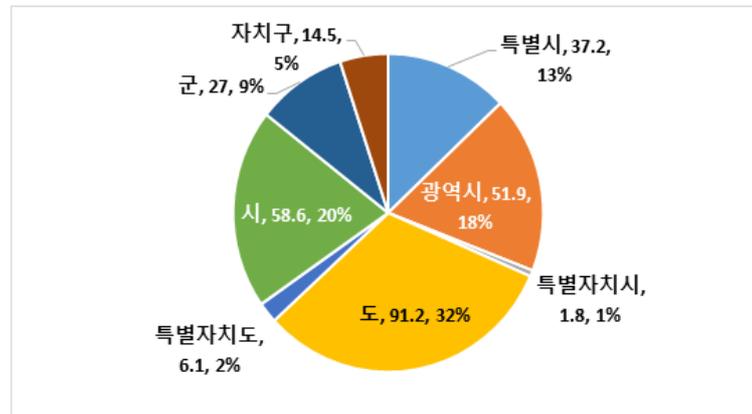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전국 대비 수원	일반회계	1.13	1.17	1.11	1.04	1.01	-2.73
	특별회계	2.20	1.38	1.17	0.85	0.88	-20.53
경기도 시·군 대비 수원	일반회계	7.70	7.78	7.43	6.93	6.69	-3.44
	특별회계	8.14	5.73	4.75	3.90	4.30	-14.73

- 2022년 당초예산 총액을 자치단체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별시는 37.2조원으로 전체 지방재정의 12.9%차지, 광역시는 51.9조원으로 18.0% 차지, 특별자치시는 1.8조원으로 0.6%차지
 - 도는 91.2조원으로 31.6%차지, 특별자치도는 6.1조원으로 2.1%차지, 시는 58.6조원으로 20.3%차지, 군은 27.0조원으로 9.4%차지, 자치구는 14.5%로 5.0% 차지

〈그림 2-8〉 전국 자치단체별 재정 규모

(단위: 조원)



〈표 2-4〉 2022년 기준 자치단체별 재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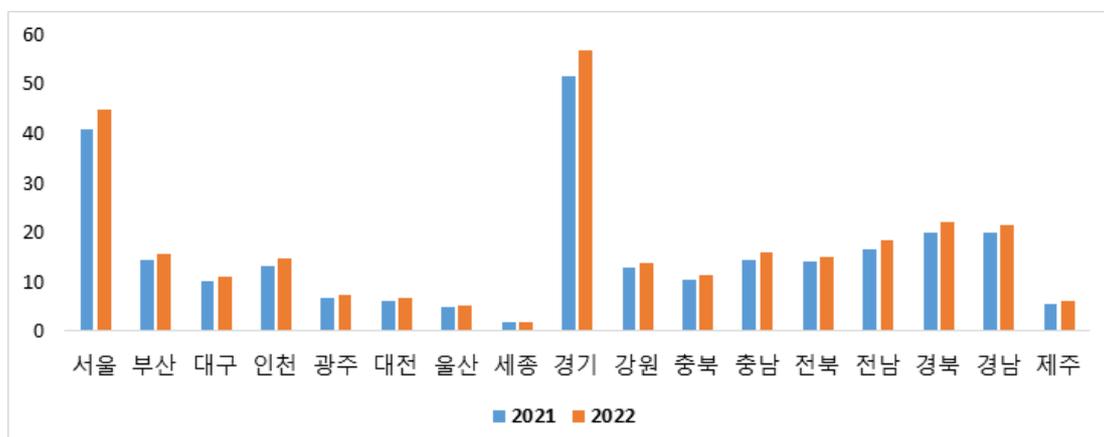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	시	군	자치구	합계
총액	37.2	51.9	1.8	91.2	6.1	58.6	27	14.5	288.3
비율	12.9	18.0	0.6	31.6	2.1	20.3	9.4	5.0	100.0

- 2022년 당초예산 총계 기준(광역에 시·군 및 자치구 포함)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6.9조원으로 전국 자치단체 재정 총액의 19.7%를 차지함
 - 서울이 44.9조원으로 15.6%를 차지하고 경북이 22.0조원으로 7.6%, 경남이 21.5조원으로 7.5%를 차지함

〈그림 2-9〉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총계예산 규모

(단위: 조원)



〈표 2-5〉 2022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재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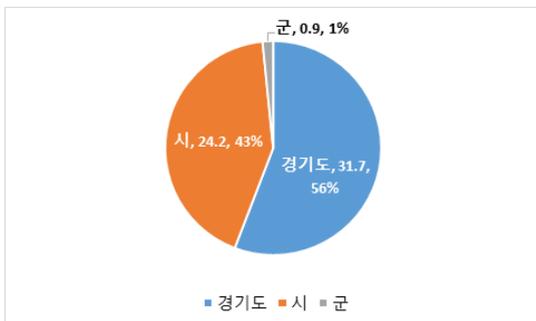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2년 비중	구분	2021년	2022년	2022년 비중
서울	40.7	44.9	15.6	강원	12.9	13.8	4.8
부산	14.4	15.7	5.4	충북	10.3	11.3	3.9
대구	10.1	10.9	3.8	충남	14.4	15.9	5.5
인천	13.3	14.6	5.1	전북	14	15.1	5.2
광주	6.6	7.4	2.6	전남	16.7	18.5	6.4
대전	6	6.8	2.4	경북	20.1	22	7.6
울산	4.9	5.3	1.8	경남	20	21.5	7.5
세종	1.7	1.8	0.6	제주	5.6	6.1	2.1
경기	51.5	56.9	19.7	합계	263.2	288.5	

- 2022년 기준 경기도 총 재정 56.9조원 중 경기도 본청이 31.7조원으로 55.8%를 차지하고 시가 24.2조원으로 42.6%를 차지하며, 군은 0.9조원으로 1.6% 차지
 - 시 일반회계 24.2조원을 28개 시로 평균화하면 시 한 곳당 평균 0.9조원 규모
 - 군 일반회계 0.9조원을 3개 군으로 평균화하면 군 한 곳당 평균 0.3조원 규모
- 경기도 31개 시·군 총계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남시와 고양시가 3조원을 넘긴 규모이고,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산시 등 7개 자치단체가 2조원을 넘기는 규모임
 - 성남시부터 안산시까지 상위 9개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는 23.5조원으로 31개 시·군 전체 재정 규모인 46.4조원의 50.5%를 차지하는 수준임

〈그림 2-10〉 경기도 및 시·군 재정 규모

(단위: 억원)



〈그림-2-11〉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 규모

(단위: 억원)



〈표 2-6〉 2022년 기준 경기도 본청 및 시·군별 순계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경기도	시	군	합계
재정 규모	316,947	242,222	9,367	568,536
비중	55.8	42.6	1.6	100.0

자료: 경기도(2022) 「예산개요」

〈표 2-7〉 2022년 기준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재정 규모(총계)

(단위: 억원)

자치단체명	재정 규모						
성남시	32,639	안산시	20,089	이천시	11,411	구리시	7,073
고양시	30,724	파주시	17,854	양주시	10,534	오산시	6,987
용인시	29,871	안양시	15,640	광명시	9,578	연천군	5,606
화성시	29,481	김포시	15,212	포천시	8,964	의왕시	5,563
수원시	28,774	시흥시	15,021	양평군	8,948	동두천시	5,489
부천시	22,100	광주시	14,567	여주시	8,899	가평군	5,442
남양주시	20,718	의정부시	13,993	하남시	8,703	과천시	5,266
평택시	20,156	안성시	11,662	군포시	8,270	합계	455,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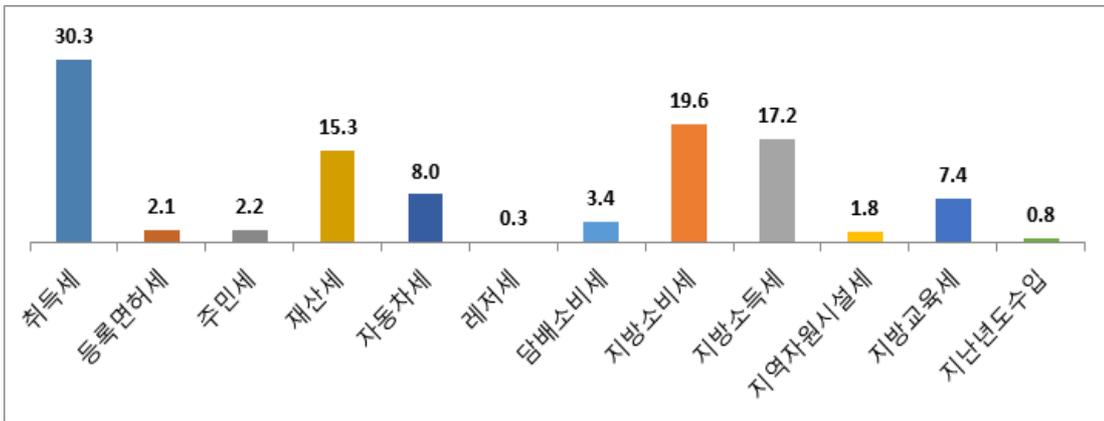
자료: 경기도(2022) 「예산개요」

2. 세입 세출 특징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총 규모는 108.4조원임. 취득세가 30.3조원으로 28.0%를 차지하고, 지방소비세가 19.6조원으로 18.1%를 차지하며, 지방소득세가 17.2조원으로 15.9%를 차지함.

〈그림 2-12〉 지방세 세목별 세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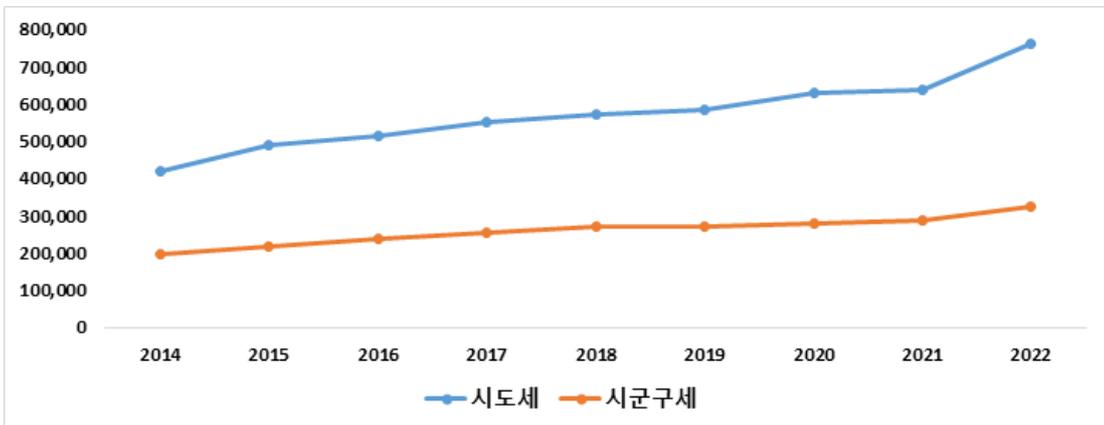
(단위: 조원)



- 세목을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를 구분해 비교하면 지방세 총량은 최근 8년동안 7.31%가 증가되었음.
 - 광역세가 연평균 7.73% 증가하는 데 반해 기초세입은 연평균 6.37% 증가하는 데 그침

〈그림 2-13〉 광역과 기초 세입의 변화

(단위: 억원)



〈표 2-8〉 연도별 지방세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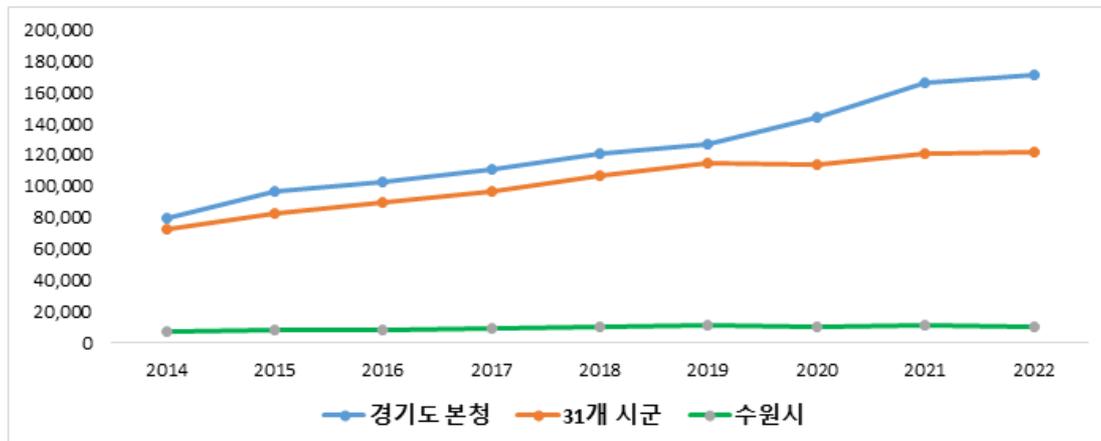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지방세 합계	시·도세	시·군·구세
2014	617,225	419,664	197,561
2015	709,777	491,365	218,412
2016	755,305	516,095	239,210
2017	804,063	550,683	253,380
2018	843,152	573,342	269,810
2019	855,359	582,679	272,680
2020	909,501	629,548	279,953
2021	925,048	637,871	287,177
2022	1,085,070	761,291	323,779
연평균 증감률	7.31	7.73	6.37

- 세목을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 그리고 수원시를 비교하면 경기도 본청의 세입은 최근 8년 동안 연평균 10.1%가 증가하였음. 반면 31개 시·군은 연평균 6.6%가 증가하는 등 도세에 비해 시·군세의 신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원시는 8년 동안 연평균 3.9%만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2-14〉 경기도 본청, 31개 시·군, 수원시 세입 변화

(단위: 억원)



〈표 2-9〉 경기도 본청, 31개 시·군, 수원시 세입 변화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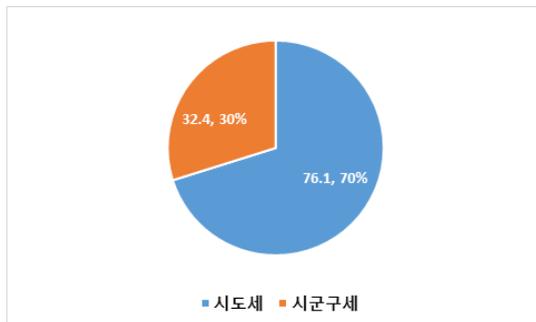
구분	경기도 본청	31개 시·군	수원시
2014	79,158	73,002	7,130
2015	96,755	82,100	8,297
2016	102,994	89,458	7,896
2017	110,532	96,574	8,593
2018	121,196	106,875	10,296
2019	126,700	114,681	11,117
2020	144,181	113,829	9,739
2021	166,468	120,852	10,970
2022	171,446	121,943	9,662
연평균 증감률	10.14	6.62	3.87

자료: 경기도(2022) 「예산개요」

- 2022년 당초예산 세입 기준 전국 광역 세입액은 76.1조원으로 70.1%를 차지하고, 기초가 32.4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29.9%를 차지함.
- 2022년 당초예산 세입 기준 경기도 본청 세입액은 17.1조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입액의 58.4%를 차지하고, 수원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의 세입액은 11.2조원으로 38.3%를 차지함. 그리고 수원시는 0.9조원 규모로 경기도 전체 세입액의 3.3%를 차지함.

〈그림 2-15〉 전국 단체별 세입 규모

(단위: 조원)



〈그림 2-16〉 경기도 본청, 30개 시·군, 수원시 세입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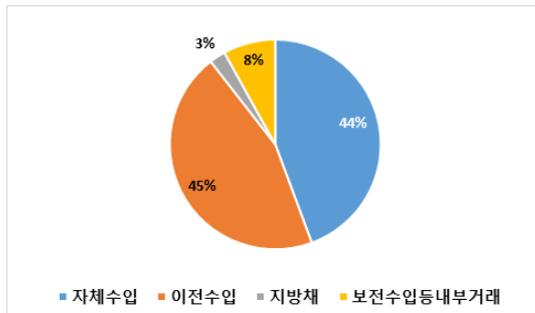
〈표 2-10〉 2022년 기준 전국, 경기도, 수원시 세입 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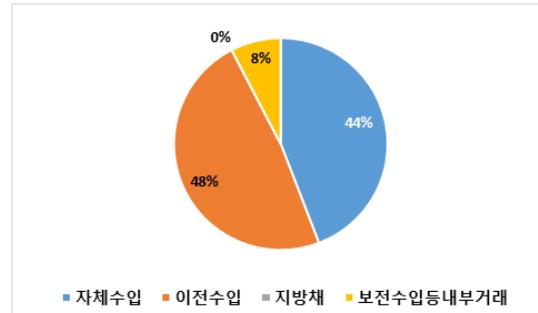
구분	전국		구분	경기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시·도세	76.1	70.1	경기도 본청	17.1	58.4
시·군·구세	32.4	29.9	30개 시·군	11.2	38.3
			수원시	0.9	3.3
합계	108.5	100.0	합계	29.2	100.0

- 전국 자치단체 총 재정의 자체수입액은 132.8조원으로 46.1%를 차지하고, 이전수입은 131.7조원으로 45.7%를 차지함. 지방채는 4.0조원으로 1.4%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7조원으로 6.8%를 차지함
- 수원시 총 재정 중 자체수입은 11,364억원으로 44.2%를 차지하고, 이전수입은 12,397억원으로 48.2%를 차지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56억원으로 7.6%를 차지함
- 수원시의 세입 현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이전수입의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재정의 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7〉 전국 세입 규모



〈그림 2-18〉 수원시 세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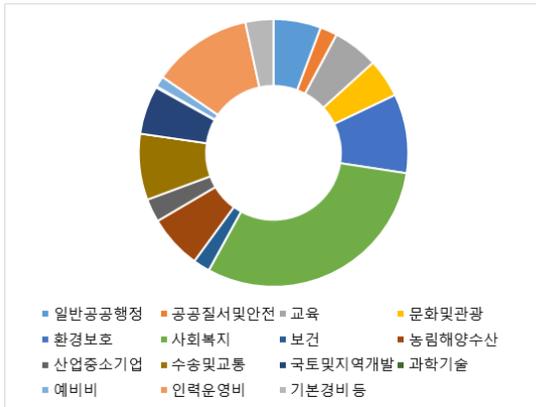
〈표 2-11〉 2022년 기준 세입 특성별 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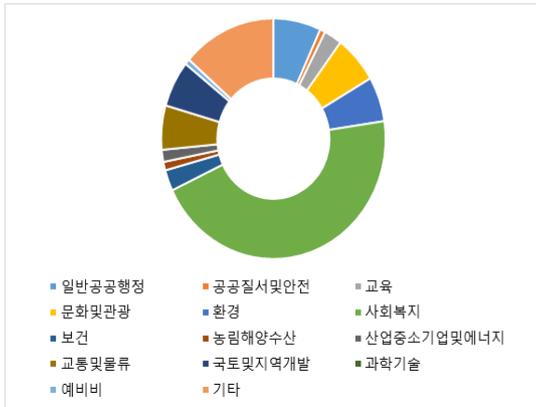
구분	전국				수원시			
	2020	2021	2022	비중	2020	2021	2022	비중
자체수입	115.0	116.7	132.8	46.1	1.1	1.3	1.1	44.2
이전수입	110.1	118.7	131.7	45.7	1.7	1.6	1.2	48.2
지방채	5.6	6.5	4.0	1.4	0.1	0.0	0.0	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5	21.1	19.7	6.8	0.3	0.2	0.2	7.6
합계	253.2	263.1	288.3	100.0	3.2	3.2	2.6	100.0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전체 세출의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력운영경비가 12.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수원시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1조 1,645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45.3%를 차지하며, “기타”를 제외할 경우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이 1,766억원으로 6.9%를 차지함
- 세출에 있어 수원시는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 등 경상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9〉 전국 기능별 세출 규모



〈그림 2-20〉 수원시 기능별 세출 규모



〈표 2-12〉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원시 기능별 세출

(단위: 억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원시		
세출분야	지출액	비중	세출분야	지출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164,694	5.7	일반공공행정	1,766	6.9
공공질서및안전	58,990	2.0	공공질서및안전	197	0.8
교육	157,968	5.5	교육	664	2.6
문화및관광	134,061	4.6	문화및관광	1,652	6.4
환경보호	275,302	9.5	환경	1,549	6.0
사회복지	880,572	30.5	사회복지	11,645	45.3
보건	58,282	2.0	보건	726	2.8
농림해양수산	187,290	6.5	농림해양수산	293	1.1
산업중소기업	81,167	2.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16	1.6
수송및교통	230,371	8.0	교통및물류	1,530	5.9
국토및지역개발	168,434	5.8	국토및지역개발	1,599	6.2
과학기술	3,975	0.1	과학기술	0	0.0
예비비	37,863	1.3	예비비	189	0.7
인력운영비	347,213	12.0	기타	3,492	13.6
기본경비등	96,901	3.4			
합계	2,883,083	100	합계	25,718	100

제2절 수원시 재정 현황과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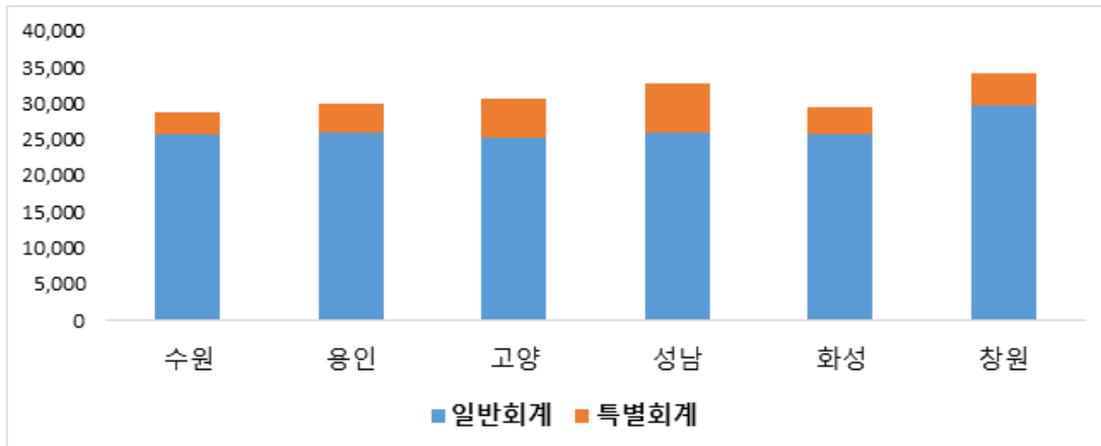
1. 재정 규모

1) 재정 총량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재정 총량은 2조 8,774억원 규모임
 - 일반회계가 2조 5,717억원으로 총 재정의 89.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3,057억원으로 10.6%를 차지함
- 유사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총량은 3조 1,398억원으로 수원시 재정 총량 대비 2,624억원이 큼
 - 일반회계가 2조 6,508억원으로 총 재정의 84.4%를 차지하고, 수원시 대비 791억원이 큰 규모임. 특별회계는 4,890억원으로 총 재정의 15.6%를 차지하며, 수원시 대비 1,833억원이 큰 규모임.
- 유사자치단체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3조 4,276억원 규모이고, 성남시가 3조 2,640억원으로 두 번째로 재정규모가 큼
 - 창원시는 소방업무 수행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 280억원이 포함된 규모임

〈그림 2-21〉 2022년 재정 규모

(단위: 억원)



〈표 2-13〉 2022년 재정 규모

(단위: 억원)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일반회계	25,717	25,976	25,157	25,940	25,750	29,717	26,508	-791
특별회계	3,057	3,895	5,566	6,700	3,731	4,559	4,890	-1,833
합계	28,774	29,871	30,723	32,640	29,481	34,276	31,398	-2,624

자료: 지방재정 365, 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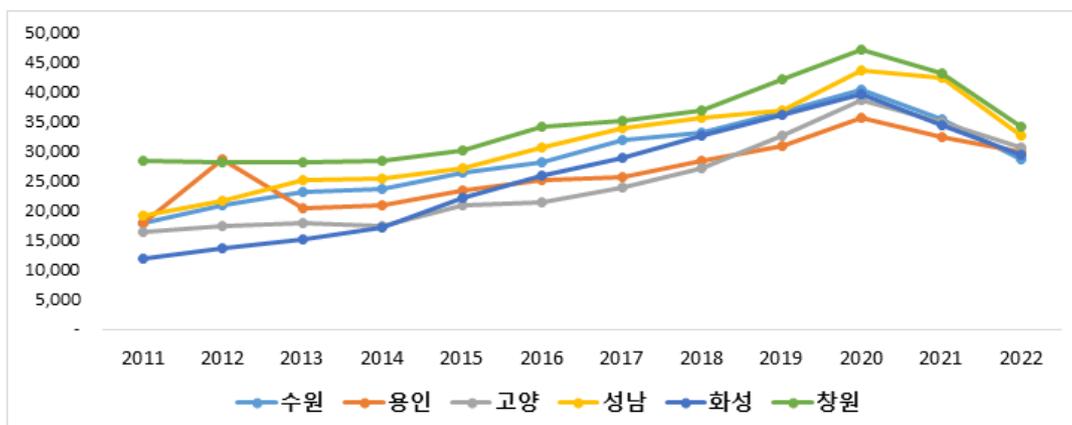
주1: 당초예산 기준

주2: 천원단위 반올림 등으로 인해 합계에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동일

- 수원시 재정총량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됨. 최근 10년간 재정 총량은 연평균 7.05%가 증가함.
 - 유사자치단체들의 재정 총량 변화 추세도 수원시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 유사자치단체의 재정 총량은 최근 10년간 7.17%가 증가되었음. 재정 총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11.16%가 증가되었음.
 - 최근 10년간 수원시 재정 총량 규모가 유사자치단체 대비 컸던 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임

〈그림 2-2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 총 규모 추세

(단위: 억원)



〈표 2-1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 총 규모 추세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17,948	17,960	16,372	19,292	11,941	28,363	18,786	-838
2012	20,849	28,741	17,345	21,787	13,776	28,129	21,956	-1,107
2013	23,172	20,472	17,866	25,151	15,152	28,126	21,353	1,819
2014	23,718	20,839	17,445	25,488	17,094	28,387	21,851	1,867
2015	26,371	23,536	20,928	27,136	22,208	30,212	24,804	1,567
2016	28,098	25,163	21,441	30,728	25,884	34,140	27,471	627
2017	31,838	25,724	24,021	33,841	28,956	35,105	29,529	2,309
2018	33,290	28,528	27,256	35,552	32,801	36,828	32,193	1,097
2019	36,692	30,858	32,797	36,971	36,161	42,223	35,802	890
2020	40,545	35,697	38,720	43,701	39,586	47,051	40,951	-406
2021	35,476	32,543	34,981	42,513	34,384	43,226	37,529	-2,053
2022	28,774	29,871	30,723	32,640	29,481	34,276	31,398	-2,624
연평균 증감률	7.05	6.12	7.89	8.22	11.16	4.30	7.17	0.11

주1: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최종, 2022년은 당초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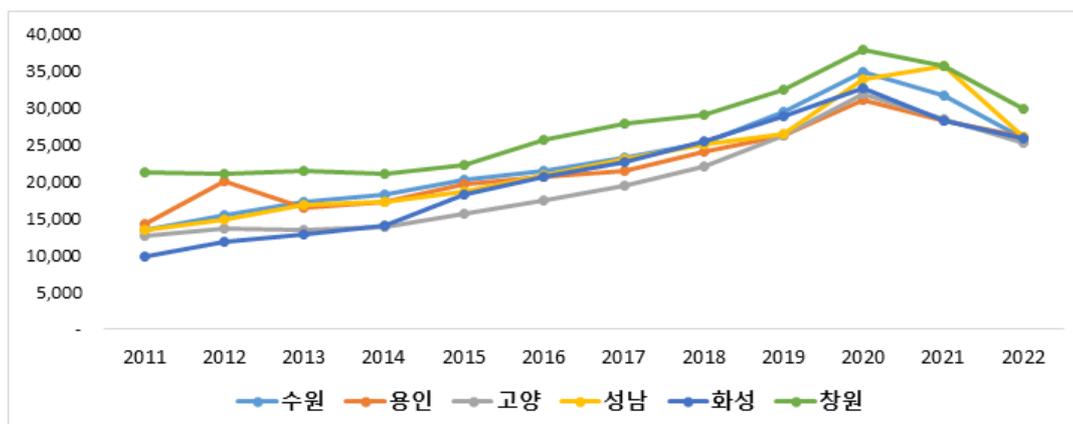
주2: 연평균 증감률은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10년간)로 하며,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동일

2) 일반회계 규모

- 수원시 일반회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9.01%가 증가하였고, 유사자치단체 평균 일반회계는 8.12%가 증가되는 등 수원시와 비교해 증가량이 근소하게 낮음
 - 일반회계의 증감 추세는 재정총량의 증감 추세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화성시 11.11%, 성남시 10.20%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수원시 일반회계 규모가 유사자치단체 대비 컸던 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임

〈그림 2-2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일반회계 추세

(단위: 억원)



〈표 2-1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일반회계 추세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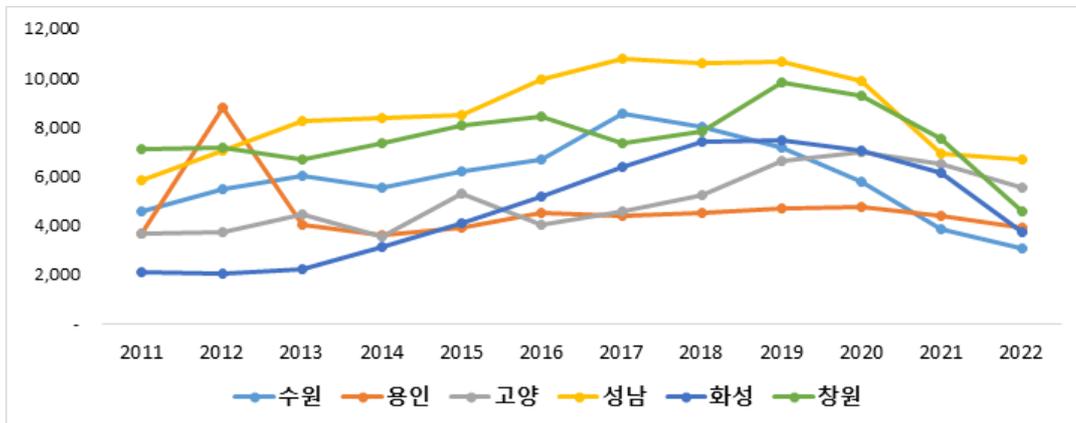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13,347	14,282	12,675	13,468	9,847	21,266	14,308	-961
2012	15,366	19,975	13,592	14,744	11,727	20,976	16,203	-837
2013	17,180	16,426	13,418	16,873	12,913	21,435	16,213	967
2014	18,176	17,242	13,868	17,126	13,955	21,029	16,644	1,532
2015	20,170	19,629	15,600	18,635	18,128	22,169	18,832	1,338
2016	21,429	20,636	17,417	20,792	20,712	25,714	21,054	375
2017	23,304	21,339	19,456	23,080	22,552	27,748	22,835	469
2018	25,300	23,992	22,026	24,943	25,412	29,007	25,076	224
2019	29,498	26,172	26,189	26,335	28,718	32,412	27,965	1,533
2020	34,753	30,961	31,749	33,816	32,530	37,752	33,362	1,391
2021	31,633	28,126	28,501	35,570	28,240	35,702	31,228	405
2022	25,718	25,976	25,157	25,940	25,750	29,717	26,508	-790
연평균 증감률	9.01	7.01	8.44	10.20	11.11	5.32	8.12	-0.89

3) 특별회계 규모

- 수원시 특별회계는 최근 10년간 1.78%가 감소하였음. 반면, 유사자치단체 평균은 3.48%가 증가되는 등 수원시 대비 1.69%p가 큰 수준임.
- 특별회계의 증가추세는 매년 큰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치단체별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회계의 통합 및 폐지 그리고 신설 등의 결과임
- 특별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이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 11.36%, 고양시 5.77% 순임

〈그림 2-2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특별회계 추세

(단위: 억원)



〈표 2-1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특별회계 추세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4,601	3,678	3,697	5,824	2,094	7,097	4,478	123
2012	5,483	8,766	3,753	7,043	2,049	7,153	5,753	-270
2013	5,992	4,046	4,448	8,278	2,239	6,691	5,140	852
2014	5,542	3,597	3,577	8,362	3,139	7,358	5,207	335
2015	6,201	3,907	5,328	8,501	4,080	8,043	5,972	229
2016	6,669	4,527	4,024	9,936	5,172	8,426	6,417	252
2017	8,534	4,385	4,565	10,761	6,404	7,357	6,694	1,840
2018	7,990	4,536	5,230	10,609	7,389	7,821	7,117	873
2019	7,194	4,686	6,608	10,636	7,443	9,811	7,837	-643
2020	5,792	4,736	6,971	9,885	7,056	9,299	7,589	-1,797
2021	3,843	4,417	6,480	6,943	6,144	7,524	6,302	-2,459
2022	3,057	3,895	5,566	6,700	3,731	4,559	4,890	-1,833
연평균 증감률	-1.78	1.85	5.77	1.77	11.36	0.59	3.48	1.69

2. 수원시 세입 현황

1) 세입 구조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자주재원은 1조 3,321억원으로 총 재원의 51.80%이며, 유사자치단체 평균 자주재원은 1조 3,215억원으로 49.85% 수준임
 - 수원시의 자주재원은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106억원, 1.95%p가 큰 규모임

- 수원시 지방세는 9,662억으로 총 재원의 37.5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702억으로 6.62%를 차지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57억으로 7.61%를 차지함
 - 유사자치단체 평균 지방세는 1조 481억으로 총 재원의 39.54%를 차지하여 수원시 지방세 대비 819억원 1.97%p가 큰 수준임. 세외수입은 1,865억으로 7.04%를 차지하며, 수원시 세외수입 대비 163억원 0.42%p가 큰 규모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47억으로 3.19%를 차지하며, 수원시 대비 847억원, 4.42%p가 작은 수준임.
 - 총 재정에서 지방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52.02%이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도 화성시로 10.20% 수준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수원시로 7.61% 수준임.

- 자주재원의 총량은 수원시가 우월한 것으로 보이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 판단됨
 - 수원시의 자주재원 규모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인한 것인데, 이는 전년도 재원의 다음연도 이월, 재정압박 해소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에 따른 것으로 일반 세목에 따른 자체세입과는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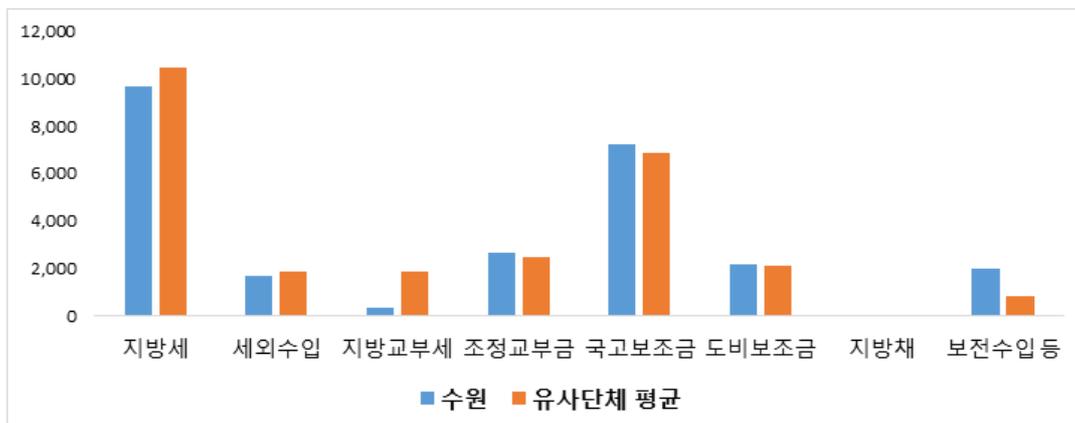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이전재원은 12,397억으로 총 재정의 48.20%를 차지하며, 유사자치단체 평균 이전재원은 13,294억으로 50.15% 수준임
 - 수원시의 이전재원 규모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897억원, 1.95%p가 작은 규모임

- 수원시 지방교부세는 318억으로 총 재원의 1.24%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은 2,650억으로 10.30%를 차지함. 국고보조금은 7,237억으로 28.14%를 차지하고, 도비보조금은 2,192억으로 8.52%를 차지함.

- 유사자치단체 평균 지방교부세는 1,874억원으로 총 재원의 7.07%를 차지하여 수원시 대비 1,556억원 5.83%p가 큰 수준임. 조정교부금은 2,446억원으로 9.23%를 차지하며, 수원시 대비 204억원 1.08%p가 작은 규모임. 국고보조금은 6,882억원으로 25.96%를 차지하며 수원시 대비 355억원 2.18%p가 작은 수준임. 도비보조금은 2,092억원으로 7.89%를 차지하며 수원시 대비 100억원 0.63%p가 작은 규모임.
- 총 재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19.20% 수준이고,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10.86% 수준임.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28.94%이고,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8.83% 수준임.
- 수원시는 자주재원 대비 이전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자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전재원 중 꼬리표가 붙지 않은 지방교부세²⁾와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낮음
 - 수원시 무조건부 교부금이 이전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4%인 반면 유사자치단체 평균은 32.50%로 8.55%p 가량 유사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음
 - 이전재원 중 재정 자율성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40.36%가 무조건부 교부금이고, 가장 낮은 단체는 성남시로 무조건부 교부금의 비중이 22.07%밖에 되지 않음

〈그림 2-2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세입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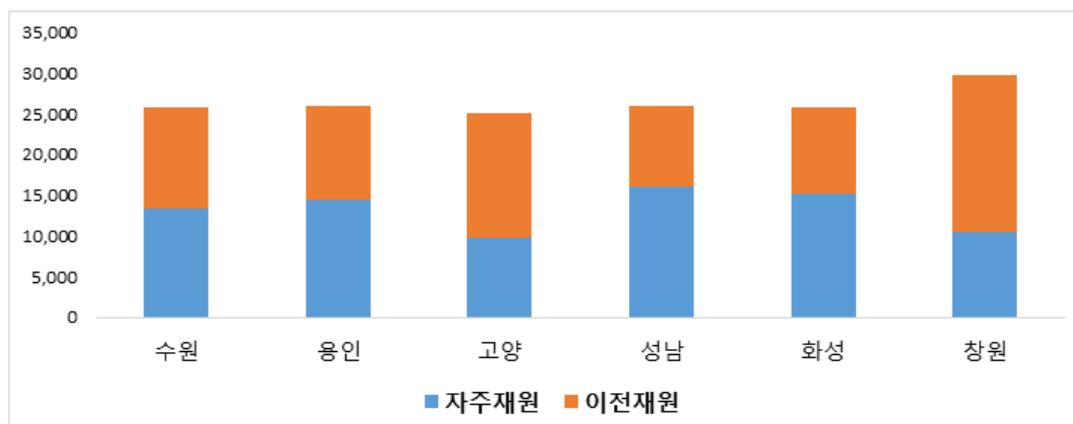
(단위: 억원)



2)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재원은 상급 기관의 재원으로 하되 기초단체로 이전된 이후에는 사용에 제약이 없는 재원으로 무조건부 교부금(nonearmarked grants)임. 무조건부 교부금은 세입-세출의 책임성 괴리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는 하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함.

〈그림 2-2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주재원 및 이전재원 비중 비교

(단위: 억원)



〈표 2-1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주재원 및 이전재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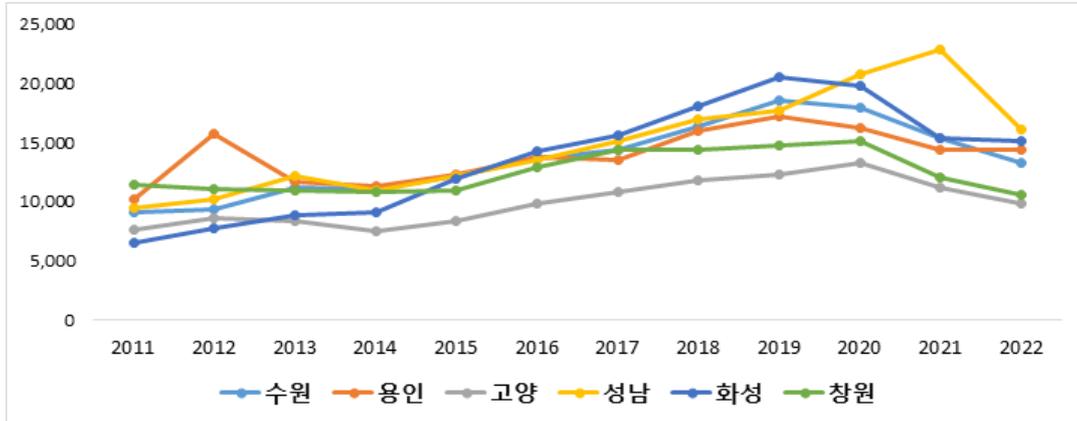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자 주 재 원	지방세	9,662	10,353	6,649	13,495	13,728	8,179	10,481	-819
	세외수입	1,702	2,286	1,604	2,645	1,368	1,424	1,865	-163
	지방채	0	0	0	0	0	110	22	-22
	보전수입 등	1,957	1,801	1,604	0	0	828	847	1,110
	소계	13,321	14,440	9,857	16,140	15,096	10,541	13,215	106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318	292	2,847	284	242	5,707	1,874	-1,556
	조정교부금	2,650	2,820	3,039	1,879	2,458	2,032	2,446	204
	국고보조금	7,237	6,133	7,280	6,008	6,096	8,895	6,882	355
	도비보조금	2,192	2,293	2,135	1,630	1,858	2,542	2,092	100
	소계	12,397	11,538	15,301	9,801	10,654	19,176	13,294	-897
무조건부 교부금		2,968	3,112	5,886	2,163	2,700	7,739	4,320	134
무조건부 교부금 비중		23.94	26.97	38.47	22.07	25.34	40.36	32.50	-8.55
합계		25,718	25,978	25,158	25,941	25,750	29,717	26,509	-791

- 최근 10년간 수원시 자주재원 증감률은 연평균 5.32% 수준이며, 유사자치단체 평균 증감률 5.27% 대비 0.05%p가 낮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자주재원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연평균 9.19%가 증가되었음. 반면 창원시는 연평균 0.52%가 증가하는 데 그침.

- 수원시의 자주재원 총액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9년에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2,059억원이 큰 수준임.
- 전반적으로 자주재원은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거나 2019년 이후 수원시 뿐만 아니라 유사자치단체 대부분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주재원 추세



〈표 2-1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주재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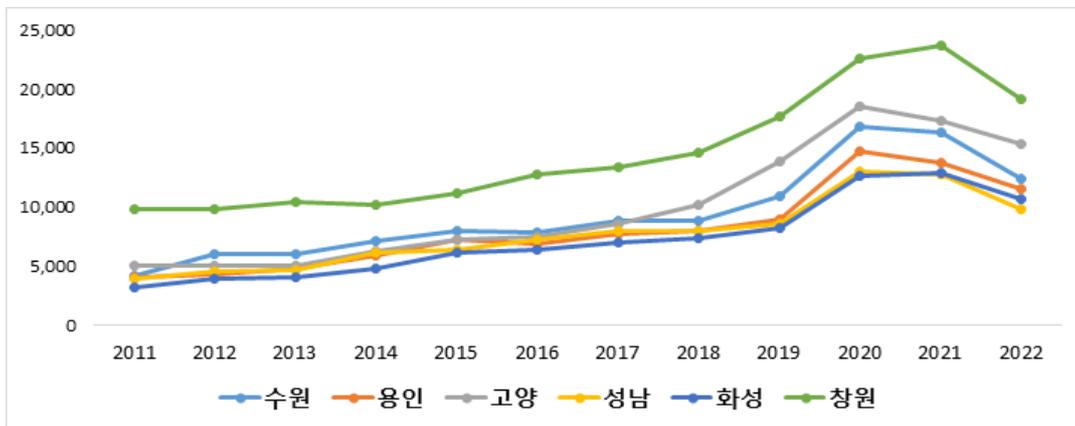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9,147	10,188	7,620	9,467	6,570	11,457	9,060	87
2012	9,304	15,699	8,562	10,185	7,804	11,091	10,668	-1,364
2013	11,151	11,653	8,364	12,159	8,856	10,942	10,395	756
2014	11,096	11,282	7,557	10,957	9,126	10,796	9,944	1,152
2015	12,148	12,335	8,394	12,211	11,926	10,940	11,161	987
2016	13,589	13,713	9,858	13,476	14,281	12,948	12,855	734
2017	14,400	13,554	10,887	15,074	15,586	14,412	13,903	497
2018	16,389	16,005	11,771	16,920	18,050	14,386	15,426	963
2019	18,587	17,253	12,338	17,743	20,531	14,776	16,528	2,059
2020	17,978	16,236	13,276	20,772	19,821	15,176	17,056	922
2021	15,362	14,358	11,161	22,808	15,336	12,061	15,145	217
2022	13,320	14,440	9,857	16,140	15,096	10,540	13,215	105
연평균 증감률	5.32	3.49	3.89	9.19	8.85	0.52	5.27	0.05

- 최근 10년간 수원시 이전재원 증감률은 연평균 14.50% 수준이며, 유사자치단체 평균 증감률 11.85% 대비 2.65%p가 낮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이전재원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연평균 14.69%가 증가되었음. 반면 창원시는 연평균 9.19%가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낮음.
- 전반적으로 이전재원은 자주재원과 비교해 급진적 우상향 추세를 보이거나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됨. 이는 국가 및 도의 세입 증가율 둔화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재원의 감소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부 교부금의 감소 발생시 지방재정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

〈그림 2-2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이전재원 추세



〈표 2-1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이전재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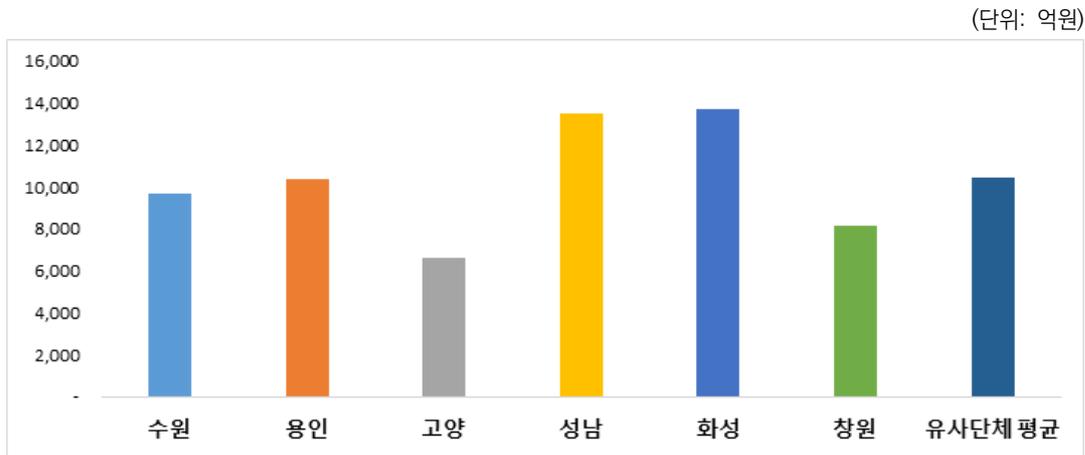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4,200	4,094	5,055	4,001	3,276	9,810	5,247	-1,047
2012	6,063	4,277	5,031	4,558	3,922	9,885	5,535	528
2013	6,029	4,772	5,055	4,714	4,057	10,493	5,818	211
2014	7,079	5,959	6,310	6,169	4,828	10,232	6,700	379
2015	8,021	7,293	7,206	6,424	6,202	11,228	7,671	350
2016	7,839	6,922	7,560	7,317	6,431	12,768	8,200	-361
2017	8,904	7,785	8,568	8,006	6,965	13,337	8,932	-28
2018	8,911	7,987	10,256	8,023	7,363	14,621	9,650	-739
2019	10,912	8,919	13,853	8,591	8,186	17,637	11,437	-525
2020	16,774	14,725	18,473	13,043	12,708	22,577	16,305	469
2021	16,271	13,767	17,339	12,762	12,903	23,642	16,083	188
2022	12,397	11,538	15,301	9,801	10,654	19,176	13,294	-897
연평균 증감률	14.50	12.89	13.12	12.30	14.69	9.19	11.85	2.65

2) 세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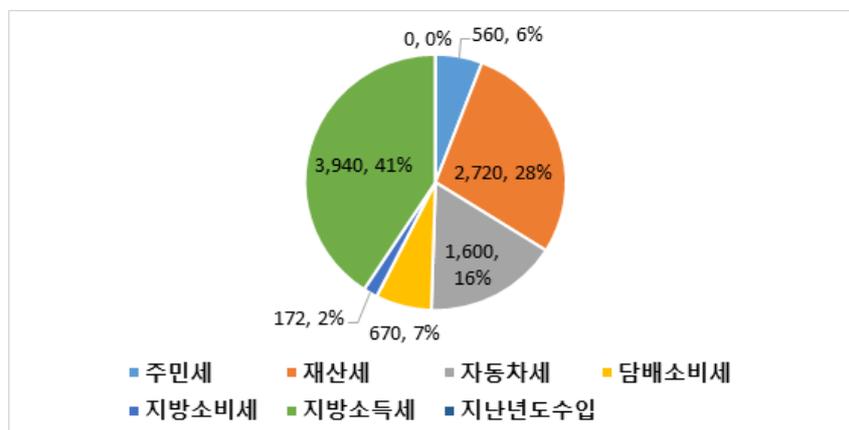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입 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1조 3,727억원 규모임. 수원시는 네 번째 규모임
 - 성남시는 1조 3,496억원 규모로 두 번째로 크며, 지방세 수입이 1조원을 넘어서는 자치단체는 용인시까지 포함하여 총 3개 자치단체임

〈그림 2-2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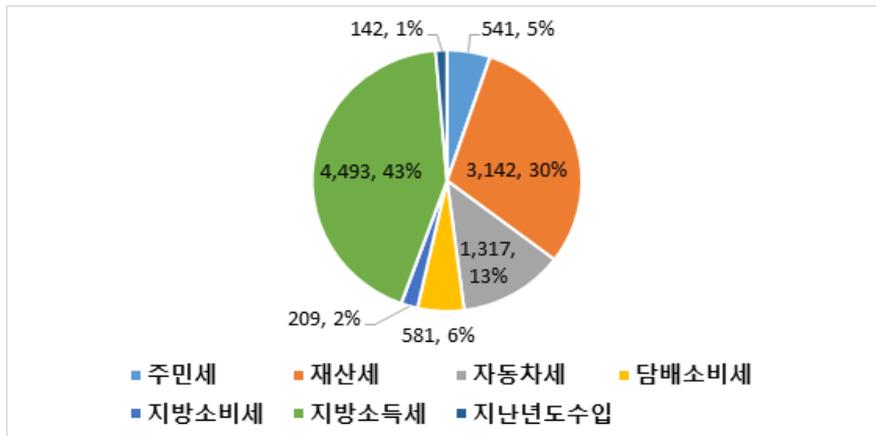
- 유사자치단체 평균 지방세입 규모는 1조 481억원 규모이며, 수원시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819억원이 작은 수준임
- 창원시는 재정규모와 달리 지방세입액은 7,899억으로 수원시보다 작음.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지역자원 시설세 280억원을 포함하여도 8,179억원 규모임.
- 수원시 지방세 세목 중 지방소득세가 3,94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41%를 차지함
 - 재산세가 2,720억원으로 28%를, 자동차세가 1,600억원으로 16%를 차지함

〈그림 2-30〉 수원시 세목별 구조



- 유사자치단체도 수원시와 유사하게 지방소득세가 평균 4,493억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43%를 차지함
 - 재산세가 3,142억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자동차세가 1,317억원으로 1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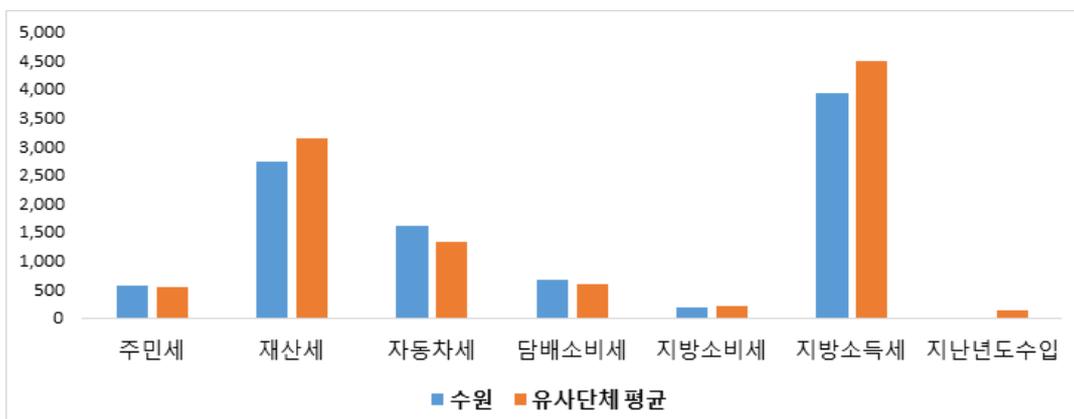
〈그림 2-31〉 유사자치단체 세목별 구조



-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간 지방세 세목별 차이를 살펴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에서는 수원시가 우위에 있는 반면,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에서는 상대적 열위에 있음
 - 주민세는 화성시, 재산세는 성남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창원시, 지방소득세는 화성시가 가장 큼

〈그림 2-3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세목별 구조 비교

(단위: 억원)



〈표 2-2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세목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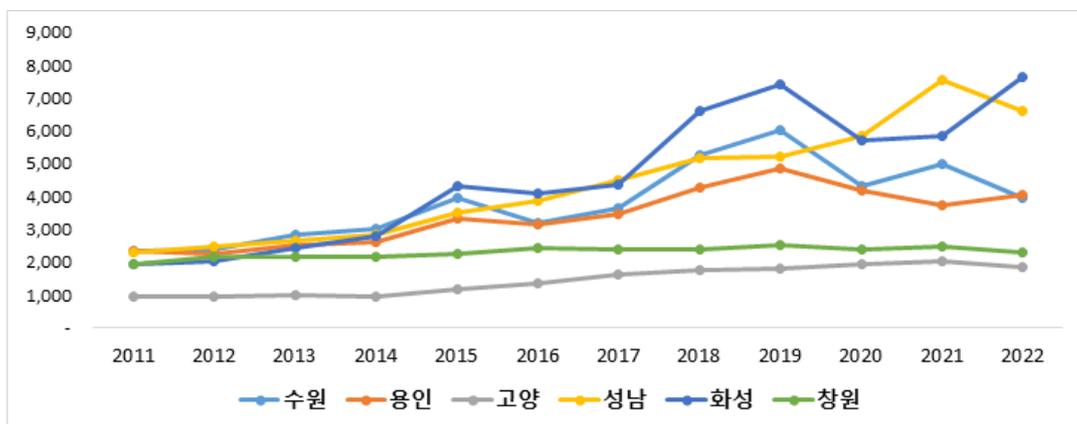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주민세	560	460	200	745	799	501	541	19
재산세	2,720	3,700	2,550	4,250	3,218	1,991	3,142	-422
자동차세	1,600	1,330	1,050	1,216	1,225	1,766	1,317	283
담배소비세	670	500	565	514	624	700	581	89
지방소비세	172	116	234	69	105	520	209	-37
지방소득세	3,940	4,050	1,850	6,602	7,642	2,321	4,493	-553
지난년도수입	0	197	200	100	114	100	142	-142
합계	9,662	10,353	6,649	13,496	13,727	8,179	10,481	-819

주: 창원시 합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280억원이 포함됨

- 지방소득세는 수원시 뿐 아니라 유사자치단체 대부분(고양시 제외)에서 기간세 역할을 하는 세목임. 최근 10년간 수원시 지방소득세는 연평균 7.77%가 증가함.
 - 유사자치단체는 평균 8.56%가 증가하였으며, 성남시가 12.52%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창원시가 2.33%로 증가 폭이 가장 작음
- 수원시의 지방소득세는 2022년을 제외하고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규모가 컸으며, 그 차이가 가장 컸던 해는 2019년으로 유사자치단체 대비 1,640억원이 컸음. 반면 2022년에는 유사자치단체 대비 553억원이 작음.
- 2021년 최종예산까지의 추세를 볼 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2019년을 기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안정성과 예측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

〈그림 2-3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소득세 추세

(단위: 억원)



〈표 2-2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소득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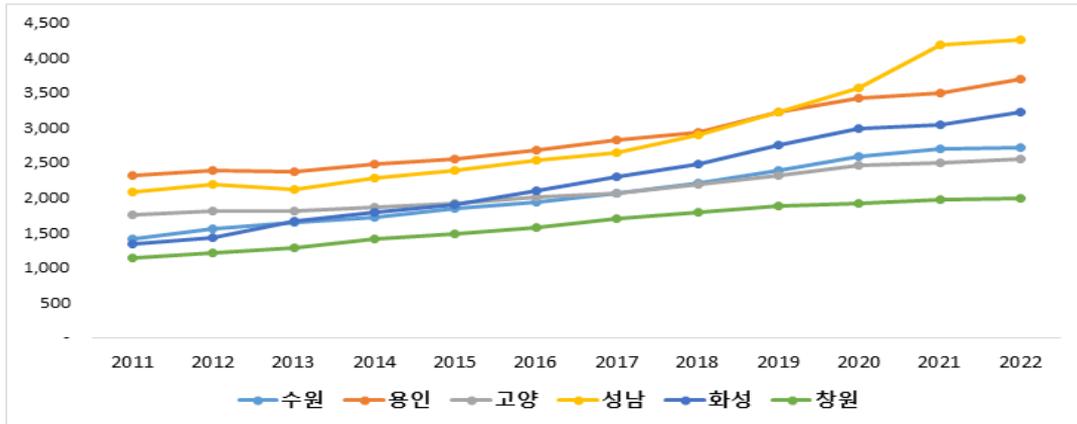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2,363	2,325	967	2,320	1,930	1,963	1,901	462
2012	2,408	2,266	976	2,496	2,022	2,177	1,987	421
2013	2,848	2,540	979	2,639	2,436	2,181	2,155	693
2014	3,025	2,617	943	2,845	2,796	2,165	2,273	752
2015	3,964	3,340	1,194	3,494	4,323	2,271	2,924	1,040
2016	3,195	3,152	1,364	3,876	4,079	2,448	2,984	211
2017	3,666	3,444	1,605	4,476	4,346	2,367	3,248	418
2018	5,238	4,268	1,775	5,183	6,582	2,381	4,038	1,200
2019	6,002	4,851	1,825	5,195	7,402	2,538	4,362	1,640
2020	4,307	4,204	1,922	5,836	5,692	2,391	4,009	298
2021	4,994	3,720	2,024	7,546	5,855	2,471	4,323	671
2022	3,940	4,050	1,850	6,602	7,642	2,321	4,493	-553
연평균 증감률	7.77	4.81	7.67	12.52	11.74	2.33	8.56	-0.79

- 최근 10년간 수원시 재산세는 6.73%가 증가함
 - 유사자치단체는 평균 5.83%가 증가하였으며, 화성시가 8.5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고양시가 3.62%로 가장 증가 폭이 작음
 -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자치단체 모두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재산세는 201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규모가 작음
- 2022년 기준 재산세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4,250억원 규모이고, 용인시와 화성시는 모두 3,000억원 이상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산세 추세

(단위: 억원)



〈표 2-2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산세 추세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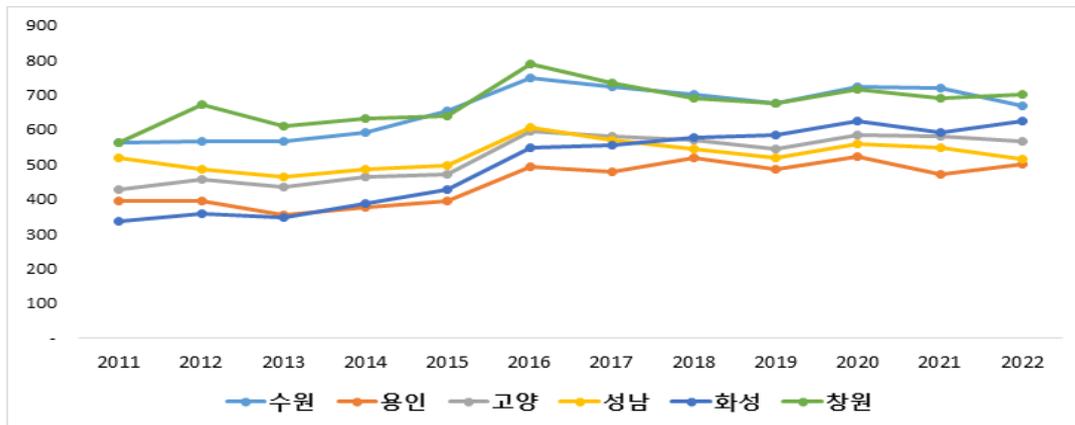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1,408	2,316	1,752	2,078	1,339	1,130	1,723	-315
2012	1,548	2,384	1,802	2,180	1,436	1,212	1,803	-255
2013	1,641	2,377	1,814	2,121	1,656	1,282	1,850	-209
2014	1,725	2,471	1,856	2,272	1,797	1,405	1,960	-235
2015	1,853	2,555	1,921	2,383	1,898	1,488	2,049	-196
2016	1,933	2,681	2,005	2,526	2,092	1,571	2,175	-242
2017	2,060	2,827	2,068	2,650	2,295	1,697	2,307	-247
2018	2,202	2,927	2,188	2,889	2,480	1,799	2,457	-255
2019	2,396	3,228	2,321	3,220	2,745	1,878	2,678	-282
2020	2,586	3,416	2,467	3,560	2,995	1,917	2,871	-285
2021	2,700	3,500	2,500	4,175	3,045	1,965	3,037	-337
2022	2,720	3,700	2,550	4,250	3,218	1,991	3,142	-422
연평균 증감률	6.73	4.22	3.62	7.23	8.56	5.69	5.83	0.90

- 최근 10년간 수원시 담배소비세는 연평균 2.49%가 증가되었음
 - 수원시의 담배소비세 규모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상대적 우위에 있음
- 유사자치단체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2.56%로 수원시 증가율 대비 근소하게 높음
 -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5.79%가 증가하였음.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0.56%가 증가하는 데 그침.

-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사자치단체들의 담배소비세 증가추세는 2016년 이후 대폭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이는 2015년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담배값 인상과 금연건물 지정 등 사회적으로 흡연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따른 결과라 판단됨

〈그림 2-3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추세

(단위: 억원)



〈표 2-2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추세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563	395	427	518	336	562	448	115
2012	566	396	457	485	358	671	473	93
2013	566	353	436	464	349	610	442	124
2014	590	376	463	485	388	632	469	121
2015	655	395	473	495	428	640	486	169
2016	747	493	596	608	548	787	606	141
2017	722	479	581	571	554	735	584	138
2018	700	517	571	544	576	689	579	121
2019	674	486	545	519	583	676	562	112
2020	722	521	585	558	624	716	601	121
2021	720	473	580	548	590	690	576	144
2022	670	500	565	514	624	700	581	89
연평균 증감률	2.49	1.82	3.11	0.56	5.79	2.07	2.56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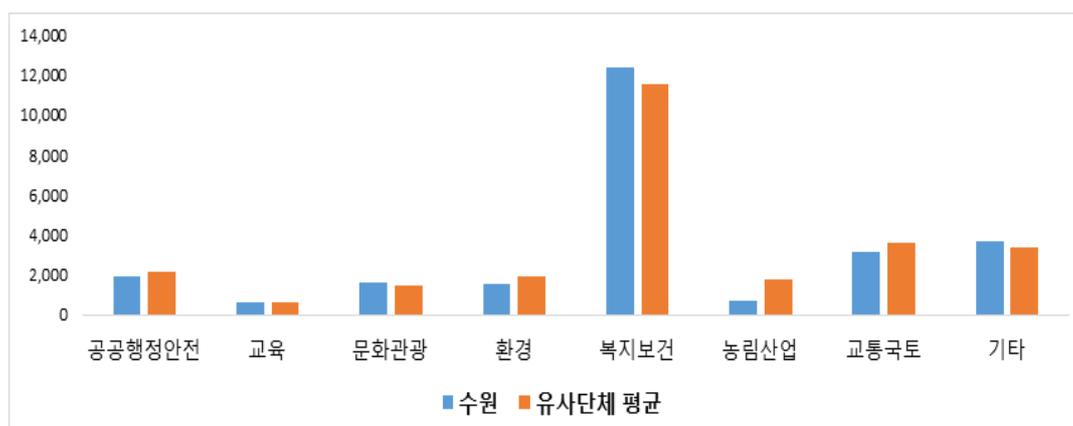
3. 수원시 세출 현황

1) 기능별 지출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가장 큰 분야는 복지 및 보건 분야로 1조 2,371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지출의 48.10%를 차지함
 - 예비비와 기타를 제외할 경우 교통 및 국토 분야에 대한 지출이 3,129억원으로 12.17%를 차지함
- 유사자치단체의 경우 수원시와 비슷하게 복지 및 보건 분야에 평균 1조 1,522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지출의 43.47%를 차지함
 -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해 수원시의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 비중이 월등하게 큰 반면, 지역산업 육성 등에 대한 분야의 지출은 2.76%밖에 되지 않아 유사자치단체 평균 지출 비중인 6.75% 대비 3.99%가 낮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로 50.02%에 달하고 있고, 가장 작은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37.87%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농림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전체 지출의 11.56%에 해당함. 반면 고양시와 성남시는 각각 3.31%와 3.74%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보다는 지출 비중이 큼.
 - 미래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및 국토 개발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19.44% 수준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고양시로 9.85% 수준이며, 수원시는 12.17% 수준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그림 2-3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기능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표 2-2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기능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공공행정안전	1,963	2,307	2,335	1,804	2,461	1,976	2,177	-214
교육	664	858	772	719	454	375	636	28
문화관광	1,652	1,006	1,177	1,676	1,634	1,915	1,482	170
환경	1,549	1,749	1,768	2,088	2,186	1,710	1,900	-351
복지보건	12,371	10,678	12,584	11,903	9,753	12,692	11,522	849
농림산업	709	1,319	832	969	2,977	2,844	1,788	-1,079
교통국토	3,129	5,049	2,479	3,486	3,647	3,377	3,608	-479
기타	3,681	3,010	3,209	3,294	2,640	4,827	3,396	285
합계	25,718	25,976	25,156	25,939	25,752	29,716	26,508	-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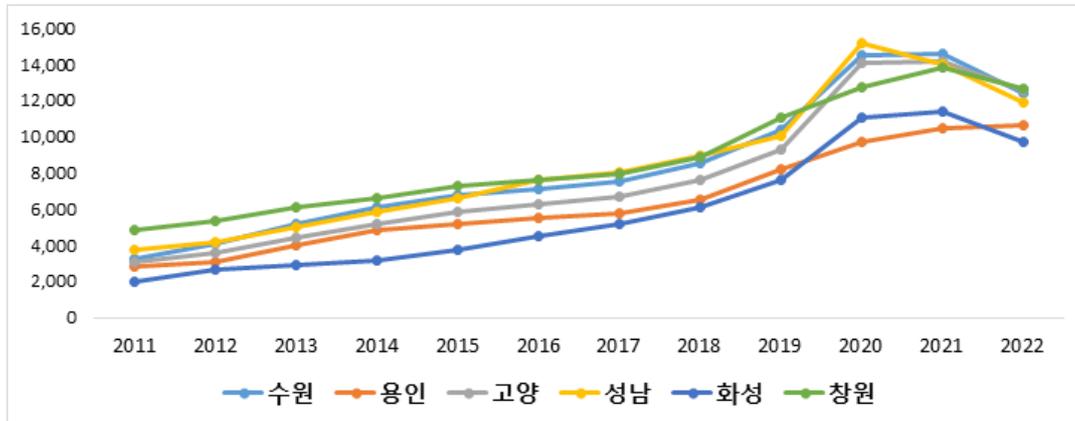
주: 지방자치단체 지출 항목은 총 14개 분야이나 정보제공의 명확화를 피하기 위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공공행정안전” 분야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복지보건” 분야로,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를 “농림산업” 분야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교통국토”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분야를 “기타” 분야로 통합하였음.

- 수원시 복지·보건 분야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30%이며, 유사자치단체 평균 증감률은 14.55%로 수원시의 복지·보건 분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시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1,941억원 만큼 더 지출하였음
 - 복지·보건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연평균 19.31%가 증가해 수원시 대비 3.01%p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성남시와 용인시는 각각 14.11%가 증가해 수원시 대비 2.1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복지 및 보건 분야의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음. 다만 2020년 들어 그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음

〈그림 2-3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복지 및 보건 분야 추세

(단위: 억원)



〈표 2-2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복지 및 보건 분야 추세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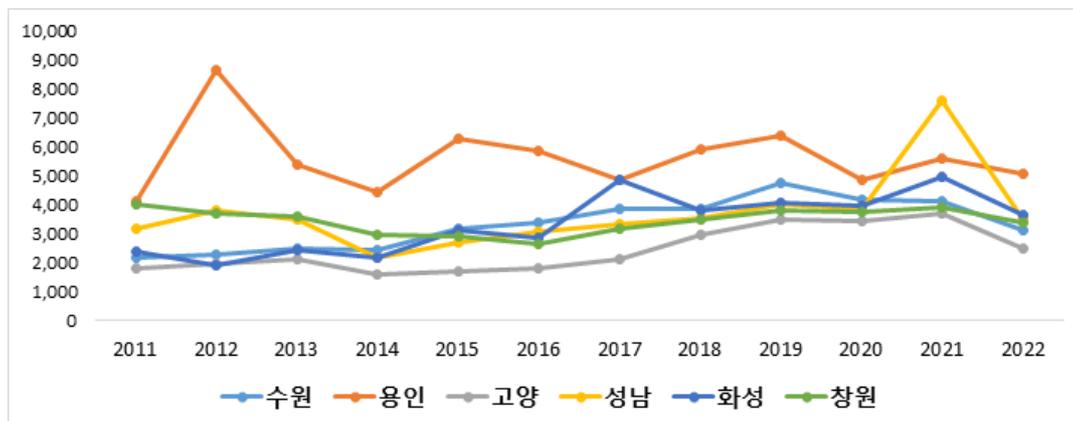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3,216	2,800	3,055	3,750	1,944	4,873	3,284	-68
2012	4,108	3,091	3,583	4,174	2,632	5,356	3,767	341
2013	5,201	3,971	4,393	5,011	2,931	6,132	4,488	713
2014	6,115	4,866	5,189	5,829	3,192	6,573	5,130	985
2015	6,746	5,156	5,833	6,582	3,742	7,248	5,712	1,034
2016	7,143	5,530	6,286	7,623	4,513	7,591	6,309	834
2017	7,490	5,796	6,693	8,002	5,157	7,985	6,727	763
2018	8,562	6,542	7,576	8,927	6,131	8,895	7,614	948
2019	10,365	8,188	9,261	10,047	7,631	11,066	9,239	1,126
2020	14,485	9,674	14,097	15,136	11,084	12,729	12,544	1,941
2021	14,564	10,483	14,192	14,035	11,364	13,796	12,774	1,790
2022	12,371	10,678	12,584	11,903	9,753	12,692	11,522	849
연평균 증감률	16.30	14.11	16.60	14.11	19.31	10.97	14.55	1.76

- 수원시 교통 및 국토 분야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59%이며, 유사자치단체 평균 증감률은 5.18%로 수원시의 자본적 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큼
 -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유사자치단체 대비 투입액이 적었으나 2016년 이후 2020년까지는 유사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하는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음

- 교통 및 국토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연평균 9.17%가 증가해 수원시 대비 2.58%p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작은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연평균 0.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교통 및 국토 분야 추세

(단위: 억원)



〈표 2-2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교통 및 국토 분야 추세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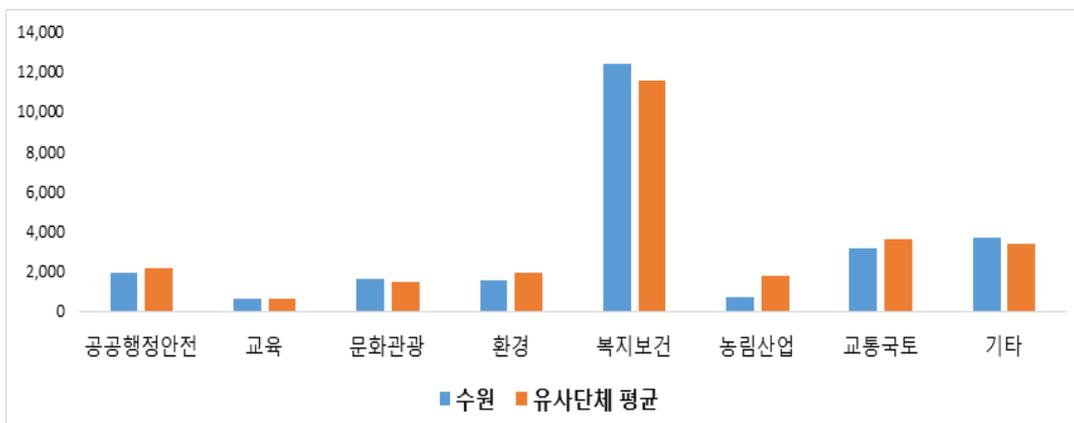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2,165	4,140	1,829	3,152	2,379	4,045	3,109	-944
2012	2,278	8,634	1,978	3,793	1,911	3,692	4,002	-1,724
2013	2,493	5,413	2,129	3,485	2,434	3,603	3,413	-920
2014	2,451	4,448	1,581	2,166	2,166	2,946	2,661	-210
2015	3,166	6,262	1,729	2,679	3,127	2,927	3,345	-179
2016	3,378	5,869	1,821	3,051	2,837	2,636	3,243	135
2017	3,838	4,885	2,103	3,324	4,838	3,171	3,664	174
2018	3,877	5,903	2,969	3,545	3,799	3,492	3,942	-65
2019	4,754	6,398	3,478	4,003	4,087	3,824	4,358	396
2020	4,163	4,855	3,432	3,850	3,969	3,746	3,970	193
2021	4,100	5,587	3,711	7,577	4,951	3,936	5,152	-1,052
2022	3,129	5,049	2,479	3,486	3,647	3,377	3,608	-479
연평균 증감률	6.59	3.04	7.33	9.17	7.60	-0.27	5.18	1.41

2) 성질별 세출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일반회계 성질별 지출 중 가장 큰 분야는 경상이전으로 총 1조 7,310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지출의 67.30%를 차지함
 - 반면 자본지출 등 투자재원은 3,174억원으로 전체의 12.34%밖에 되지 않음
- 유사자치단체도 수원시와 비슷하게 경상이전 분야에 평균 1조 6,339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지출의 61.64%를 차지함
 -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해 수원시는 경상이전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비중이 월등하게 큰 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사업에 대한 지출이자 가용재원이라 할 수 있는 자본지출은 12.34% 밖에 되지 않아 유사자치단체 평균 비중인 15.70% 대비 3.36%p가 낮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경상이전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수원시이며, 가장 작은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58.52%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자본지출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전체 재원의 20.02%가 투입되는 반면 고양시는 11.63%로 가장 작음
 - 유사자치단체 중 인건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13.15%에 해당함. 반면 화성시는 7.31%로 가장 작음.
 - 유사자치단체 중 물건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로 7.23%가 투입되는 반면 용인시는 5.24%가 투입되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전반적으로 수원시는 법적·의무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부담이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장기적으로 재정압박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성질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표 2-2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성질별 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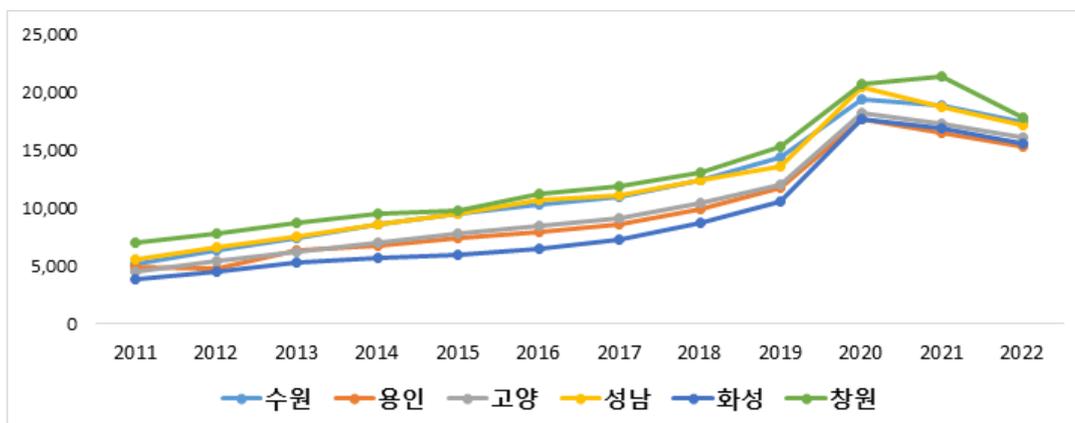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인건비	2,887	2,415	2,605	2,790	1,883	3,908	2,720	167
물건비	1,361	1,362	1,820	1,450	1,493	1,621	1,549	-188
경상이전	17,310	15,201	16,009	17,104	15,577	17,803	16,339	971
자본지출	3,174	4,929	2,926	3,473	5,154	4,328	4,162	-988
융자및출자	0	0	0	0	0	1	0	0
보전재원	381	0	0	0	0	86	17	364
내부거래	418	1,793	1,509	900	1,323	1,667	1,438	-1,020
예비비및기타	189	276	288	222	320	301	281	-92
합계	25,720	25,976	25,157	25,939	25,750	29,715	26,507	-787

- 수원시의 경상이전은 최근 10년간 13.97%가 증가되었고, 유사자치단체 평균 증감률은 13.48%로 수원시 대비 근소하게 낮은 증가 추세를 보임
 - 2011년을 제외하고는 수원시의 경상이전액이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큰 수준이며, 2019년의 경우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경상이전액이 1,786억원이나 많았음
 - 경상이전액의 증가세가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연평균 16.15%가 증가하였음. 한편 창원시의 경상이전액은 11.83%로 증가 추세가 가장 낮음.
-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자치단체 모두 경상이전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세가 가장 컸고, 2020년을 기점으로 경상이전의 증가율이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2-4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경상이전 분야 추세

(단위: 억원)



〈표 2-2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경상이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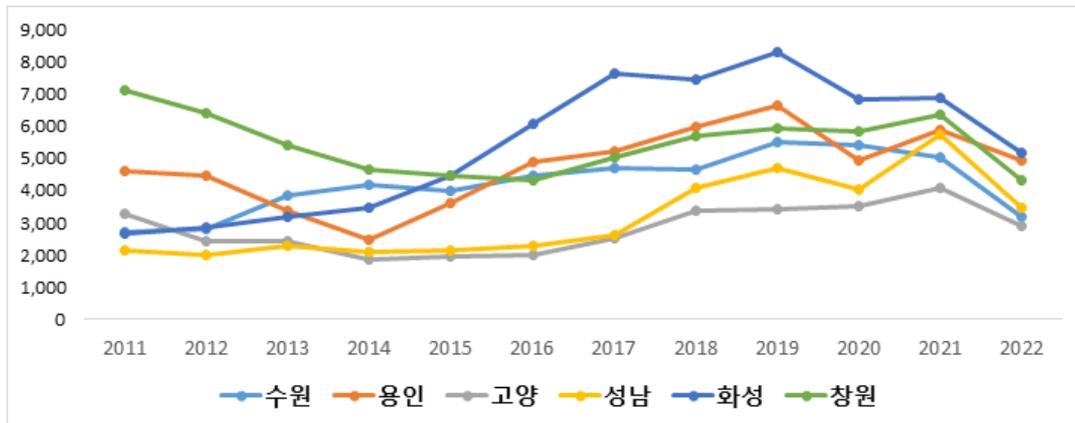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5,097	4,842	4,452	5,551	3,763	6,962	5,114	-17
2012	6,342	4,699	5,363	6,551	4,432	7,776	5,764	578
2013	7,370	6,272	6,214	7,424	5,281	8,614	6,761	609
2014	8,571	6,735	7,008	8,541	5,643	9,402	7,466	1,105
2015	9,491	7,336	7,763	9,473	5,901	9,763	8,047	1,444
2016	10,273	7,892	8,413	10,691	6,481	11,111	8,918	1,355
2017	10,911	8,564	9,100	11,032	7,276	11,800	9,554	1,357
2018	12,382	9,822	10,360	12,306	8,690	13,007	10,837	1,545
2019	14,391	11,715	11,908	13,542	10,564	15,298	12,605	1,786
2020	19,339	17,601	18,119	20,366	17,595	20,673	18,871	468
2021	18,846	16,491	17,231	18,709	16,823	21,295	18,110	736
2022	17,310	15,201	16,009	17,104	15,577	17,803	16,339	971
연평균 증감률	13.97	13.04	14.49	12.92	16.15	11.83	13.48	0.49

- 수원시의 자본지출은 최근 10년간 6.42%가 증가되었고, 유사자치단체 평균 증감률은 3.86%로 2.56%p가 낮은 수준임
 - 자본지출의 증가세가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연평균 10.39%가 증가하였음. 한편 창원시의 자본지출은 1.14%가 감소되는 등 증가추세가 가장 낮음.
- 수원시는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해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유사자치단체의 자본지출이 하락세를 보일 때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모두 2019년 이후 자본지출의 증가세도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2-4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본지출 분야 추세

(단위: 억원)



〈표 2-2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본지출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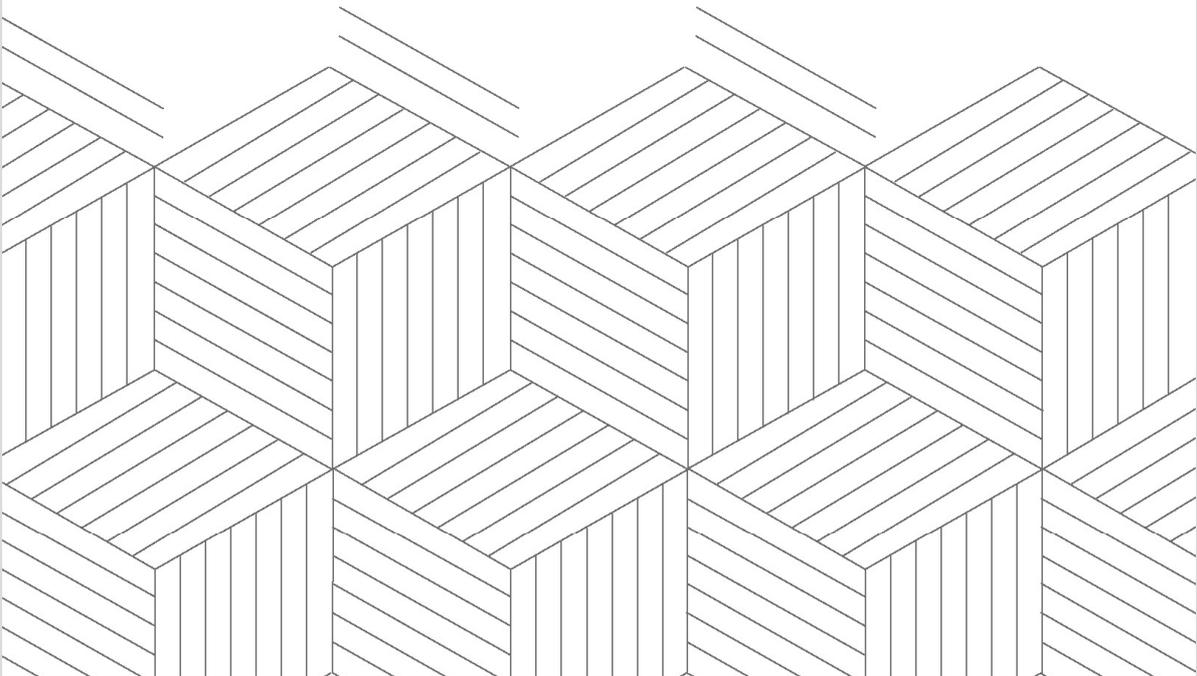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2,709	4,615	3,301	2,143	2,686	7,127	3,974	-1,265
2012	2,820	4,450	2,412	1,992	2,861	6,410	3,625	-805
2013	3,831	3,368	2,442	2,273	3,186	5,395	3,333	498
2014	4,168	2,477	1,865	2,101	3,493	4,633	2,914	1,254
2015	3,985	3,595	1,940	2,132	4,475	4,489	3,326	659
2016	4,482	4,906	2,018	2,303	6,060	4,334	3,924	558
2017	4,681	5,213	2,525	2,597	7,646	5,030	4,602	79
2018	4,655	6,004	3,378	4,086	7,454	5,712	5,327	-672
2019	5,512	6,654	3,440	4,701	8,307	5,939	5,808	-296
2020	5,403	4,921	3,507	4,035	6,854	5,850	5,033	370
2021	5,045	5,909	4,103	5,758	6,891	6,355	5,803	-758
2022	3,174	4,929	2,926	3,473	5,154	4,328	4,162	-988
연평균 증감률	6.42	2.50	2.20	10.39	9.88	-1.14	3.86	2.56

제3장

수원시 재정 분석

- 제1절 분석의 방향
- 제2절 재정여건
- 제3절 재정운용
- 제4절 재정부담



제3장 수원시 재정 분석

제1절 분석의 방향

-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 기준은 통일된 지표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대한 공개와 분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고 있음
 - “지방재정공시”에서는 예산공시와 결산공시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 실태를 국민에게 전달하며, “지방재정분석”에서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중심으로 총 23개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분석 지표는 매우 미시적 수준으로 유사·중복성이 있어 모두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의 타당성이 낮음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재정의 상태와 여건, 재정운용 상황, 미래의 부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재정의 상태와 여건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가장 간편하게 판단하며,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 함.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세출 예산액 등이 활용될 수 있음.
 - 재정의 운용상태는 해당 자치단체가 희소한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재정운용 상태의 조건은 어떠한지 또는 법적 기준 내에서 그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책사업비중, 자체사업비중,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세징수실적, 행사·축제비율 등이 활용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재정의 부담은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쉽게 그 구조와 부담 수준을 변경하기 어려운 분야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보조사업비중, 사회복지비비중, 행정운영경비비중, 예산대비채무비중, 공기업채무비중, 인건비비중 등이 활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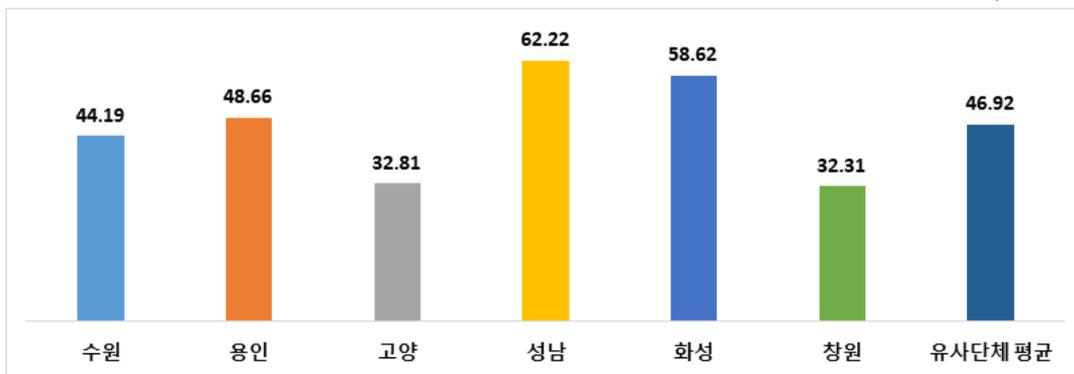
제2절 재정여건

1. 2022년 현황분석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총계예산 규모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4.19%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46.92% 대비 2.7%p가 낮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성남시가 62.22%로 가장 높고, 창원시가 32.31%로 가장 낮음. 경기도내 유사자치단체 중에서는 고양시가 32.81%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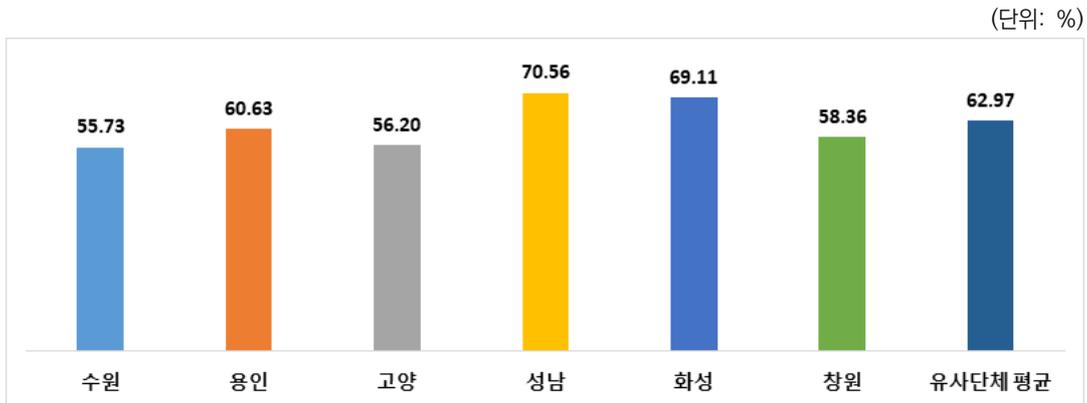
〈그림 3-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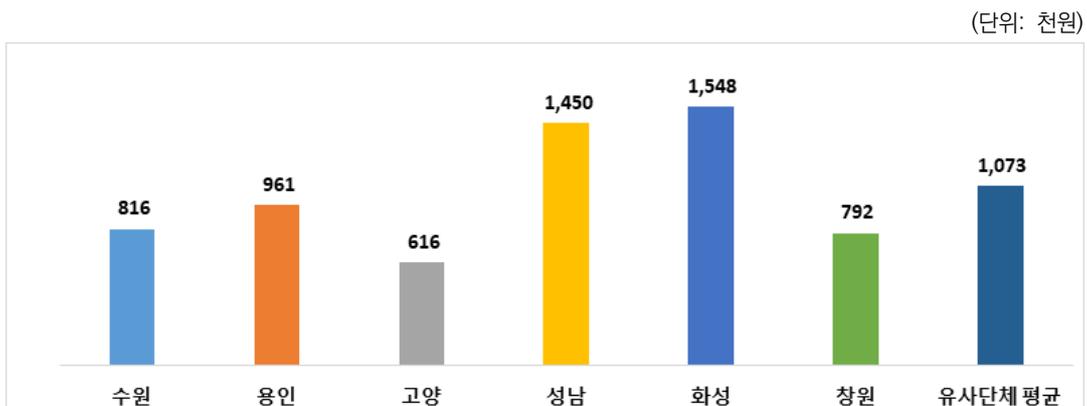
-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총계예산 규모 대비 자체세입과 무조건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여기서 자체세입은 재정자립도 산출에 활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무조건부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재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재정자주도는 55.73%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62.97% 대비 7.2%p가 낮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성남시가 70.56%로 가장 높고, 수원시가 가장 낮음. 이는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통해 보전되는 재원의 양이 적기 때문임.

〈그림 3-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현황



-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자치단체별 세입총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수로 나눈 것으로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후 논의하는 1인당 세출 예산액과 연동하여 지방세 부담과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임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민 1인이 부담하는 세입액은 816천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073천원 대비 257천원이 적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화성시가 1,548천원으로 가장 높고, 고양시가 616천원으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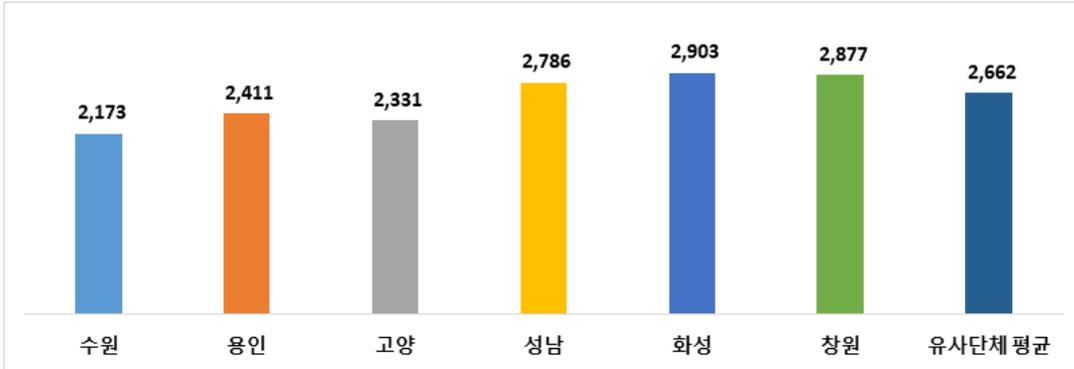
〈그림 3-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1인당 세출 예산액은 자치단체별 세입총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공공재 공급을 받는지 판단할 수 있음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민 1인에게 지원된 공공재 공급 비용은 2,173천원이며, 유사자치단체 평균 2,662천원 대비 489천원이 적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화성시가 2,903천원으로 가장 높고, 수원시가 가장 낮음

〈그림 3-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세출 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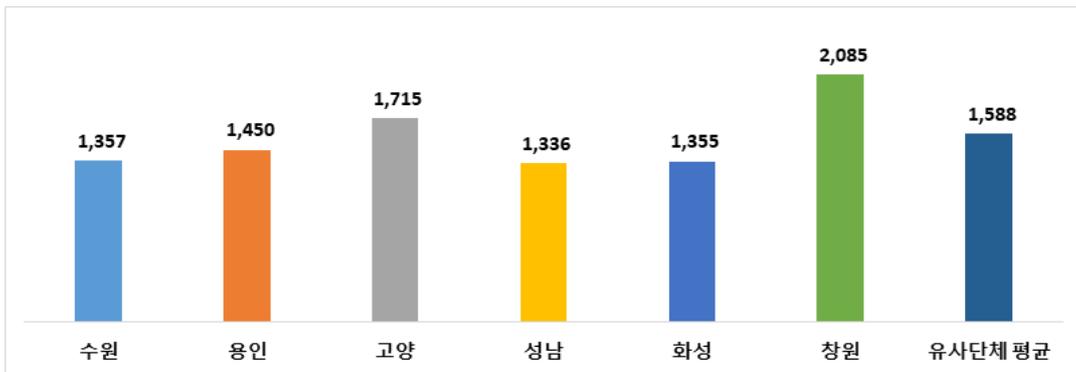
(단위: 천원)



- 1인당 지방세입과 1인당 세출을 기준으로 부담과 편익 차이를 살펴보면 수원 시민은 부담 대비 편익이 1,357천원 수준임. 반면 유사자치단체 평균 편익은 1,588수준으로 순편익이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231천원 적음.
 - 부담 대비 편익의 차이가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2,085천원 수준이며, 가장 작은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1,336천원 수준임
 - 수원시는 1인당 부담 순위가 3위인 반면 편익 수준은 4위로 한 단계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역진적인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부담과 편익 비교

(단위: 천원)



-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종합 비교하면, 수원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세출예산액, 순편익 모두에서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내 유사자치단체 5개 중 4위이고, 재정자주도는 5위 수준임

-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경기도내 유사자치단체 5개 중 4위 수준이고 1인당 세출 예산액은 5위 수준임
- 수원시는 인구 등 제반 규모 면에서의 크기가 재정과 비례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반면 이전재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수 재정수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정 여건은 부정적인 상황임

〈표 3-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여건 비교 종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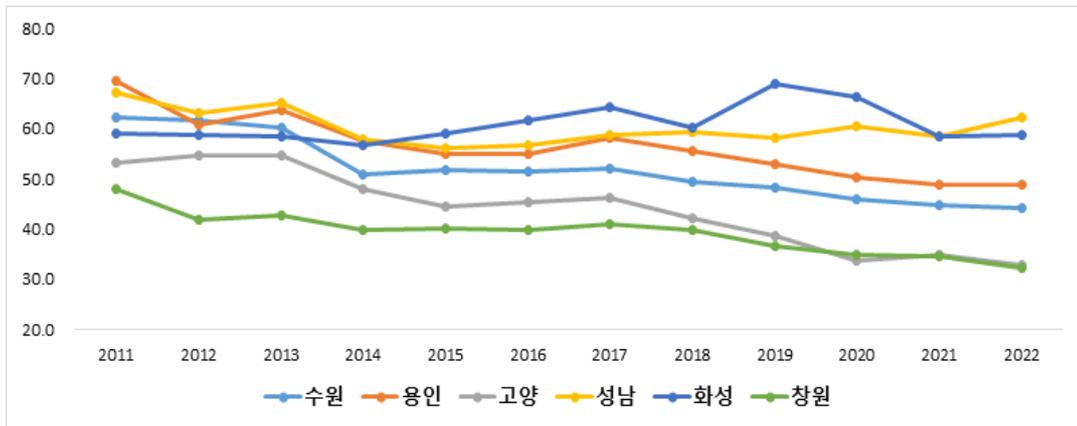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재정자립도	44.19	48.66	32.81	62.22	58.62	32.31	46.92	-2.73
재정자주도	55.73	60.63	56.20	70.56	69.11	58.36	62.97	-7.24
1인당지방세부담액(A)	816	961	616	1,450	1,548	792	1,073	-257
1인당세출예산액(B)	2,173	2,411	2,331	2,786	2,903	2,877	2,662	-489
순편익(B-A)	1,357	1,450	1,715	1,336	1,355	2,085	1,588	-231

2. 재정여건의 시계열분석

-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06%가 감소되었음. 2011년 62.2%에서 2022년 44.2%로 그 차이는 -18.0%p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도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1년 동안 연평균 2.11% 감소되었고, 2011년 59.3%에서 2022년 46.9%로 12.4%p가 감소되었음.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감소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95%p 크고, 감소된 지수도 5.6%p나 큼
 -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로 4.30%가 감소되었고, 2011년 대비 2022년 재정자립도 차이가 가장 큰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20.7%p가 하락하였음

〈그림 3-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세

(단위: %)



〈표 3-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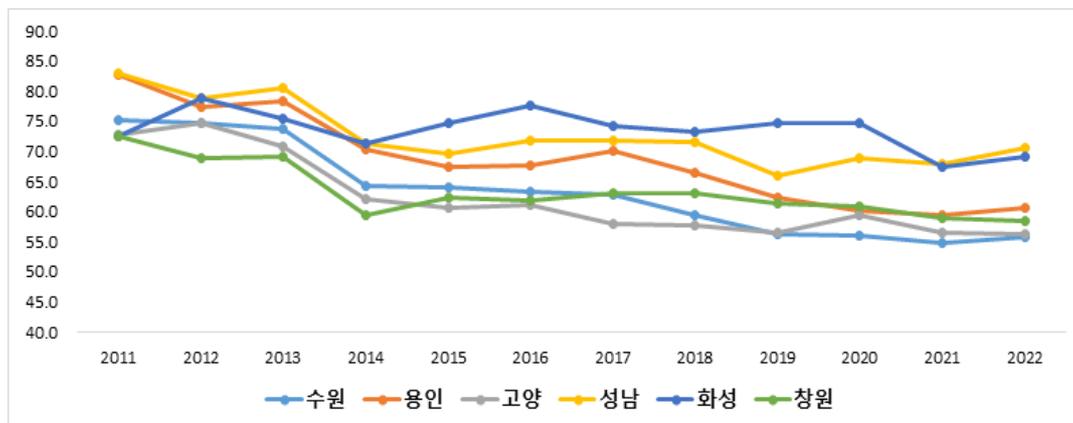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62.2	69.4	53.2	67.1	59.0	48.0	59.3	2.9
2012	61.5	60.8	54.6	63.0	58.8	41.8	55.8	5.7
2013	60.2	63.8	54.7	65.2	58.4	42.8	57.0	3.2
2014	50.8	57.5	47.8	57.8	56.8	39.8	51.9	-1.1
2015	51.8	54.8	44.5	56.2	59.1	40.0	50.9	0.9
2016	51.4	54.8	45.4	56.8	61.5	39.7	51.6	-0.2
2017	51.9	58.1	46.1	58.7	64.3	41.0	53.6	-1.7
2018	49.3	55.5	42.1	59.2	60.1	39.8	51.3	-2.0
2019	48.1	53.0	38.7	58.1	68.9	36.7	51.1	-3.0
2020	45.9	50.2	33.8	60.5	66.3	34.8	49.1	-3.2
2021	44.8	48.7	34.7	58.5	58.4	34.5	47.0	-2.2
2022	44.2	48.7	32.8	62.2	58.6	32.3	46.9	-2.7
연평균 증감률	-3.06	-3.17	-4.30	-0.69	-0.06	-3.54	-2.11	-0.95

-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68%가 감소되었음. 2011년 75.1%에서 2022년 55.7%로 그 차이는 19.4%p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도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1년 동안 연평균 1.78%가 감소되었고, 2011년 76.7%에서 2022년 63.0%로 13.8%가 감소되었음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감소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90%p 크고, 감소된 지수도 5.9%p 나 큼

-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2.79%가 감소되었고, 2011년 대비 2022년 재정자립도 차이가 가장 큰 자치단체도 용인시로 22.1%p가 하락하였음
- 11년간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컸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그림 3-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세

(단위: %)



〈표 3-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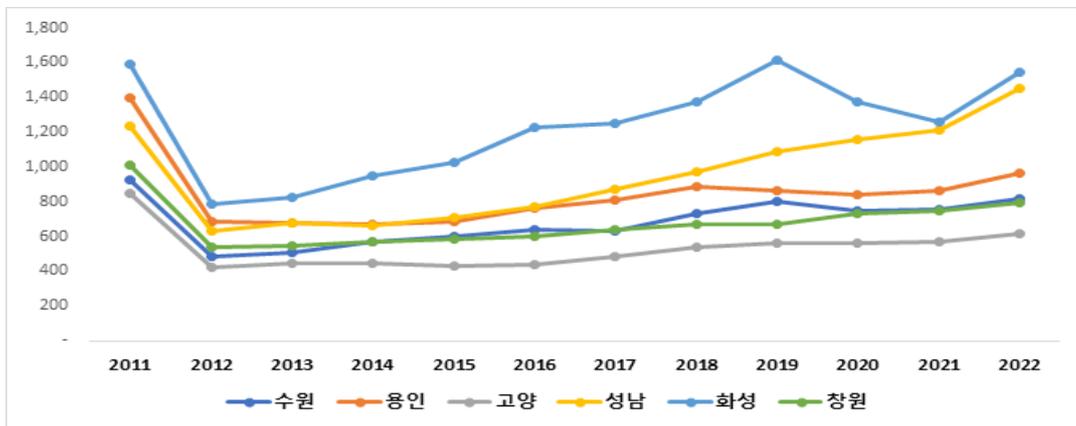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75.1	82.7	72.8	83.0	72.6	72.6	76.7	-1.6
2012	74.7	77.3	74.6	78.7	78.8	68.8	75.6	-0.9
2013	73.6	78.3	70.8	80.6	75.5	69.0	74.8	-1.2
2014	64.2	70.2	62.1	71.2	71.4	59.3	66.8	-2.6
2015	63.9	67.3	60.5	69.7	74.7	62.3	66.9	-3.0
2016	63.4	67.7	61.2	71.7	77.6	61.9	68.0	-4.6
2017	62.8	70.1	58.0	71.8	74.3	63.0	67.4	-4.6
2018	59.5	66.4	57.6	71.6	73.3	63.1	66.4	-6.9
2019	56.2	62.3	56.4	66.0	74.7	61.3	64.1	-7.9
2020	56.1	60.2	59.3	68.9	74.8	60.8	64.8	-8.7
2021	54.9	59.4	56.5	67.9	67.4	58.8	62.0	-7.1
2022	55.7	60.6	56.2	70.6	69.1	58.4	63.0	-7.3
연평균 증감률	-2.68	-2.79	-2.33	-1.46	-0.45	-1.96	-1.78	-0.90

- 수원시 1인당 세입액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15%가 감소되었음. 2011년 927천원에서 2022년 816천원으로 111만큼 감소되었음.

- 성남시를 제외한 유사자치단체도 모두 감소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1.13%가 감소되었고, 2011년 1,217천원 에서 2022년 1,073천원으로 144천원이 감소됨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감소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02%p 크고, 감소된 금액은 33천원임
- 성남시는 연평균 1.48%가 증가되었고, 11년 동안 216천원이 증가됨. 반면 용인시는 3.34%가 감소되었고, 감소된 금액은 436천원으로 감소율이 가장 큼.
- 11년간 수원시 1인당 세입이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컸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그림 3-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세입액 추세

(단위: 천원)



〈표 3-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1인당 세입액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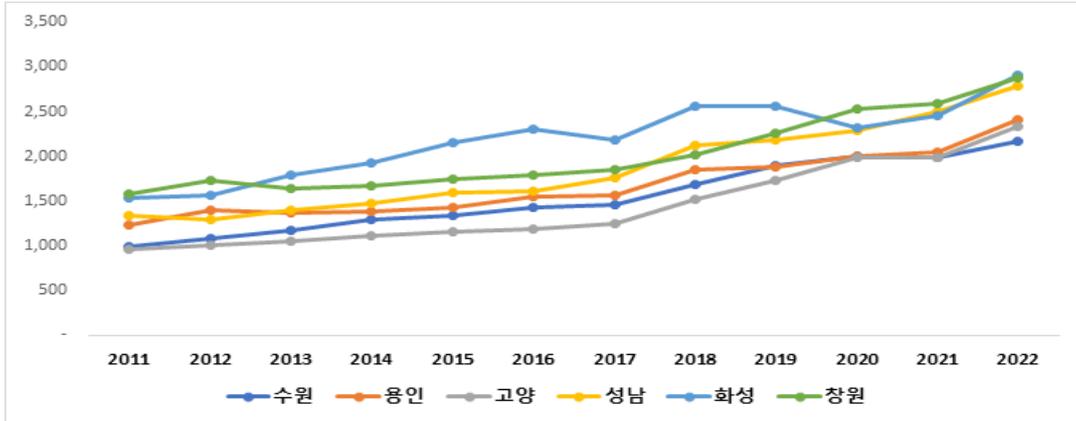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927	1,397	846	1,234	1,594	1,013	1,217	-289.8
2012	488	685	425	633	783	536	612	-124.4
2013	507	680	446	675	824	544	634	-126.8
2014	573	667	446	663	952	566	659	-85.8
2015	602	684	430	709	1,028	585	687	-85.2
2016	643	760	438	774	1,226	602	760	-117.0
2017	629	812	481	868	1,253	636	810	-181.0
2018	731	886	539	971	1,376	668	888	-157.0
2019	801	867	560	1,091	1,611	670	960	-158.8
2020	746	838	565	1,160	1,375	730	934	-187.6
2021	755	866	568	1,215	1,257	750	931	-176.2
2022	816	961	616	1,450	1,548	792	1,073	-257.4
연평균 증감률	-1.15	-3.34	-2.84	1.48	-0.27	-2.21	-1.13	-0.02

- 수원시 1인당 세출액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36%가 증가되었음. 2011년 995천원에서 2022년 2,173천원으로 1,178천원만큼 증가되었음.
 - 유사자치단체도 모두 증가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6.53%가 증가되었음. 2011년 1,327천원에서 2022년 2,662천원으로 1,335천원이 증가됨.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83%p 크나 증가된 금액은 156만큼 작음
 -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로 8.38%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1,452천원이 증가되었음
- 11년간 수원시 1인당 세출이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컸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그림 3-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세출 추세

(단위: 천원)



〈표 3-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1인당 세출액 추세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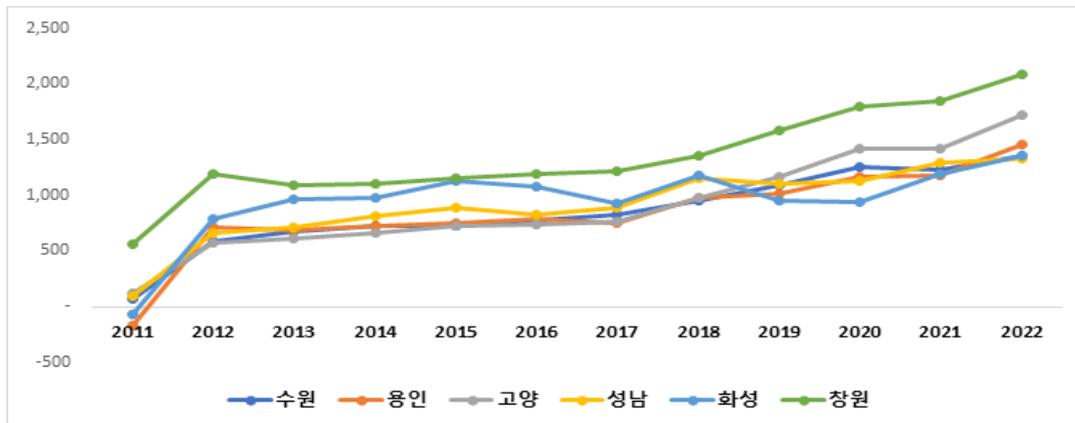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995	1,234	962	1,334	1,529	1,576	1,327	-332
2012	1,076	1,403	1,000	1,297	1,569	1,729	1,400	-324
2013	1,179	1,372	1,058	1,394	1,795	1,635	1,451	-272
2014	1,299	1,388	1,111	1,479	1,930	1,670	1,516	-217
2015	1,334	1,430	1,157	1,593	2,154	1,743	1,615	-281
2016	1,423	1,548	1,181	1,603	2,305	1,788	1,685	-262
2017	1,452	1,564	1,250	1,754	2,178	1,849	1,719	-267
2018	1,684	1,858	1,514	2,122	2,560	2,024	2,016	-332
2019	1,898	1,883	1,728	2,189	2,558	2,251	2,122	-224
2020	1,997	2,003	1,985	2,293	2,318	2,529	2,226	-229
2021	1,986	2,051	1,991	2,501	2,454	2,591	2,318	-332
2022	2,173	2,411	2,331	2,786	2,903	2,877	2,662	-489
연평균 증감률	7.36	6.28	8.38	6.92	6.00	5.62	6.53	3.58

- 수원시 1인당 세입 대비 1인당 세출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1.23%가 증가되었음. 2011년 68천원에서 2022년 1,357천원으로 1,289천원이 증가되었음.
 - 용인시과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27.45%가 증가되었음. 2011년 110천원에서 2022년 1,588천원으로 1,478천원이 증가됨.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3.83%p 크나 증가된 금액은 189만큼 작음

-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수원시이며, 증가액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로 1,599천원이 증가되었음
- 11년간 수원시의 순편익이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컸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그림 3-1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1인당 세입 대비 1인당 세출액 추세

(단위: 천원)



〈표 3-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1인당 세입 대비 1인당 세출액 추세

(단위: 천원,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68	-163	116	100	-65	563	110	-42.2
2012	588	718	575	664	786	1,193	787	-199.2
2013	672	692	612	719	971	1,091	817	-145.0
2014	726	721	665	816	978	1,104	857	-130.8
2015	732	746	727	884	1,126	1,158	928	-196.2
2016	780	788	743	829	1,079	1,186	925	-145.0
2017	823	752	769	886	925	1,213	909	-86.0
2018	953	972	975	1,151	1,184	1,356	1,128	-174.6
2019	1,097	1,016	1,168	1,098	947	1,581	1,162	-65.0
2020	1,251	1,165	1,420	1,133	943	1,799	1,292	-41.0
2021	1,231	1,185	1,423	1,286	1,197	1,841	1,386	-155.4
2022	1,357	1,450	1,715	1,336	1,355	2,085	1,588	-231.2
연평균 증감률	31.28	-221.98	27.75	26.57	-231.80	12.64	27.45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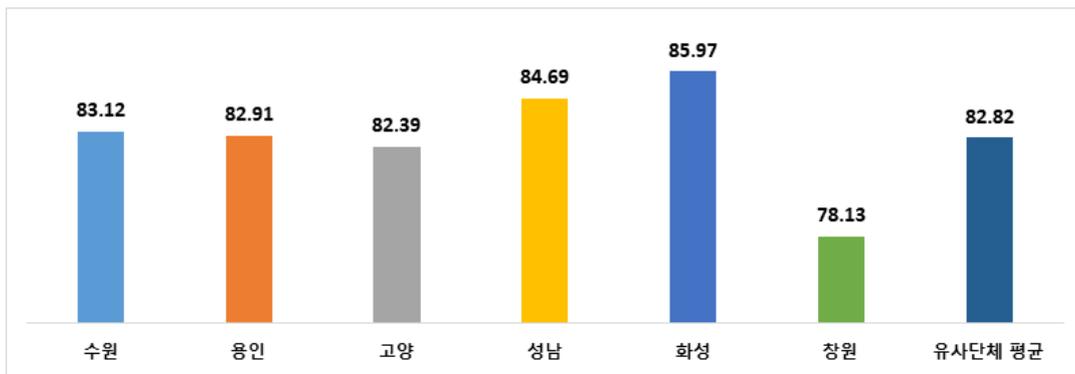
제3절 재정운용

1. 2022년 현황분석³⁾

- 정책사업 비중은 자치단체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하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중으로 시민 대응 공공재 공급의 민감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으로 높을수록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2022년 기준 수원시의 정책사업비중을 83.12%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82.82%보다 0.3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 대비는 각각 0.21%p와 0.73%p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인근 지역인 성남시보다는 1.57%p가 낮고, 화성시보다는 2.85%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사자치단체 중 정책사업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정책사업비중이 78.1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정책사업비중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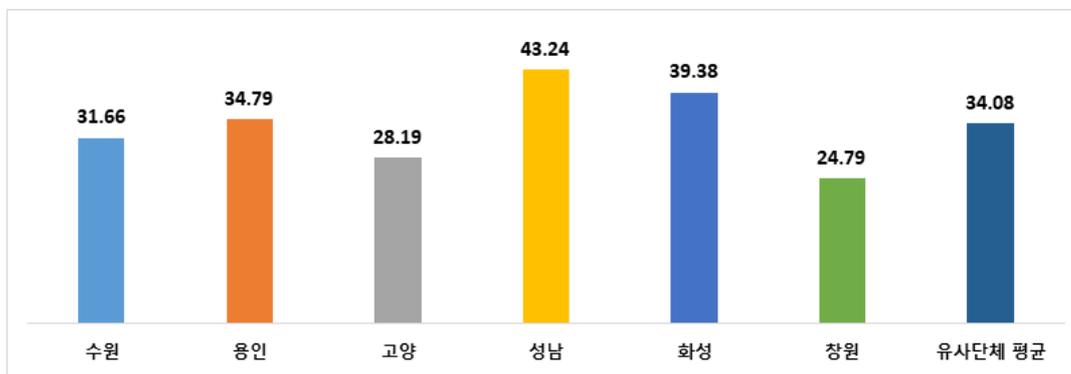
- 자체사업비중은 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으로,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 그리고 보다 넓게는 자치재정권이 크다고 판단함
- 2022년 기준 수원시 자체사업비중은 31.66%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34.08% 대비 2.42%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재정운용 실태 비교 분석을 위한 지표 중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세징수실적, 행사축제비율은 지방재정 365에 2020년 실적까지만 등재되어 있어 현황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20년까지의 자료임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보다는 3.13%p가 낮고, 고양시보다는 3.47%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근 자치단체인 성남시보다는 11.58%p가 낮고, 화성시보다는 7.72%p가 낮은 수준임.
 - 이는 수원시 지방세입의 증가율 둔화와 이에 따른 재정 총량의 감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임
 - 유사자치단체 중 자체사업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자체사업비중이 24.79%수준임

〈그림 3-1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체사업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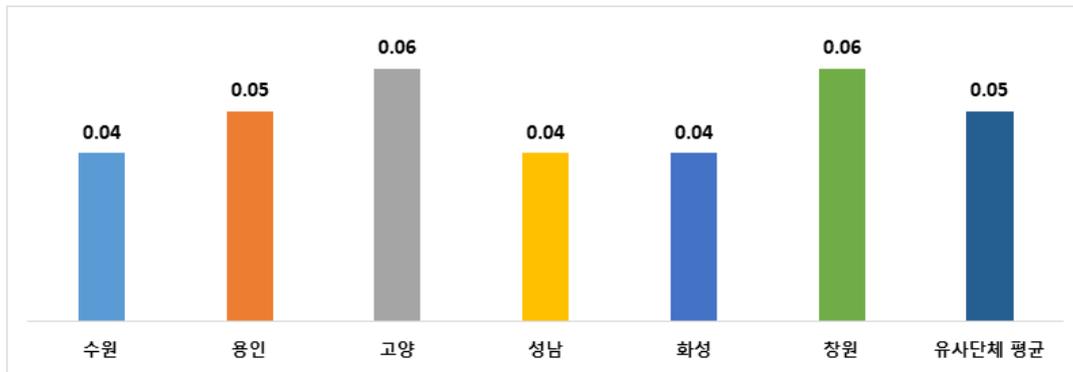
(단위: %)



- 업무추진비비율은 자치단체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파악하는 지표로 과도하게 높을 경우 재정의 비효율이 있다고 판단함
- 2020년 기준 수원시 업무추진비비율은 0.04%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0.05% 대비 0.01%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효율을 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보다는 0.01%p가 낮고, 고양시보다는 0.02%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인근 자치단체인 성남시와 화성시와는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업무추진비비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와 창원시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수원, 성남시, 화성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업무추진비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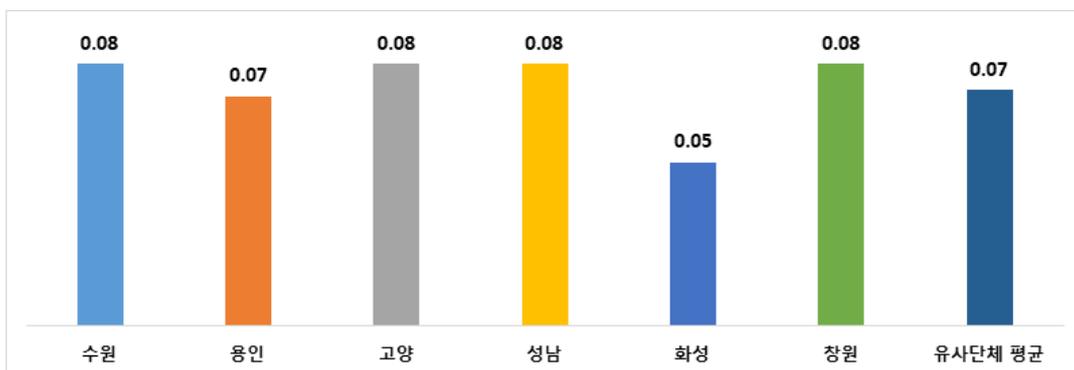
(단위: %)



- 지방의회경비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액 중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재정의 경상적 지출 부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높을수록 재정탄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함
- 2020년 기준 수원시 지방의회경비비율은 0.08%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0.07% 대비 0.01%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중 용인시보다는 0.01%p가 높고, 고양시와는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인근 자치단체인 성남시와는 동일한 수준, 화성시보다는 0.03%p가 높음.
- 지방의회경비비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창원시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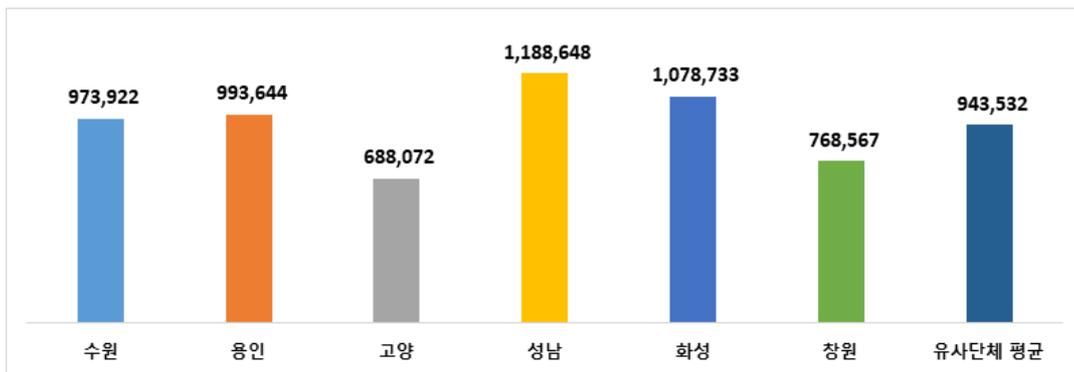
(단위: %)



- 지방세징수실적은 단년도 실적보다는 추세로서의 의미가 큰 지표이나 현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지표임. 일반적으로 지방세징수실적이 높을수록 자주재원이 증가되고, 자체세입 비중도 향상됨.
- 2020년 기준 수원시 지방세징수실적은 9,739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9,435억원 대비 304억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중 용인시보다는 197억원이 낮고, 고양시보다는 2,859억원 이 큰 수준임. 인근 자치단체인 성남시와는 2,147억원이 낮고, 화성시보다는 1,048억원이 낮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지방세징수실적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1조 1,886억원 규모이며, 가장 작은 자치단체는 고양시로 6,881억원 규모임

〈그림 3-1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세징수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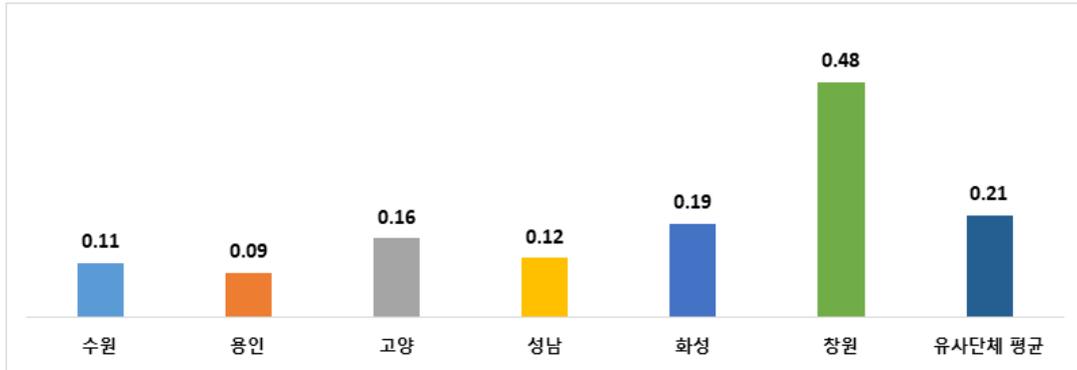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자치단체 세출결산액 중 행사·축제 경비로 지출되는 비율로서 재정의 경상적 지출 부담 수준을 측정함과 더불어 낭비적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로 과도할 경우 재정 비효율이 있다고 판단함
- 2020년 기준 수원시 행사·축제경비비율은 0.11%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0.21% 대비 0.10%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중 용인시보다는 0.02%p가 높고, 고양시보다는 0.05%p가 낮은 수준임. 인근 자치단체인 성남시와는 0.01%p가 낮고, 화성시보다는 0.08%p가 낮음.
- 행사·축제경비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0.09%수준이고,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0.48%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비율 현황

(단위: %)



-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여건과 상태를 종합 비교하면, 수원시는 시민을 위해 투입되는 공공재의 비중이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희소한 재원의 효율적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자체사업비중은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낮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재정 지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재정 확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직접 연계되는 업무추진비비율과 행사축제비율은 매우 낮아 수원시 자체적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지방의회경비비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높다는 점과 해당 지출은 법정 경비와 같은 수준에서의 재정 탄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의회비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하면,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재정을 최소화하고, 재정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들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재정환경과 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만들고,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을 통한 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3-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운용 비교 종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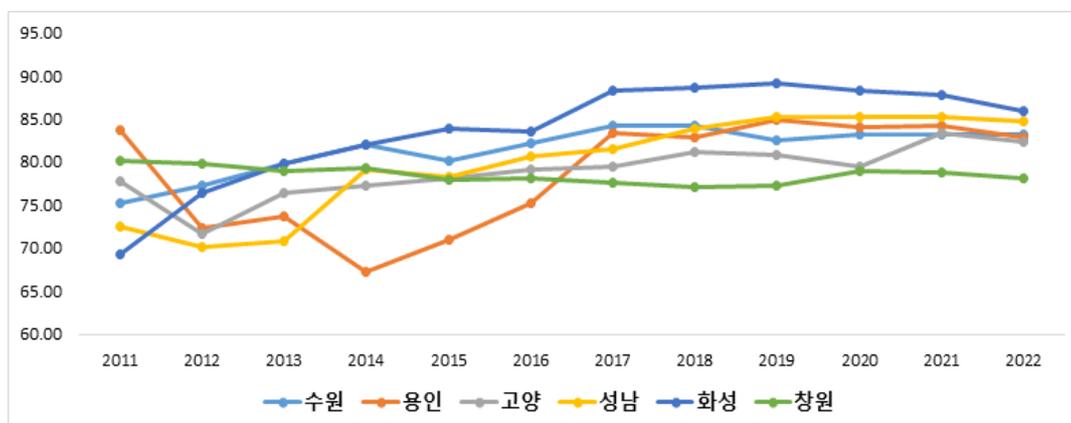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정책사업비중	83.12	82.91	82.39	84.69	85.97	78.13	82.82	0.30
자체사업비중	31.66	34.79	28.19	43.24	39.38	24.79	34.08	-2.42
업무추진비비율	0.04	0.05	0.06	0.04	0.04	0.06	0.05	-0.01
지방의회경비비율	0.08	0.07	0.08	0.08	0.05	0.08	0.07	0.01
지방세징수실적	973,922	993,644	688,072	1,188,648	1,078,733	768,567	943,532	30,389
행사축제경비비율	0.11	0.09	0.16	0.12	0.19	0.48	0.21	-0.10

2. 운용여건의 시계열분석

- 수원시 정책사업비중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0.91%가 증가되었음. 2011년 75.24%에서 2022년 83.12%로 7.88%p 증가되었음.
 - 용인시와 창원시를 제외한 유사자치단체 모두 증가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0.71%가 증가되었음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20%p 큰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1.99%가 증가되었고, 증가수준도 화성시가 16.74%p로 가장 큼.
- 11년간 수원시 정책사업비중이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대부분 컸으나 2011년, 2019년, 2021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정책사업비중 추세

(단위: %)



〈표 3-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정책사업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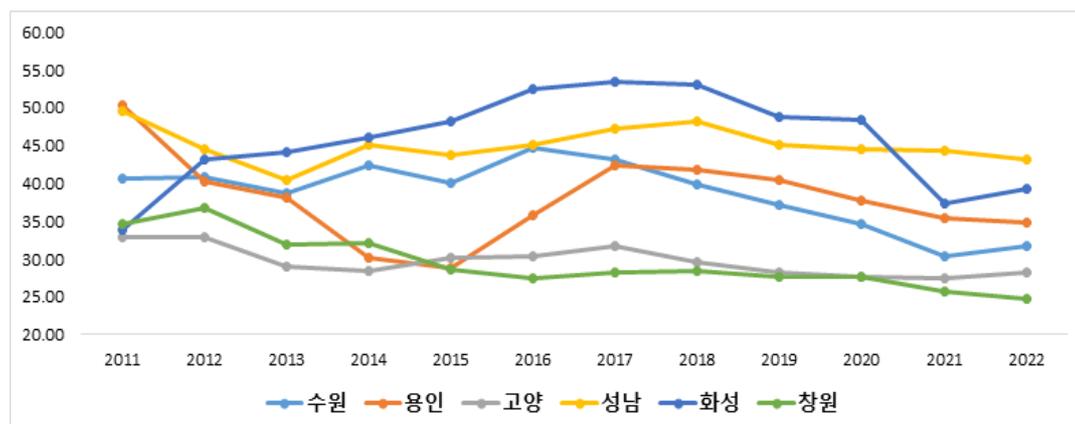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75.24	83.64	77.74	72.45	69.23	80.11	76.63	-1.39
2012	77.20	72.29	71.68	70.17	76.35	79.77	74.05	3.15
2013	79.83	73.64	76.45	70.77	79.80	78.91	75.91	3.92
2014	81.99	67.19	77.23	79.09	82.02	79.29	76.96	5.03
2015	80.05	70.89	78.04	78.22	83.85	77.85	77.77	2.28
2016	82.19	75.12	79.13	80.68	83.60	78.14	79.33	2.86
2017	84.24	83.41	79.46	81.42	88.25	77.65	82.04	2.20
2018	84.20	82.86	81.17	83.80	88.69	77.15	82.73	1.47
2019	82.52	84.88	80.77	85.22	89.19	77.32	83.48	-0.96
2020	83.19	84.10	79.50	85.19	88.26	78.86	83.18	0.01
2021	83.15	84.17	83.44	85.15	87.78	78.79	83.87	-0.72
2022	83.12	82.91	82.39	84.69	85.97	78.13	82.82	0.30
연평균 증감률	0.91	-0.08	0.53	1.43	1.99	-0.23	0.71	0.20

- 수원시 자체사업비중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24%가 감소되었음. 2011년 40.64%에서 2022년 31.66%로 8.98%p 감소되었음.
 - 화성시를 제외한 유사자치단체 모두 감소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1.49%가 감소되었음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75%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압박이 매우 큰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유일하게 1.40%가 증가되었고, 증가 수준도 화성시가 5.57%p로 가장 큼. 반면 용인시는 3.29%가 감소하였고, 감소된 수준도 15.47%p로 가장 큼.
-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원시 자체사업비중이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컸으나 2018년부터는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자체사업비중 추세

(단위: %)



〈표 3-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자체사업비중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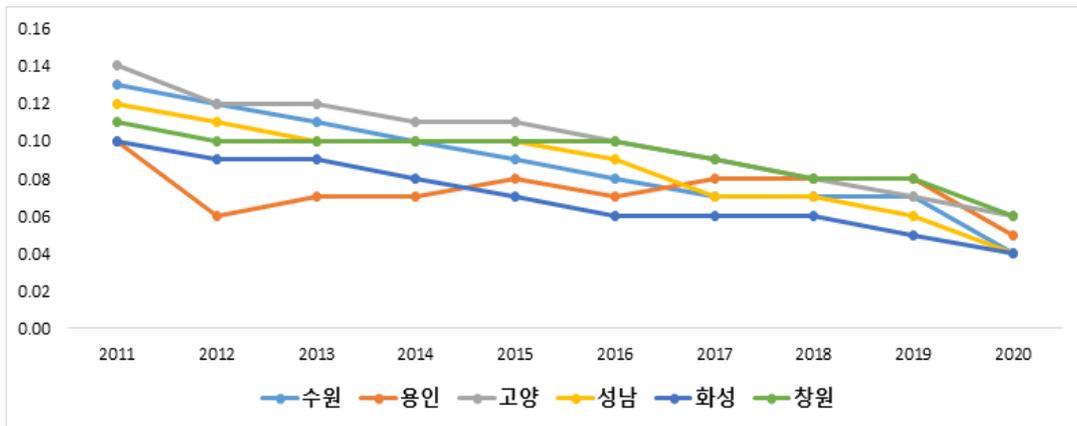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40.64	50.26	32.95	49.48	33.81	34.56	40.21	0.43
2012	40.82	40.21	32.81	44.62	43.16	36.85	39.53	1.29
2013	38.75	38.20	29.02	40.42	44.18	31.85	36.73	2.02
2014	42.39	30.14	28.43	45.19	46.17	32.02	36.39	6.00
2015	40.15	28.82	30.22	43.77	48.14	28.59	35.91	4.24
2016	44.65	35.79	30.30	45.11	52.54	27.40	38.23	6.42
2017	43.08	42.33	31.65	47.31	53.49	28.19	40.59	2.49
2018	39.96	41.82	29.65	48.21	53.02	28.43	40.23	-0.27
2019	37.17	40.49	28.27	45.15	48.72	27.63	38.05	-0.88
2020	34.59	37.81	27.55	44.49	48.33	27.61	37.16	-2.57
2021	30.36	35.42	27.52	44.31	37.42	25.68	34.07	-3.71
2022	31.66	34.79	28.19	43.24	39.38	24.79	34.08	-2.42
연평균 증감률	-2.24	-3.29	-1.41	-1.22	1.40	-2.98	-1.49	-0.75

- 수원시 업무추진비비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2.27%가 감소되었음.
2011년 0.13%에서 2020년 0.04%로 0.09%p 감소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감소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8.75%가 감소되었음.
- 최근 9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3.52%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효율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추진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수원시이고,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연평균 6.51%만큼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9년간 수원시 업무추진비비율이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대부분 컸으나 2017년과 2020년에는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업무추진비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업무추진비비율 추세

(단위: %)



〈표 3-1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업무추진비비율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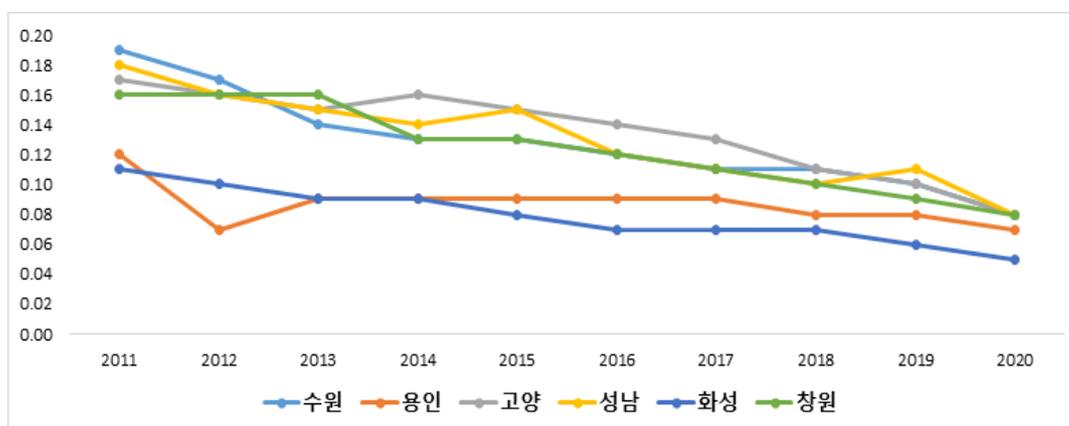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0.13	0.10	0.14	0.12	0.10	0.11	0.11	0.02
2012	0.12	0.06	0.12	0.11	0.09	0.10	0.10	0.02
2013	0.11	0.07	0.12	0.10	0.09	0.10	0.10	0.01
2014	0.10	0.07	0.11	0.10	0.08	0.10	0.09	0.01
2015	0.09	0.08	0.11	0.10	0.07	0.10	0.09	0.00
2016	0.08	0.07	0.10	0.09	0.06	0.10	0.08	0.00
2017	0.07	0.08	0.09	0.07	0.06	0.09	0.08	-0.01
2018	0.07	0.08	0.08	0.07	0.06	0.08	0.07	0.00
2019	0.07	0.08	0.07	0.06	0.05	0.08	0.07	0.00
2020	0.04	0.05	0.06	0.04	0.04	0.06	0.05	-0.01
연평균 증감률	-12.27	-7.41	-8.98	-11.49	-9.68	-6.51	-8.75	-3.52

- 수원시 지방의회경비비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16%가 감소되었음. 2011년 0.19%에서 2020년 0.08%로 0.11%p 감소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감소 추세이며, 9년 동안 연평균 7.69%가 감소되었음
- 최근 9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1.47%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효율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경비비율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수원시이고, 가장 큰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연평균 5.81%만큼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9년간 수원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비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크나 추세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하고 성실하게 경상비 증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2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비율 추세

(단위: %)



〈표 3-1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의회경비비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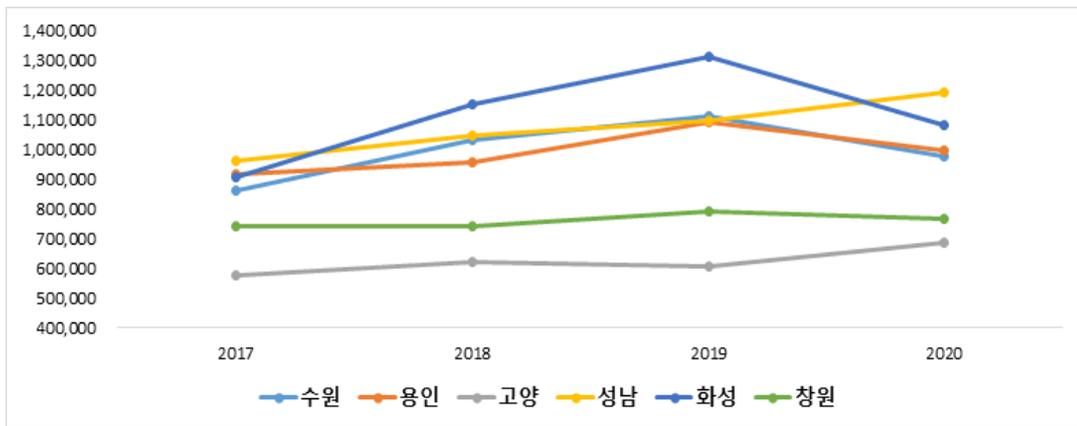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0.19	0.12	0.17	0.18	0.11	0.16	0.15	0.04
2012	0.17	0.07	0.16	0.16	0.10	0.16	0.13	0.04
2013	0.14	0.09	0.15	0.15	0.09	0.16	0.13	0.01
2014	0.13	0.09	0.16	0.14	0.09	0.13	0.12	0.01
2015	0.13	0.09	0.15	0.15	0.08	0.13	0.12	0.01
2016	0.12	0.09	0.14	0.12	0.07	0.12	0.11	0.01
2017	0.11	0.09	0.13	0.11	0.07	0.11	0.10	0.01
2018	0.11	0.08	0.11	0.10	0.07	0.10	0.09	0.02
2019	0.10	0.08	0.10	0.11	0.06	0.09	0.09	0.01
2020	0.08	0.07	0.08	0.08	0.05	0.08	0.07	0.01
연평균 증감률	-9.16	-5.81	-8.03	-8.62	-8.39	-7.41	-7.69	-1.47

- 수원시 지방세징수실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26%가 증가되었음.
2011년 8,593억원에서 2020년 9,739억원으로 1,147억원 증가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증가 추세이며, 3년 동안 연평균 4.79% 1,235억원 증가되었음
- 최근 3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52%p, 88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경직성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연평균 지방세징수실적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7.29%, 2,261억원이 증가되었고, 가장 작은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연평균 1.23%, 276억원이 증가하였음
- 수원시 지방세징수실적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크나 추세적으로 볼 때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압박이 예상됨

〈그림 3-2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지방세징수실적 추세

(단위: 백만원)



〈표 3-1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세징수실적 추세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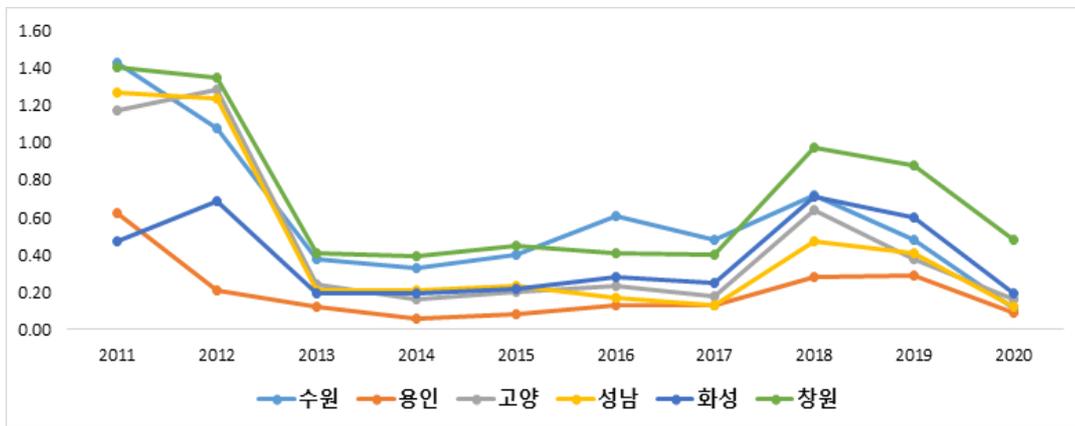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7	859,267	914,906	576,930	962,514	905,001	740,977	820,066	39,201
2018	1,029,621	957,128	619,385	1,042,957	1,150,359	742,191	902,404	127,217
2019	1,111,710	1,087,887	607,065	1,093,895	1,309,830	793,172	978,370	133,340
2020	973,922	993,644	688,072	1,188,648	1,078,733	768,567	943,532	30,389
연평균 증감률	4.26	2.79	6.05	7.29	6.03	1.23	4.79	-0.52

- 수원시 행사·축제경비비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4.80%가 감소되었음.
2011년 1.43%에서 2020년 0.11%로 1.32%p감소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감소 추세이며, 9년 동안 연평균 15.88%가 감소되었음

- 최근 9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8.92%p가 감소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의 지출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연평균 행사·축제경비비율 절감 실적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수원시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9.57%만큼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행사·축제경비비율은 2018년까지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높았으나 2019년부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2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행사·축제경비비율 추세

(단위: %)



〈표 3-1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행사·축제경비비율 추세

(단위: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1.43	0.62	1.17	1.27	0.47	1.40	0.99	0.44
2012	1.08	0.21	1.28	1.24	0.69	1.35	0.95	0.13
2013	0.38	0.12	0.24	0.21	0.19	0.41	0.23	0.15
2014	0.33	0.06	0.16	0.21	0.19	0.39	0.20	0.13
2015	0.40	0.08	0.20	0.23	0.22	0.45	0.24	0.16
2016	0.61	0.13	0.23	0.17	0.28	0.41	0.24	0.37
2017	0.48	0.13	0.18	0.13	0.25	0.40	0.22	0.26
2018	0.72	0.28	0.64	0.47	0.71	0.97	0.61	0.11
2019	0.48	0.29	0.38	0.41	0.60	0.88	0.51	-0.03
2020	0.11	0.09	0.16	0.12	0.19	0.48	0.21	-0.10
연평균 증감률	-24.80	-19.30	-19.83	-23.06	-9.57	-11.21	-15.88	-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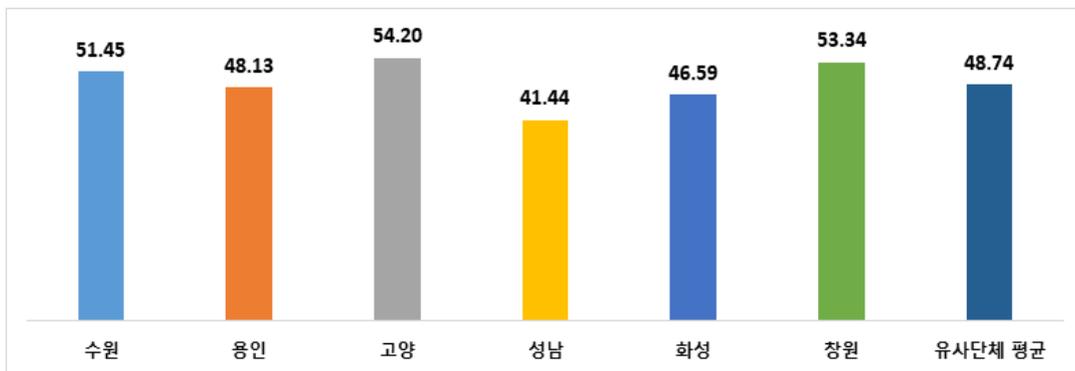
제4절 재정부담

1. 2022년 현황분석⁴⁾

- 보조사업비중은 앞에서 살펴본 자체사업비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정의 의존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낮을수록 재정 자주성이 크다고 판단함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보조사업비중은 51.45%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48.74%보다 2.71%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의존도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 대비는 3.32%p가 높고, 고양시 대비는 2.75%p가 낮음
 - 유사자치단체 중 보조사업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41.4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보조사업비중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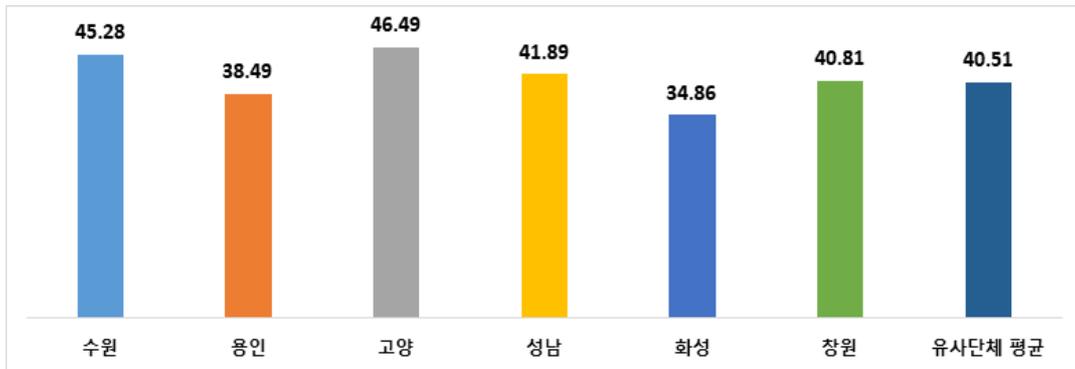
- 사회복지비비중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집행액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복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 복지는 사업의 특성상 한번 지출되면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해당 지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 탄력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과도하게 클 경우 재정부담이 심각해 질 수 있음
- 2022년 기준 수원시 사회복지비비중은 45.28%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40.51%보다 4.77%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재정부담 실태 비교 분석을 위한 지표 중 예산대비채무비중, 공기업부채비중, 인건비비중은 지방재정 365에 2020년 실적까지만 등재되어 있어 현황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20년 자료임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 대비 6.79%p가 높고, 고양시 대비는 1.21%p가 낮음
 - 유사자치단체 중 사회복지비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34.8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사회복지비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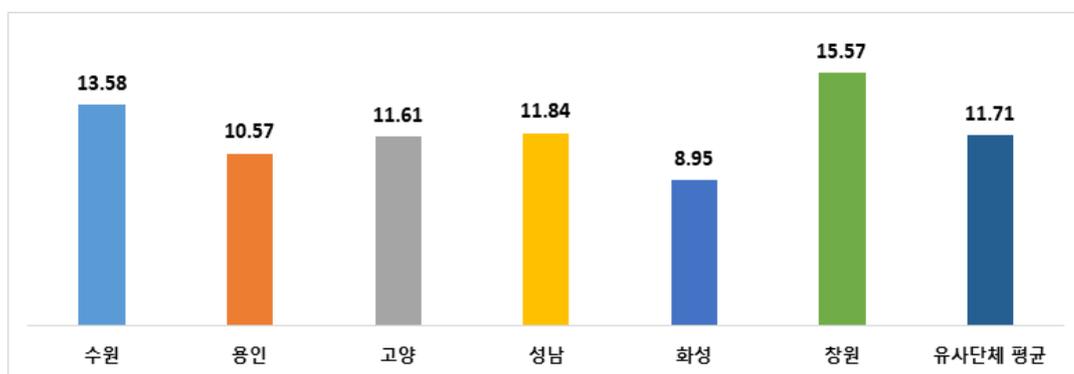
(단위: %)



- 행정운영경비비중은 인건비비중과 함께 대표적인 법정경비로서 재정압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법정경비로서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특징과 함께 너무 그 비중이 클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 2022년 기준 수원시 행정운영경비비중은 13.58%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1.71%보다 1.87%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 대비 3.01%p가 높고, 고양시 대비 1.97%p가 높아 특례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사자치단체 중 행정운영경비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15.57% 수준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8.9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행정운영경비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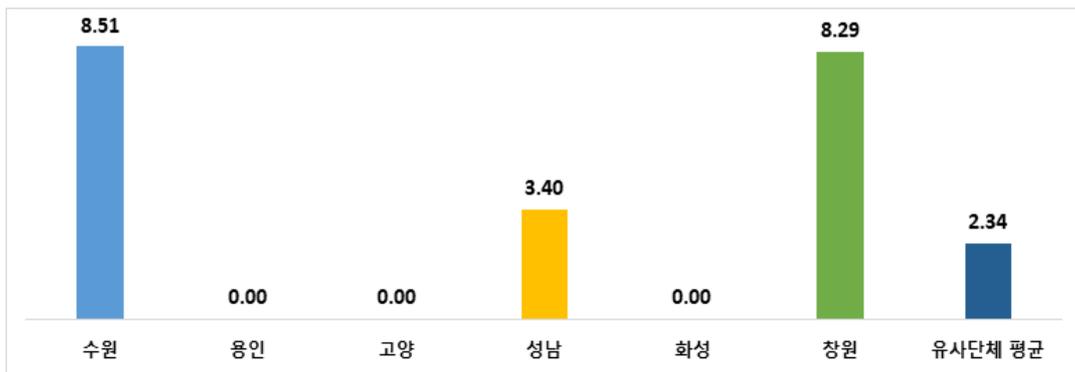
(단위: %)



- 예산대비채무비중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재정에서 채무의 양은 미래의 재정여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지방재정의 구조상 급격한 세입의 증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의 채무비중은 미래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0년 기준 수원시 예산대비채무비중은 8.51%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2.34%보다 6.17%p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민선 8기 수원시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와 고양시의 채무가 0%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시의 채무 비중은 매우 큰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수원시의 채무 비중이 가장 높음. 한편, 창원시의 채무 비중도 수원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창원시의 채무는 지역개발 채권 등 첨가소화채권에 의한 것으로, 수원시와 같이 외부 차입을 통한 채무와는 다른 여건임

〈그림 3-2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예산대비채무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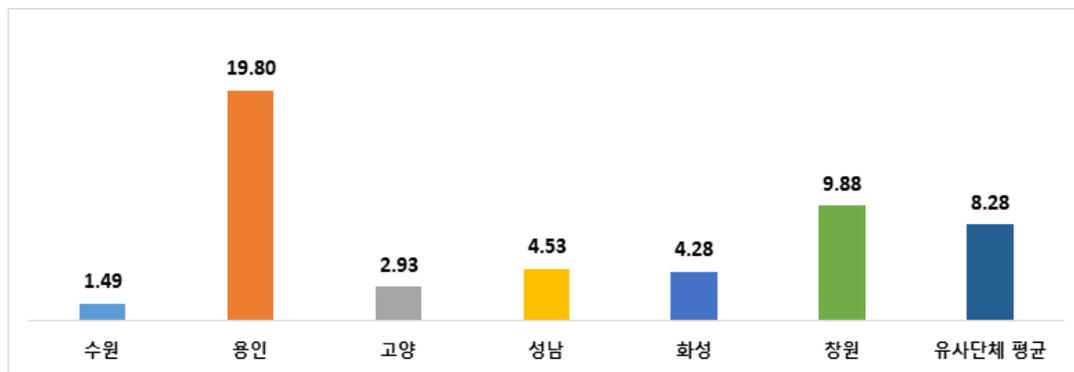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자치단체 재정과 계정을 달리하여 공기업의 부채가 자치단체 재정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최종적인 재정의 책임은 자치단체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공기업부채비중 역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침.
- 2020년 기준 수원시 공기업부채비중은 1.49%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8.28%보다 6.79%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 대비 18.31%p가 낮고, 고양시 대비 1.44%p가 낮은 수준임
 - 유사자치단체 중 용인시의 채무 비중이 19.80%로 가장 높고, 수원시가 가장 낮음.

- 다만, 해석에 있어 공기업은 비교 대상 자치단체간 그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음. 수원시의 경우 도시공사가 있기는 하나 도시개발을 주 업무로 하기보다는 시설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개발과 보상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기업과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임.

〈그림 3-2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공기업부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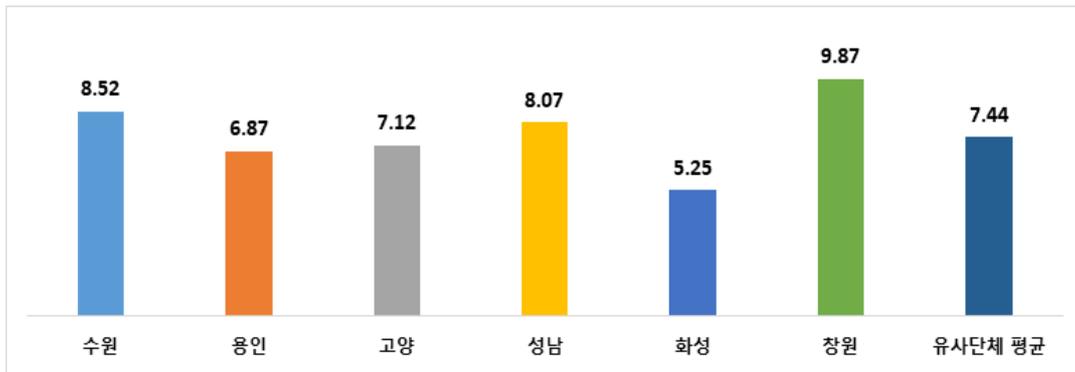
(단위: %)



- 인건비비중은 대표적인 법정경비로서 재정압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법정경비로서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특징과 함께 너무 그 비중이 클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 특히 수원시의 경우 2019년 재정압박 해소를 위해 신규채용의 시기를 조절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민선 8기 들어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인건비비중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소지가 큼
- 2020년 기준 수원시 인건비비중은 8.52%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7.44%보다 1.0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특례시 원년 중앙 또는 광역으로부터의 사무 이전 확대에 따라 인건비비중의 증가가 예상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 대비 1.65%p가 높고, 고양시 대비 1.40%p가 높아 특례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사자치단체 중 인건비비중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창원시로 9.87% 수준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5.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인건비비중

(단위: %)



-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의 미래 재정부담 여건을 종합 비교하면, 현시점에서 수원시의 미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투입되는 재원 중 쉽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수원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해 상대적 열위에 있음
 - 보조사업비중, 사회복지비중, 행정운영경비중, 예산대비채무비중, 인건비중 등이 모두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음. 공기업무채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이는 수원도시 공사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큰 의미를 주지 못함
- 여기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수원시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고도의 구조조정 등을 수행했다는 점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운영경비를 축소하였고, 채용 등의 시기 조정을 통해 인건비중을 축소시켰음.
 - 세출 구조조정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담을 전제로 현재를 우회 하는 전략임. 즉, 언젠가는 현시점에서 우회했던 것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수원시는 단기적 세출 구조조정을 넘어 보다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맥락에서 수원시 전체에 대한 재정 구조조정을 꾀해야 하는 시기라 판단됨

〈표 3-1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재정부담 비교 종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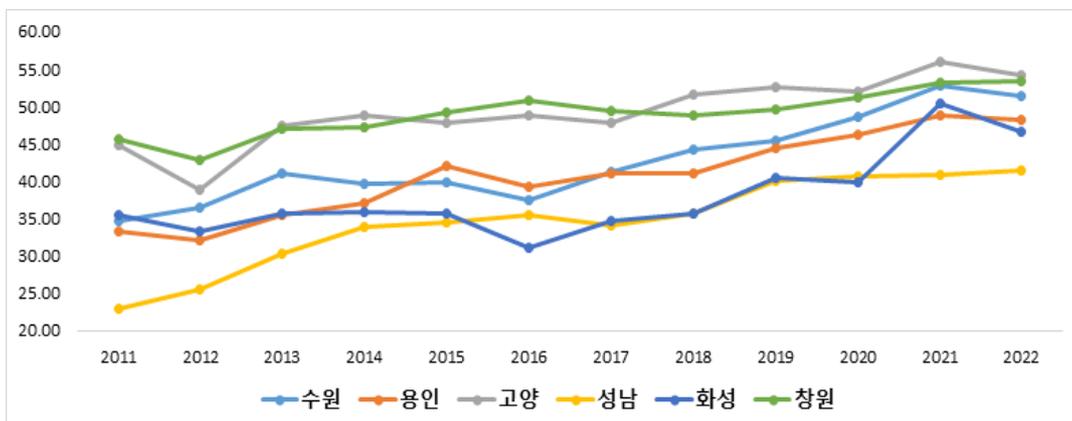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보조사업비중	51.45	48.13	54.20	41.44	46.59	53.34	48.74	2.71
사회복지비중	45.28	38.49	46.49	41.89	34.86	40.81	40.51	4.77
행정운영경비비중	13.58	10.57	11.61	11.84	8.95	15.57	11.71	1.87
예산대비채무비중	8.51	0.00	0.00	3.40	0.00	8.29	2.34	6.17
공기업부채비중	1.49	19.80	2.93	4.53	4.28	9.88	8.28	-6.79
인건비비중	8.52	6.87	7.12	8.07	5.25	9.87	7.44	1.08

2. 재정부담의 시계열분석

- 수원시 보조사업비중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67%가 증가되었음. 2011년 34.60%에서 2022년 51.45%로 16.85%p 증가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증가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2.68%가 증가되었음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99%p 큰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5.51%가 증가되었고, 증가 수준도 성남시가 18.47%p로 가장 큼.
- 11년간 수원시 보조사업비중은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매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3-2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보조사업비중 추세

(단위: %)



〈표 3-15〉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보조사업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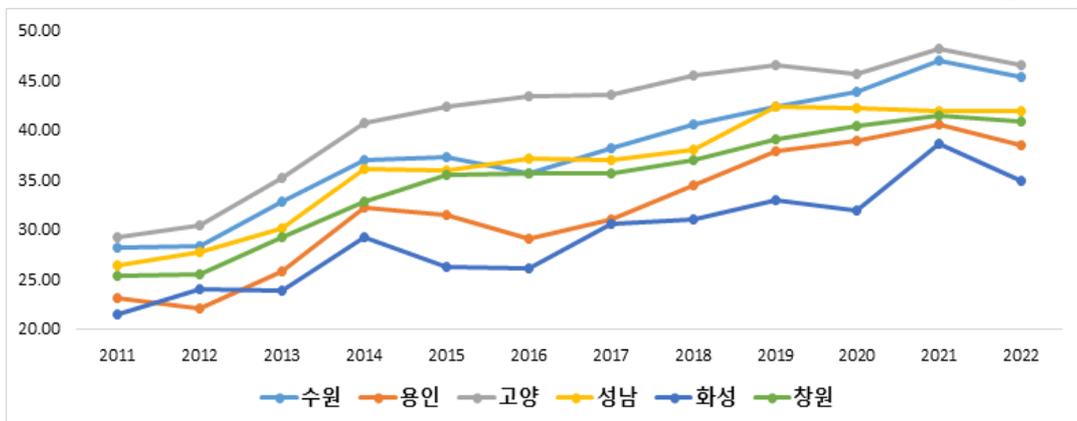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34.60	33.38	44.80	22.97	35.42	45.55	36.42	-1.82
2012	36.38	32.07	38.87	25.56	33.19	42.91	34.52	1.86
2013	41.08	35.44	47.42	30.34	35.63	47.07	39.18	1.90
2014	39.59	37.04	48.80	33.91	35.85	47.27	40.57	-0.98
2015	39.90	42.08	47.82	34.45	35.71	49.26	41.86	-1.96
2016	37.54	39.33	48.83	35.57	31.06	50.74	41.11	-3.57
2017	41.16	41.08	47.81	34.12	34.76	49.46	41.45	-0.29
2018	44.24	41.04	51.52	35.59	35.67	48.72	42.51	1.73
2019	45.34	44.39	52.50	40.07	40.47	49.68	45.42	-0.08
2020	48.60	46.30	51.95	40.70	39.93	51.26	46.03	2.57
2021	52.78	48.75	55.92	40.84	50.36	53.10	49.79	2.99
2022	51.45	48.13	54.20	41.44	46.59	53.34	48.74	2.71
연평균 증감률	3.67	3.38	1.75	5.51	2.52	1.45	2.68	0.99

- 수원시 사회복지비비중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42%가 증가되었음.
2011년 28.14%에서 2022년 45.28%로 17.14%p 증가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증가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4.45%가 증가되었음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03%p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용인시로 4.75%가 증가되었고, 증가 수준은 고양시로 17.28%p가 증가되었음.
- 11년간 수원시 사회복지비비중은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매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사회복지비비중 추세

(단위: %)



〈표 3-16〉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사회복지비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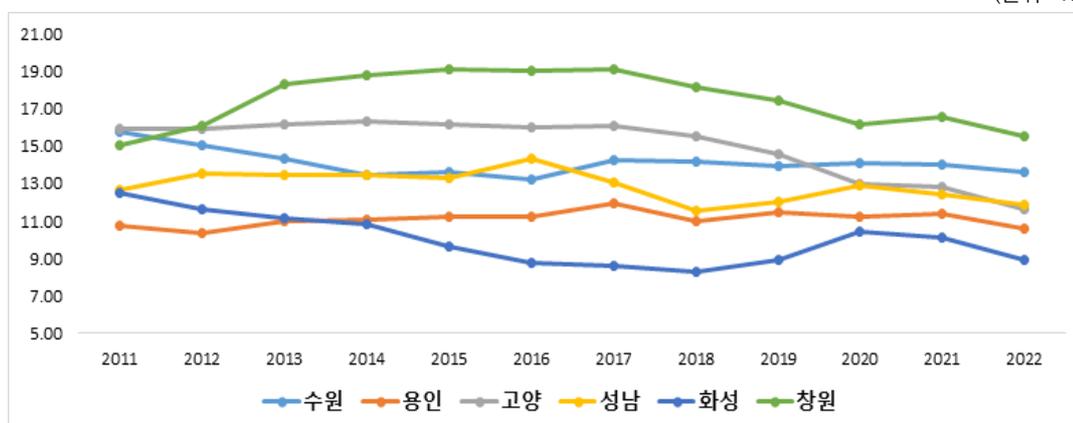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28.14	23.11	29.21	26.31	21.49	25.32	25.09	3.05
2012	28.32	22.08	30.33	27.71	23.90	25.46	25.90	2.42
2013	32.85	25.81	35.21	30.10	23.83	29.17	28.82	4.03
2014	36.99	32.21	40.74	36.04	29.15	32.78	34.18	2.81
2015	37.25	31.49	42.38	35.93	26.18	35.47	34.29	2.96
2016	35.65	28.99	43.33	37.11	26.06	35.60	34.22	1.43
2017	38.16	31.05	43.53	36.92	30.47	35.66	35.53	2.63
2018	40.54	34.40	45.51	38.03	30.95	36.89	37.16	3.38
2019	42.31	37.87	46.51	42.32	32.87	39.02	39.72	2.59
2020	43.75	38.85	45.60	42.21	31.86	40.37	39.78	3.97
2021	46.99	40.57	48.08	41.83	38.64	41.48	42.12	4.87
2022	45.28	38.49	46.49	41.89	34.86	40.81	40.51	4.77
연평균 증감률	4.42	4.75	4.32	4.32	4.50	4.43	4.45	-0.03

- 수원시 행정운영경비비중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35%가 감소되었음.
2011년 15.77%에서 2022년 13.58%로 2.19%p 감소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감소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1.21%가 감소되었음
- 최근 11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14%p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3.01%가 감소되었고, 감소 수준은 고양시로 4.34%p가 감소되었음.
- 11년간 수원시 행정운영경비비중은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매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행정운영경비비중 추세

(단위: %)



〈표 3-17〉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행정운영경비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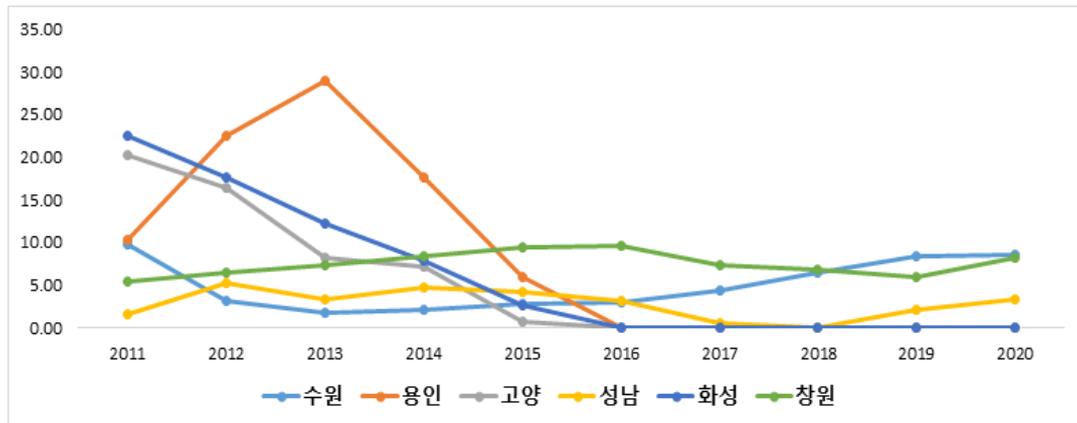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15.77	10.78	15.95	12.63	12.52	15.06	13.39	2.38
2012	15.08	10.38	15.90	13.52	11.62	16.13	13.51	1.57
2013	14.32	10.97	16.15	13.45	11.11	18.31	14.00	0.32
2014	13.47	11.09	16.34	13.47	10.86	18.84	14.12	-0.65
2015	13.65	11.22	16.21	13.27	9.60	19.11	13.88	-0.23
2016	13.24	11.23	16.03	14.33	8.76	19.04	13.88	-0.64
2017	14.26	11.96	16.12	13.10	8.57	19.13	13.78	0.48
2018	14.19	10.96	15.51	11.51	8.29	18.13	12.88	1.31
2019	13.92	11.46	14.55	12.05	8.94	17.45	12.89	1.03
2020	14.09	11.23	12.98	12.88	10.39	16.15	12.73	1.36
2021	14.03	11.39	12.85	12.40	10.14	16.56	12.67	1.36
2022	13.58	10.57	11.61	11.84	8.95	15.57	11.71	1.87
연평균 증감률	-1.35	-0.18	-2.85	-0.59	-3.01	0.30	-1.21	-0.14

- 수원시 채무 비중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3%가 감소되었음. 2011년 9.78%에서 2020년 8.51%로 1.27%p 감소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감소 추세이며, 11년 동안 연평균 16.64%가 감소되었음
- 최근 9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15.11%p 큰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로 100.00%가 감소되었고, 감소 수준은 고양시로 20.20%p가 감소되었음
- 9년간 수원시 채무 비중은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2015년까지는 낮았으나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예산대비채무비중 추세

(단위: %)



〈표 3-18〉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예산대비채무비중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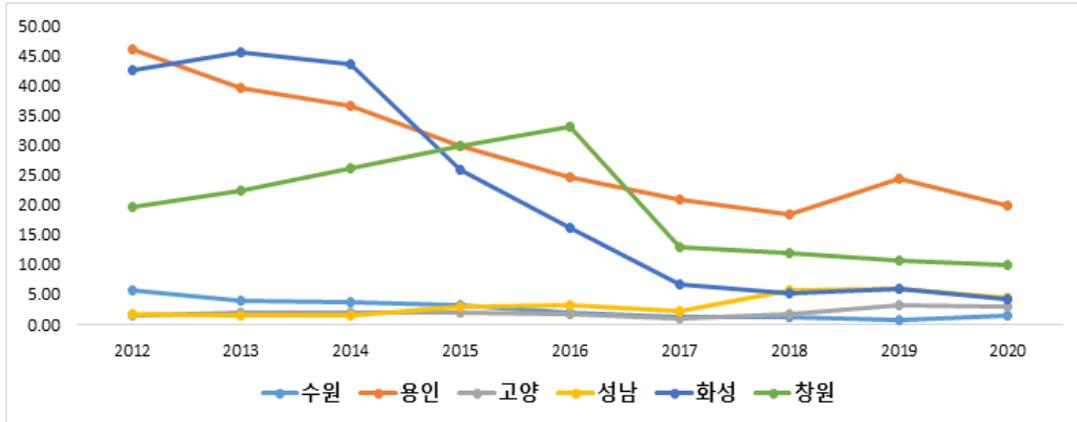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1	9.78	10.30	20.20	1.64	22.49	5.50	12.03	-2.25
2012	3.12	22.42	16.45	5.26	17.63	6.47	13.65	-10.53
2013	1.73	28.96	8.26	3.28	12.23	7.37	12.02	-10.29
2014	2.12	17.60	7.10	4.80	7.87	8.38	9.15	-7.03
2015	2.89	5.93	0.70	4.21	2.69	9.40	4.59	-1.70
2016	3.07	0.00	0.02	3.19	0.00	9.67	2.58	0.49
2017	4.34	0.00	0.01	0.58	0.00	7.42	1.60	2.74
2018	6.50	0.00	0.00	0.01	0.00	6.82	1.37	5.13
2019	8.41	0.00	0.00	2.07	0.00	5.94	1.60	6.81
2020	8.51	0.00	0.00	3.40	0.00	8.29	2.34	6.17
연평균 증감률	-1.53	-100.00	-100.00	8.44	-100.00	4.66	-16.64	15.10

- 수원시 공기업부채비중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48%가 감소되었음.
2012년 5.72%에서 2020년 1.49%로 4.23%p 감소되었음.
 -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유사자치단체 모두 감소 추세이며, 8년 동안 연평균 11.63%가 감소되었음
- 최근 8년간 수원시의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3.85%p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화성시로 24.97%가 감소되었고, 감소 수준도 화성시로 38.35%p가 감소되었음.

- 8년간 수원시 공기업부채비중은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매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공기업부채비중 추세

(단위: %)



〈표 3-19〉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공기업부채비중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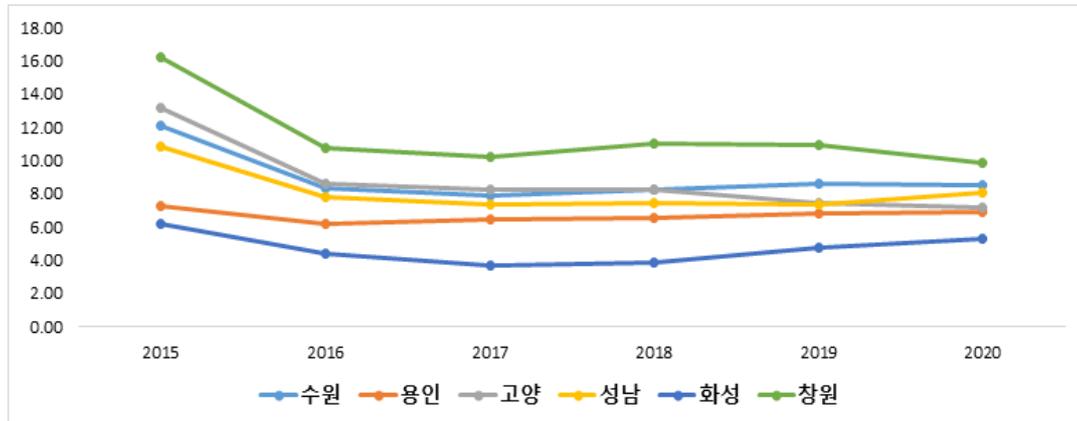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2	5.72	46.07	1.39	1.63	42.63	19.64	22.27	-16.55
2013	4.06	39.51	1.96	1.35	45.46	22.38	22.13	-18.07
2014	3.62	36.67	1.85	1.56	43.44	26.06	21.92	-18.30
2015	3.24	29.85	1.94	3.05	25.92	29.94	18.14	-14.90
2016	2.07	24.51	1.72	3.18	16.11	33.07	15.72	-13.65
2017	1.14	20.81	1.09	2.27	6.64	12.95	8.75	-7.61
2018	1.29	18.29	1.70	5.68	5.21	11.88	8.55	-7.26
2019	0.81	24.29	3.14	6.07	5.90	10.64	10.01	-9.20
2020	1.49	19.80	2.93	4.53	4.28	9.88	8.28	-6.79
연평균 증감률	-15.48	-10.02	9.77	13.63	-24.97	-8.23	-11.63	-3.85

- 수원시 인건비비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76%가 감소되었음. 2015년 12.09%에서 2020년 8.52%로 3.57%p 감소되었음.
 - 유사자치단체 모두 감소 추세이며, 5년 동안 연평균 7.05%가 감소되었음
- 최근 5년간 수원시 연평균 증가율은 유사자치단체 평균보다 0.29%p 큰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고양시로 11.55%가 감소되었고, 감소 수준도 고양시로 6.03%p가 감소되었음

- 5년간 수원시 인건비비중은 유사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매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4〉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인건비비중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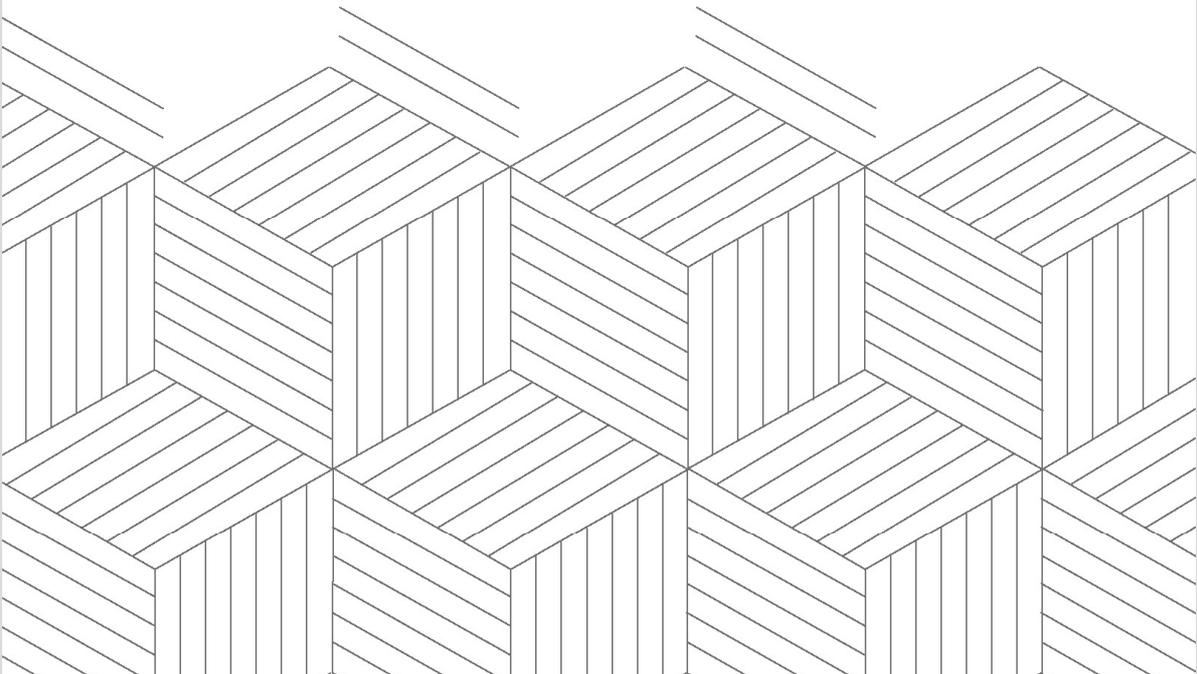
〈표 3-20〉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 연도별 인건비비중 추세

(단위: %)

구분	수원(A)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B)	A-B
2015	12.09	7.29	13.15	10.80	6.17	16.18	10.72	1.37
2016	8.33	6.21	8.61	7.77	4.38	10.76	7.55	0.78
2017	7.84	6.47	8.26	7.32	3.63	10.24	7.18	0.66
2018	8.20	6.49	8.19	7.39	3.83	11.04	7.39	0.81
2019	8.63	6.81	7.46	7.33	4.71	10.96	7.45	1.18
2020	8.52	6.87	7.12	8.07	5.25	9.87	7.44	1.08
연평균 증감률	-6.76	-1.18	-11.55	-5.66	-3.18	-9.41	-7.05	0.29

제4장 수원시 재정악화 원인과 전망

제1절 수원시 재정악화 주요 원인
제2절 민선 8기 수원시 재정여건 및 전망



제4장 수원시 재정악화 원인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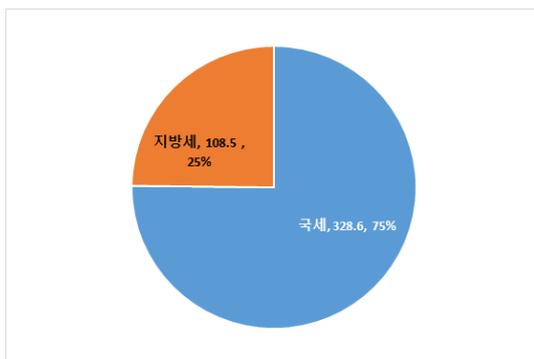
제1절 수원시 재정악화 주요 원인

1. 정부간 재정관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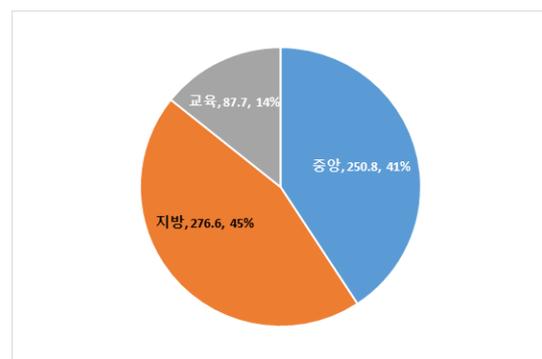
1) 균형우선에 따른 역차별

- 대한민국의 세입 구조는 8(중앙) : 2(지방)이나 세출 구조는 4(중앙) : 6(지방)로서 ‘4’ 만큼은 이전재원을 통해 보전

〈그림 4-1〉 국가-지방 세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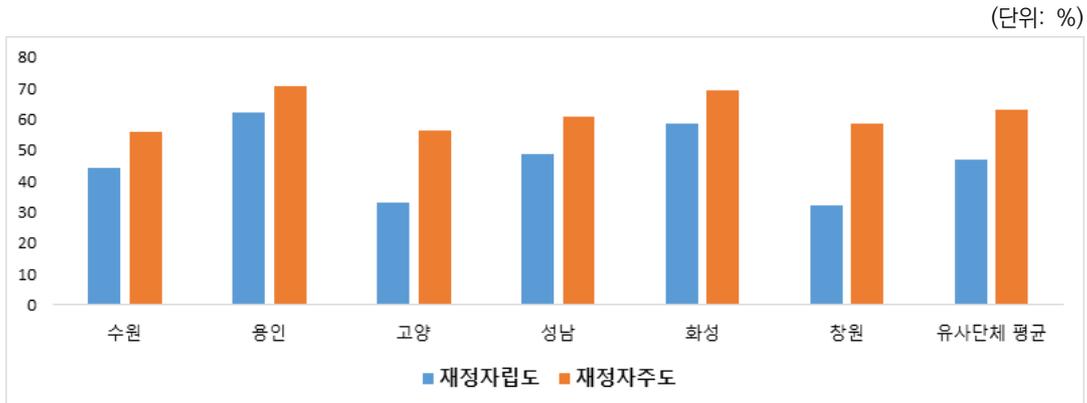
〈그림 4-2〉 국가-지방 세출 구조



- 재정지원의 원칙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지원되어야 하나 균형과 평등의 가치가 우선되면서 다양성과 차별성이 약화됨
 - 재정분권을 통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균형 위주의 분권으로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다수에 이익이 돌아가는 세출분권 위주의 재정분권은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의 희생을 강요함
 - 중앙 또는 광역에서 보전되는 이전재원의 배분 체계가 재정의 왜곡을 불러옴. 비합리적인 이전재원 배분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순위 역전 현상을 유발시킴.

- 유사자치단체간 비교 결과,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위이나 재정자주도는 최하위
- 창원시는 재정자립도 32.31%로 유사자치단체중 최하위이나(수원시 대비 11.88%p 낮음) 재정자주도는 58.36%로 4위로 상향(수원시 대비 2.63%p 높음)

〈그림 4-3〉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차이



〈표 4-1〉 2022년 기준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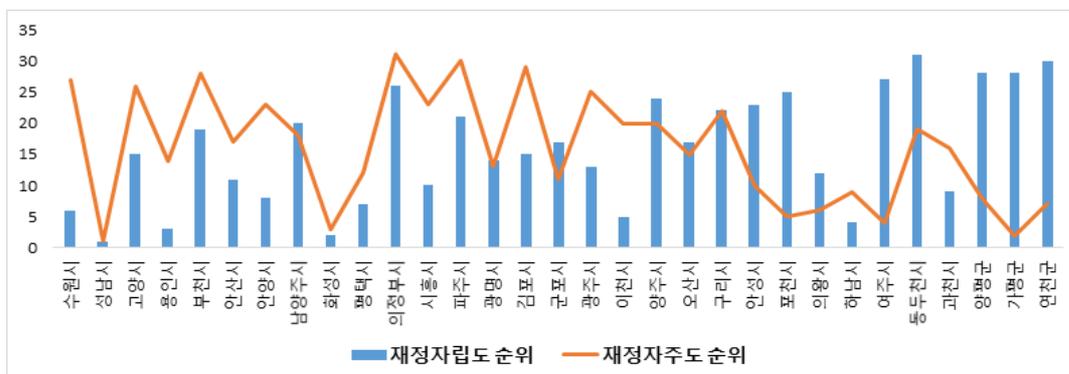
구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
재정자립도(A)	44.19	48.66	32.81	62.22	58.62	32.31	46.92
재정자주도(B)	55.73	60.63	56.20	70.56	69.11	58.36	62.97
B-A	11.54	8.34	23.39	11.97	10.49	26.05	16.05

자료: 지방재정 365, 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동일

주: 당초예산 기준

- 재정의 역전 현상은 경기도 내에서도 매우 크게 발생됨. 2022년 당초예산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6위이나 재정자주도는 27위에 불과함.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간 하락폭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수원시로 -21 수준이며, 그 다음은 안양시와 이천시로 각각 -15 수준임. 반면 가평군은 재정자립도 대비 재정자주도가 26위 상향되고, 여주시와 연천군은 23위가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균형위주의 정부간 재정관계는 지방세의 가격효과를 왜곡시키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약할 수 있음

〈그림 4-4〉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순위



〈표 4-2〉 2022년 기준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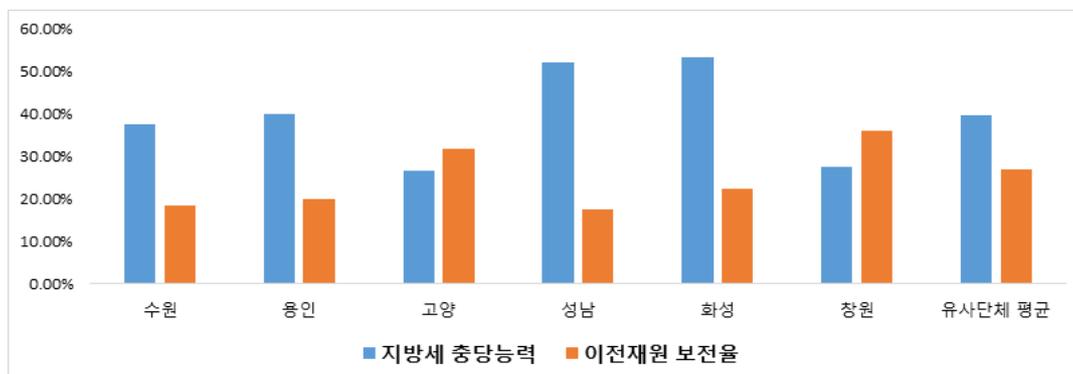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A)	재정자주도	순위(B)	A-B
수원시	44.2	6	55.7	27	-21
성남시	62.2	1	70.6	1	0
고양시	32.8	15	56.2	26	-11
용인시	48.7	3	60.6	14	-11
부천시	31.2	19	55.6	28	-9
안산시	36.8	11	58.5	17	-6
안양시	38.9	8	57.3	23	-15
남양주시	29.8	20	58.1	18	2
화성시	58.6	2	69.1	3	-1
평택시	41.6	7	60.8	12	-5
의정부시	21.1	26	49.7	31	-5
시흥시	37.7	10	57.3	23	-13
파주시	28.9	21	53.4	30	-9
광명시	33.9	14	60.7	13	1
김포시	32.8	15	54.6	29	-14
군포시	31.5	17	61.1	11	6
광주시	36	13	57.2	25	-12
이천시	44.6	5	57.6	20	-15
양주시	24.6	24	57.6	20	4
오산시	31.5	17	60.5	15	2
구리시	28	22	57.4	22	0
안성시	27.3	23	61.6	10	13
포천시	22.6	25	64.7	5	20
의왕시	36.3	12	64.6	6	6
하남시	47.6	4	62	9	-5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A)	재정자주도	순위(B)	A-B
여주시	21	27	67.3	4	23
동두천시	13.1	31	57.8	19	12
과천시	38.2	9	59.1	16	-7
양평군	16.8	28	62.5	8	20
가평군	16.8	28	70.4	2	26
연천군	14.5	30	62.9	7	23

주: 2022 당초예산 기준

- 정부간 재정관계가 조세의 가격기능을 훼손하고 편익의 역진을 발생시킴
 - 정부간 재정관계는 부족한 자주재원을 이전재원이 보전함으로써 최소한의 공공재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수단에 초점을 둠
 - 대표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이에 해당됨. 정부간 재정조정제도는 수직·수평적 균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6개의 유사자치단체 중 고양시는 지방세 충당 능력이 6위이며, 이전재원 보전율은 2위 수준임. 창원시는 지방세 충당 능력이 5위이나 이전재원 보전율은 1위임.
 - 지방세 충당 능력 : 일반회계 전체 세출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이전재원 보전율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이 자체세입 부족액(세출총액-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 수원시 지방세충당능력은 37.57%로 4위 수준이고 유사자치단체 평균 대비 1.97%p가 낮은 수준인데, 이전재원 보전율은 18.49%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26.95% 대비 8.46%p가 낮음. 이전재원 보전율은 5위 수준임.
 - 일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으로 이전재원이 많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수원시의 경우 지방세 충당 능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선택과 집중보다는 균형위주의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에 의한 결과라는 기본 원칙과 논리가 충돌되는 부적합한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결과라 판단됨
 - 가장 대표적으로 재정력지수의 반복 사용 문제를 들 수 있음
 - 중앙에서 교부세 산정시 사용된 재정력지수가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등에서 반복 사용됨으로써 재정의 역진성 가속화
 - 교부세 배분액을 포함한 재정력지수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포함한 재정력지수로 도비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그림 4-5〉 유사자치단체 지방세 총당 능력 및 이전재원 보전율



〈표 4-3〉 2022년 기준 수원시와 유사자치단체별 이전재원 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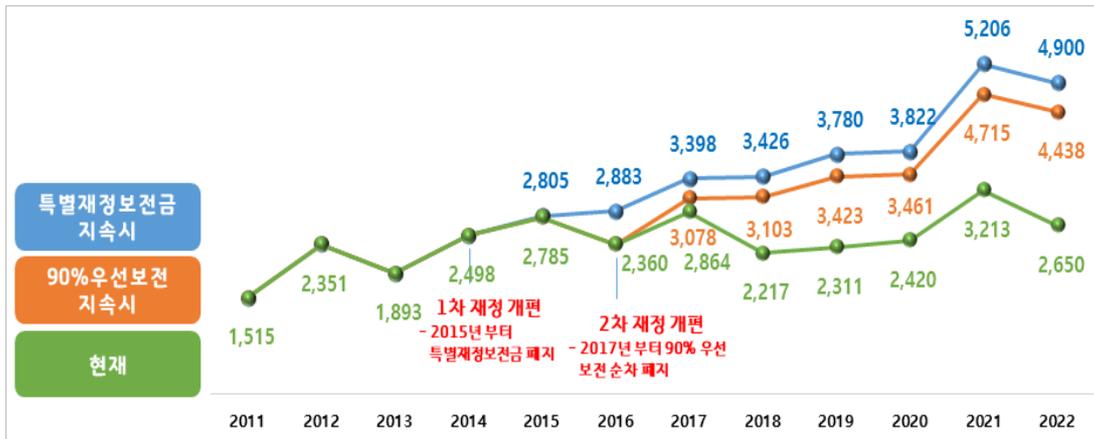
구분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창원	유사단체 평균
일반회계총액(A)	25,717	25,976	25,157	25,940	25,750	29,717	26,508
지방세(B)	9,662	10,353	6,649	13,495	13,728	8,179	10,481
지방교부세(C)	318	292	2,847	284	242	5,707	1,874
조정교부금(D)	2,650	2,820	3,039	1,879	2,458	2,032	2,446
지방세총당능력(B/A)×100	37.57%	39.86%	26.43%	52.02%	53.31%	27.52%	39.54%
자체세입부족분(E)(A-B)	16,055	15,623	18,508	12,445	12,022	21,538	16,027
보전분(F)(C+D)	2,968	3,112	5,886	2,163	2,700	7,739	4,320
보전율(F/E)×100	18.49%	19.92%	31.80%	17.38%	22.46%	35.93%	26.95%

주: 2022 당초예산 기준

- 전국적 차원에서 재정 형평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으로 수원시 누적 세입 감소액은 약 7,086억원에 달함
 - “재정보전금제도”를 “조정교부금제도”로 변경하고,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재정 충격 발생
 - “재정보전금”제도 운영시 불교부단체에게 보전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2014년)로 약 543억원 감소
 -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징수 실적을 40%에서 30%로 축소 (2017년부터 20%로 축소)
 - 2016년부터 불교부단체에 우선 보전된 조정교부금 단계별 폐지(2016년)로 약 6,543억원 축소

- 1단계 재정개편을 통해 손실된 특별재정보전금 보전을 위해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 보전했으나,
- 2단계 재정개편으로 90% 우선보전이 2017년에 80%, 2018년에 70%, 2019년에 0%로 폐지됨
 - 재정개편 당시 정부는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로 편을 나누어 갈등하게 만들었고 (1차 개편시는 경기도 내에서, 2차 개편시에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수가 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소수의 불교부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그림 4-6〉 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자원 축소 현황



〈표 4-4〉 두 차례 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액 추정

(단위: 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계
조정교부금 재원	25,963	29,447	30,260	35,668	35,960	39,673	40,116	54,644	51,439	△7,086
수원시 배분액(A)	2,498	2,785	2,360	2,864	2,217	2,311	2,420	3,213	2,650	
수원시 배분 비중	9.6	9.5	7.8	8.0	6.2	5.8	6.0	5.9	5.2	
특별재정보전금유지시(B)		2,805	2,883							
1차 개편 총격(A-B)		△20	△523							△543
우선보전90%유지시(C)				3,078	3,103	3,423	3,461	4,715	4,438	
2차 개편 총격(A-B)				△214	△886	△1,112	△1,041	△1,502	△1,788	△6,543

자료: 연도별 결산자료, 2021년은 최종 변경내시액 기준

분석: 특별재정보전금 유지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교부금 총액에서 수원시 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9.53%)적용(2011년 7.4%, 2012년 10.3%, 2013년 10.7%, 2014년 9.6%)

우선보전 90% 유지시는 '15년부터 '16년까지 조정교부금 총액에서 수원시 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8.6%)적용

-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산식에서도 징수실적 비율이 꾸준히 감소되는 등 대도시 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제도가 개편됨
- 대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세 징수실적이 높고, 재정력지수가 높는데, 조정교부금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부터 재정력 역지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조정교부금 배분시 재정력 역지수는 재정력지수가 1을 넘는 자치단체는 보전에서 제외하되, 1을 넘지 않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재정력지수'를 적용하여 배분

〈표 4-5〉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산식 변화

시기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 역지수	비고
2000 ~ 2006	60%	40%		재정보전금
2007 ~ 2013	50%	40%	10%	
2014 ~ 2016	50%	30%	20%	조정교부금
2017 ~ 현재	50%	20%	30%	

- 도비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매년 약 205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 발생
 - 2013년 경기도는 취득세 절벽 등 재정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응해 도비보조금 차등지급 구간을 일방적으로 마련함
 - 경기도는 2014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기준보조율을 30%로 결정하였음. 기준보조율을 30%로 결정한 근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행규칙」 제3조에 있음.
 - 기준보조율을 30%로 대폭 인하 고정시키면서 함께 추진된 차등보조율은 최저보조율 구간을 당초 20%에서 10%로 하향으로, 최고보조율 구간을 50%에서 40%로 하향시켰음. 이후 경기도 재정압박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차등보조율 중 최고구간을 다시 50%로 10%p 상향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음.

〈표 4-6〉 경기도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구간 변화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2022년
기준보조율		30~50%	30%	30%
차등보조율		20~50%	10~40%	10~50%
인하 보조	10%(△20%)	-	6市	6市
	20%(△10%)	6市	14市	6市
기준 보조	30%	15市	5市	7市
인상 보조	40%(+10%)	5市	6市郡	7市
	50%(+20%)	5市郡	-	5市郡

자료 : 경기도 내부 자료

- 현재 경기도 도비보조금은 재정력지수와 인건비 총당지수를 근거로 기준보조율 30%에서 △20%까지 차감
- 수원시는 재정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차등보조율 10%만 지원 받음
 - 기준보조 30%로 지원받게 될 경우 시비부담액 205억원 감소가 발생됨

〈표 4-7〉 2022년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구간

구분	인하보조		기준보조(30%)	인상보조	
	△20%	△10%		+10%	+20%
개수	(6市)	(6市)	(7市)	(7市)	(5市郡)
2022년	화성, 성남, 용인, 수원, 하남, 과천	시흥, 안산, 평택, 이천, 의왕, 김포	안양, 오산, 부천, 광명, 군포, 구리, 고양	광주, 의정부, 파주, 남양주, 양주, 안성, 동두천	포천, 여주, 가평, 양평, 연천
보조율	10%	20%	30%	40%	50%

- 차등보조 대상 시·군 선정시 재정력지수의 반복 사용으로 역차별 증가
 - 불교부단체의 경우 교부세 → 조정교부금 → 도비보조금 등 3차례의 차별 받음
- 2022년 본예산 기준 도비보조금 지원율이 10%이하인 사업은 93건, 959억원 규모 (시비 87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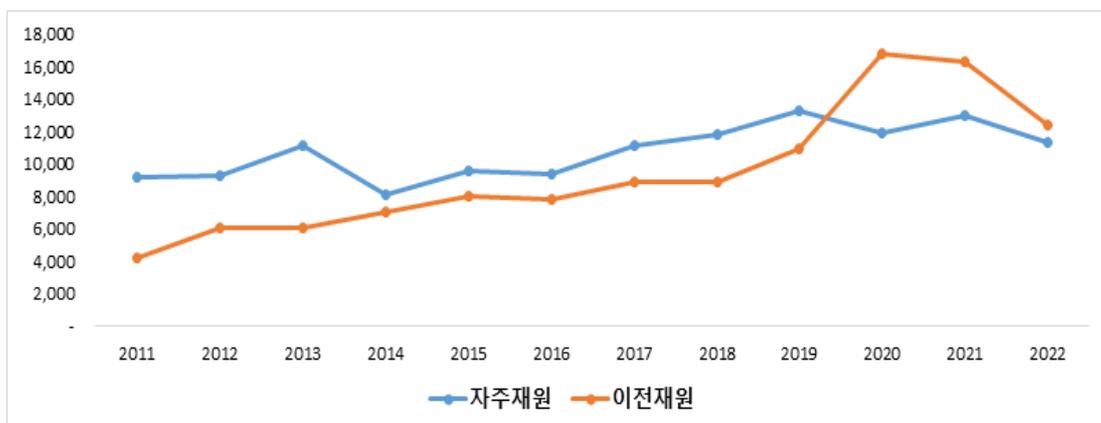
2) 상급기관의 일방적 정책 추진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분권을 통한 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세출분권 위주의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악화
 -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보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상급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주어 계획적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 꼬리표가 붙어 있는 보조금(국·도비)의 증가에 따른 의무적 매칭 부담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음

- 재정규모는 팽창하나 이전재원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5% 증가에 그침
 - 이전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0% 증가
 -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의 확대가 이루어진 2019년부터 크게 증가
 - 코로나19 대응 재난소득 지원 등으로 2020년 들어 이전재원이 자주재원을 상회

〈그림 4-7〉 수원시 자주재원 및 이전재원 변화 추세

(단위: 억원)



〈표 4-8〉 수원시 자주재원 및 이전재원 변화 추세

(단위: 억원, %)

구분	자주재원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합계	자주재원 비중	이전재원 비중
2011	9,147	4,200			13,347	68.53	31.47
2012	9,304	6,063			15,367	60.55	39.45
2013	11,151	6,029			17,180	64.91	35.09
2014	8,125	7,079	210	2,761	18,175	44.70	38.95
2015	9,583	8,021	317	2,248	20,169	47.51	39.77
2016	9,392	7,839	450	3,747	21,428	43.83	36.58
2017	11,173	8,904	520	2,707	23,304	47.94	38.21
2018	11,804	8,911	701	3,884	25,300	46.66	35.22
2019	13,326	10,912	940	4,321	29,499	45.17	36.99
2020	11,960	16,774	1,042	4,976	34,752	34.42	48.27
2021	12,938	16,271	339	2,085	31,633	40.90	51.44
2022	11,364	12,397		1,956	25,717	44.19	48.21

주1: 2020년까지 결산, 2021년은 최종, 2022년은 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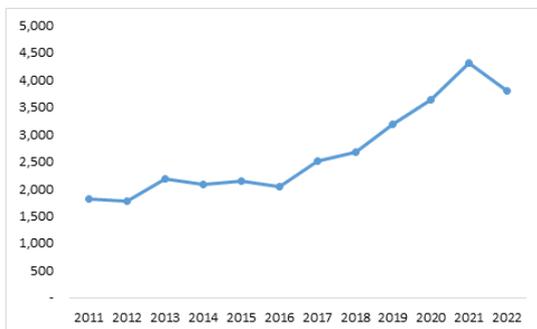
주2: 순수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비교를 위해 지방채와 보전수입은 자주재원에 미포함

■ 사회복지 및 국·도비 매칭 부담 증가로 재정탄력성 제약

-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 증가와 상급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재정악화 가속
 - 최근 10년간 국·도비 매칭 10.4%(2,539억원), 사회복지비 15.1%(1조 47억원) 증가
 - 특히 3무(無) 복지(보육, 기초연금, 급식)의 시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 등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
 - 자주재원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액이 더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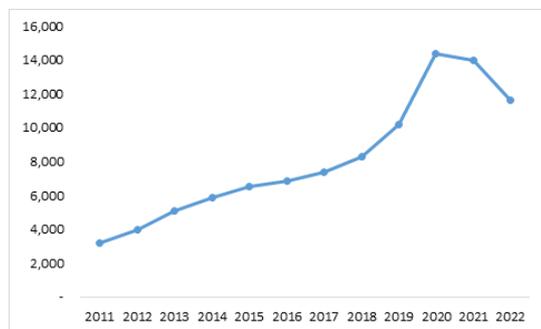
〈그림 4-8〉 국·도비 매칭 부담

(단위: 억원)



〈그림 4-9〉 사회복지비 부담

(단위: 억원)



〈표 4-9〉 수원시 의무부담 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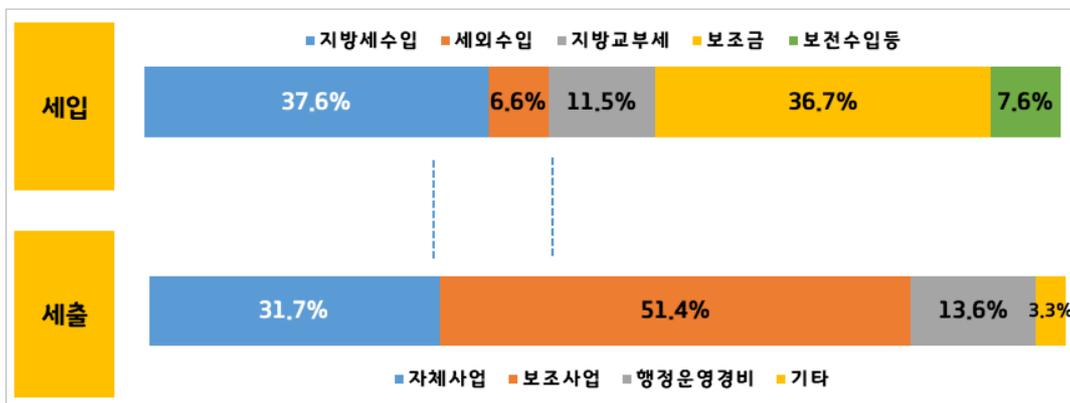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국·도비 매칭	사회복지비	합계
2011	1,805	3,210	5,015
2012	1,774	3,931	5,705
2013	2,180	5,054	7,234
2014	2,077	5,853	7,930
2015	2,137	6,526	8,663
2016	2,037	6,855	8,892
2017	2,500	7,393	9,893
2018	2,681	8,280	10,961
2019	3,175	10,185	13,360
2020	3,630	14,370	18,000
2021	4,313	13,978	18,291
2022	3,803	11,645	15,448
연평균 증감률	7.01	12.43	10.77
12년 대비	1,998	8,435	10,433

주: 최종예산 기준, 22년은 당초예산 기준

- 이전재원에 대한 의무매칭 증가로 세입과 세출의 부담 괴리
 - 수원시가 시민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순수 자주재원의 비중은 44.2%
 - 자주재원 : 지방세 9,662억원(37.6%), 세외수입 1,702억원(6.6%)
 - 수원시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국·도비보조금은 36.7%
 - 그러나, 세출에서 수원시는 시민을 위해 31.7%만 투입하는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는 12.5% 만큼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등 세입과 세출의 부담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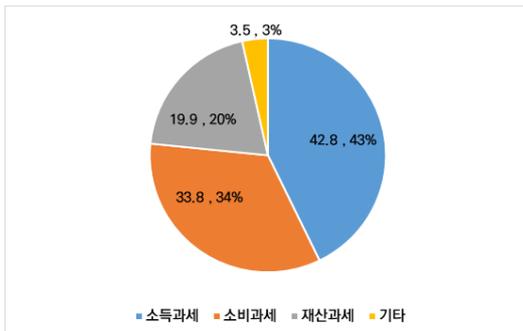
〈그림 4-10〉 세입 부담과 세출 편익의 괴리



3) 신장률과 통제가능성이 낮은 지방세 구조

- 바람직한 조세 조건은 신장성이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국부 증가 방향으로 재정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국세는 소득 및 소비과세 등 신장성이 예상되는 세목 비중이 76.6%인 반면 지방세는 45.1%밖에 되지 못함.
- 지방세 중 시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자동차, 주택, 생활 등 보유 및 주거 등에 따른 재산과세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음
 - 지방세 세목의 신설, 세율 조정 등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으로 통제가능성 낮음
 - 법률유보 원칙에 의해 세목의 변경, 신설 등의 권한이 전적으로 국회에 부여되어 통제력이 매우 낮음
 - 일본의 경우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헌법 개정의 과정이 필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금지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림 4-11〉 국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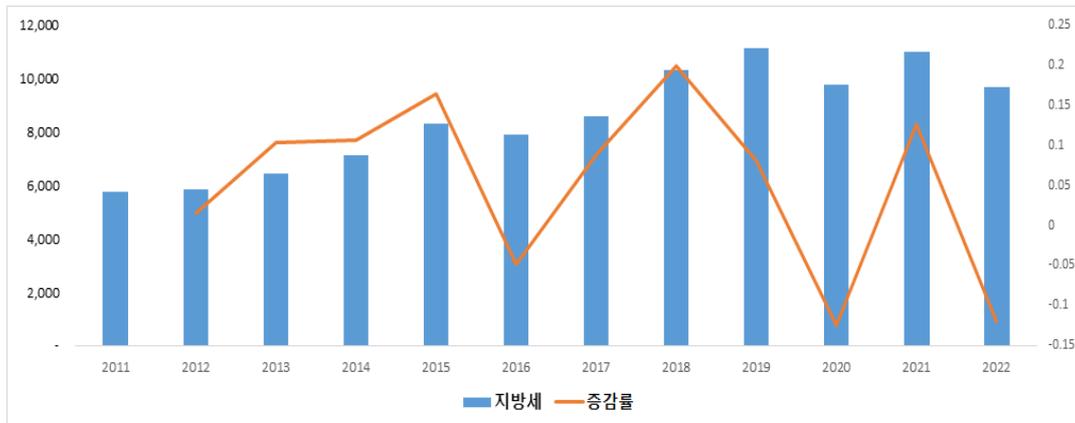
〈그림 4-12〉 지방세 구조



- 수원시 인구 변동과 기초자치단체 세목 여건상 정채·감소 단계 진입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6.7%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3년간(2019, 2020, 2021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0.7%에 그침
 - 반도체 경기 급감 및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라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2.4% 감소

〈그림 4-13〉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추세

(단위: 억원, %)



〈표 4-10〉 수원시 지방세 증감 추세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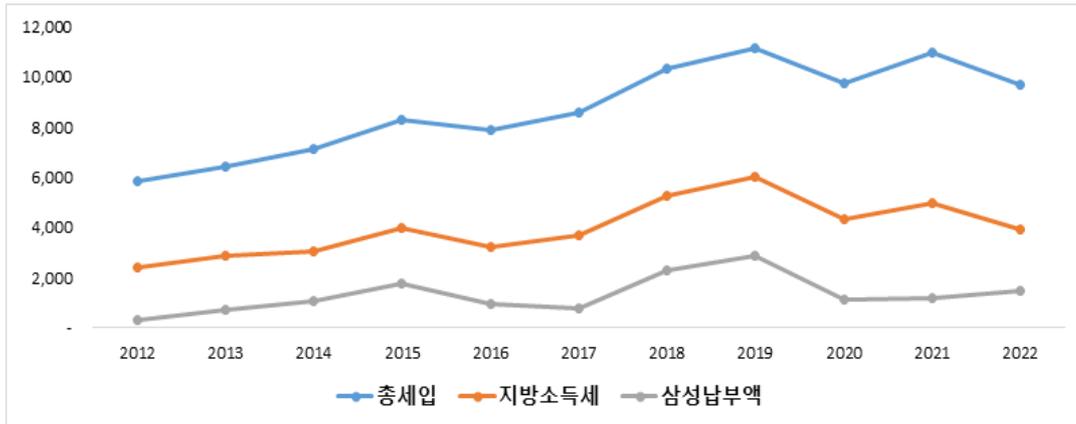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5,759	6,447	8,298	8,592	10,297	11,117	9,740	10,970	9,662
증감률		10.28	16.37	8.81	19.84	7.96	-12.39	12.63	-11.92

주: 2020년까지 결산, 2021년은 최종, 2022년은 당초

- 수원시가 통제하기 힘든 세목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재정 계획성 하락
 - 2022년 본예산 기준 지방소득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78%
 - 지방소득세 총액에서 삼성전자 법인소득세 기여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38.07%로 특정 세입의 과도한 기여는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수원시의 노력 여하와 관련성이 낮다는 점에서 우려가 따름
 - 2019년의 경우 삼성전자의 기여율은 47.4%에 육박함

〈그림 4-14〉 수원시 세입 중 지방소득세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

(단위: 억원)



〈표 4-11〉 삼성전자 기여분이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지방세총액 (A)	지방소득세 (B)	삼성전자 기여분(C)	지방소득세 비중 (B/A)×100	지방세에서 삼성기여비중 (C/A)×100	소득세에서 삼성기여비중 (C/B)×100
2012	5,846	2,408	288	41.19	4.93	11.96
2013	6,447	2,848	725	44.18	11.25	25.46
2014	7,131	3,025	1,086	42.42	15.23	35.90
2015	8,298	3,964	1,775	47.77	21.39	44.78
2016	7,896	3,195	949	40.46	12.02	29.70
2017	8,592	3,666	785	42.67	9.14	21.41
2018	10,297	5,238	2,300	50.87	22.34	43.91
2019	11,117	6,002	2,844	53.99	25.58	47.38
2020	9,740	4,307	1,103	44.22	11.32	25.61
2021	10,970	4,994	1,175	45.52	10.71	23.53
2022	9,662	3,940	1,500	40.78	15.52	3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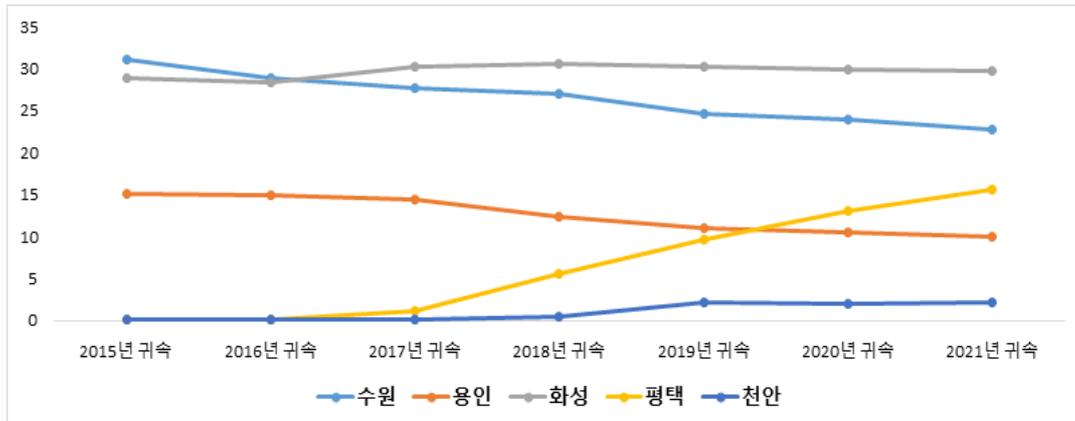
주1: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최종예산,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주2: 보전수입 제외 등으로 일부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평택, 화성 공장 확장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비율 감소
 - 2015년 수원시 안분비율은 31.12%였으나 2021년에는 22.81%로 8.31%p 감소
 - 평택캠퍼스 (P1·P2 완공, P3 22년 하반기 완공 예정, P4~P6 예정) 공장건설에 따른 삼성전자의 사업장 역외 유출로 안분비율 지속 감소 예상
 - 평택은 15.61%p, 화성은 0.95%p, 천안은 2.01%p만큼 안분비율 상승

〈그림 4-15〉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추세

(단위: %)



〈표 4-12〉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추세

(단위: %)

구분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천안
2015년 귀속	31.12	15.01	28.86	0.05	0.13
2016년 귀속	28.92	14.92	28.37	0.05	0.12
2017년 귀속	27.72	14.36	30.26	1.18	0.14
2018년 귀속	26.98	12.35	30.67	5.48	0.49
2019년 귀속	24.71	11.06	30.26	9.58	2.17
2020년 귀속	23.91	10.53	29.84	13.03	2.05
2021년 귀속	22.81	10.01	29.81	15.66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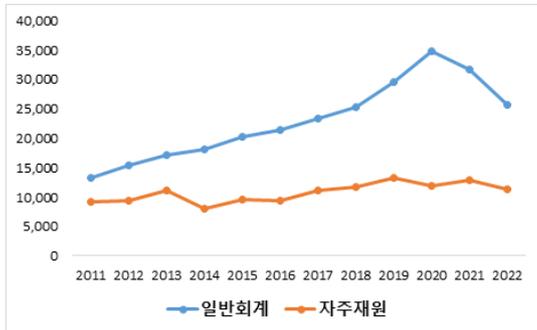
주 : 매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1년 안분비율은 추정자료이므로 최종결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재정 운용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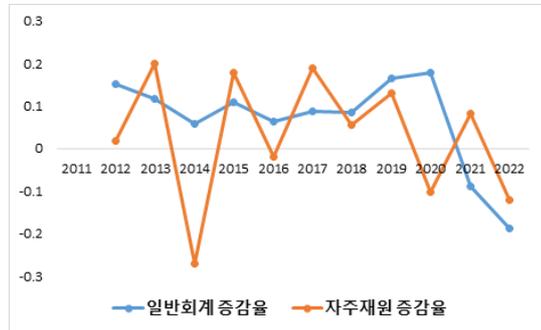
1) 균형 예산 미준수

-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 세입-세출 균형 미준수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주재원 증가율은 3.53%인 반면, 일반회계 세출 증가율은 9.01%
 - 세출 총량 증가율이 세입 총량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재정압박을 불러오게 됨
 - 이전재원과 자주재원의 증가율을 합산할 경우도 평균 증가율은 8.15% 수준임
 - 이전재원의 최근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50% 수준

〈그림 4-16〉 일반회계 세출 총액과 자주재원 추세 (단위: 억원)



〈그림 4-17〉 일반회계 세출 총액과 자주재원 증감 추세 (단위: %)



〈표 4-13〉 연도별 일반회계 및 자주재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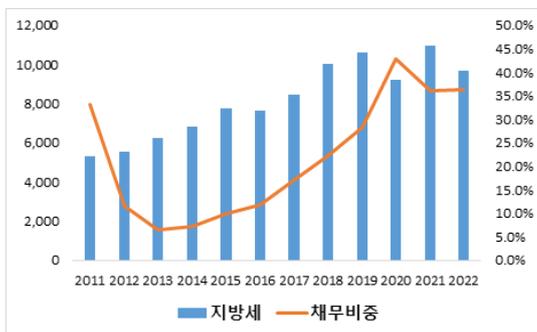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일반회계	13,347	15,366	18,176	21,429	25,300	34,753	31,633	25,718	9.01
자주재원	9,147	9,304	8,125	9,392	11,804	11,960	12,938	11,364	3.53
일반회계 증감률		15.13	5.80	6.24	8.57	17.81	-8.98	-18.70	
자주재원 증감률		1.72	-27.14	-1.99	5.65	-10.25	8.18	-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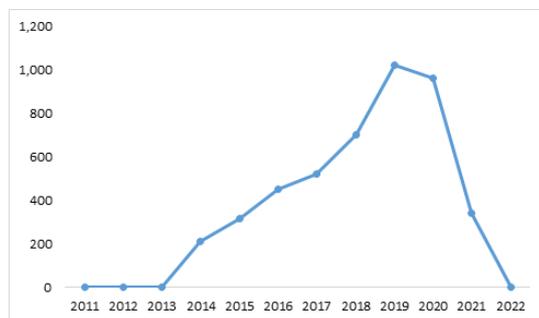
- 총 세출 증가를 억제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됨
 - 재정규모를 고려할 시, 수원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수준은 아님
 - 2022년 발행계획 기준 지방채 규모는 3,520억원, 일반회계 대비 13.7%, 지방세 대비 36.4% 수준임

- 그러나,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세입이 증가됨에도 지방채를 추가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전략적 재정투입이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음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 말 채무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8.38% 수준이며,
 - 2017년과 2018년 재정상황이 가장 호전된 시기에도 520억원과 701억원의 지방채 발행
 - 2020년 결산 기준 유사자치단체 중 지방채를 발행한 자치단체는 성남시뿐이며, 채무 규모는 1,600억원으로 수원시에 비해 매우 적음

〈그림 4-18〉 지방세 대비 채무 비중 추세
(단위: 억원)



〈그림 4-19〉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추세
(단위: 억원)



〈표 4-14〉 연도별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추세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지방채발행	0	0	317	520	1,020	962	339	0	
연도말채무	1,772	409	768	1,451	3,022	3,954	3,964	3,520	8.38
일반회계	13,347	17,180	20,170	23,304	29,498	34,753	31,633	25,718	9.01
지방세	5,322	6,231	7,780	8,461	10,630	9,200	10,970	9,662	7.50
채무비중	33.3	6.6	9.9	17.1	28.4	43.0	36.1	36.4	0.82
일반회계 대비	13.3	2.4	3.8	6.2	10.2	11.4	12.5	13.7	
지방세 대비	33.3	6.6	9.9	17.1	28.4	43.0	36.1	36.4	

〈표 4-15〉 2022년 기준 지방채 발행 세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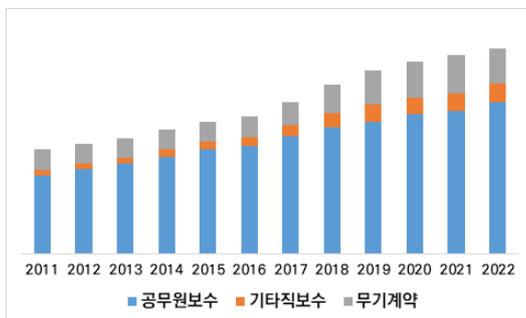
(단위: 건, 억원)

구 분	발행건수	발행액	기상환액 (원리금)	채무액(2022년말 기준)			
				계	원 금	이 자	
계	62	4,168	1,071	3,520	3,334	186	
지하철건설	소 계	7	1,022	453	691	660	31
	수인선 지하화	7	1,022	453	691	660	31
교통	소 계	5	177	81	117	111	6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1	57	54	12	11	1
	팔달경찰서 공공공지 도로개설	2	50	1	53	50	3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1	30	15	19	18	1
	녹색교통회관 건립	1	40	11	33	32	1
공원녹지	소 계	28	1,654	386	1,453	1,377	76
	만석공원 조성	4	120	73	62	60	2
	인계3호공원 조성	3	196	140	81	78	3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	3	80	40	50	48	2
	일월공원 조성	4	310	54	293	278	15
	영화공원 조성	1	20	6	17	16	1
	숙지공원 조성	4	347	44	339	321	18
	조원공원 조성	3	285	17	297	280	17
	노송공원 조성	1	116	3	123	116	7
	수원수목원 조성	3	115	5	122	115	7
	지지대공원 조성	2	65	4	69	65	4
문화체육관광	소 계	5	222	99	148	141	7
	수원야구장 리모델링(2단계)	1	44	31	18	17	1
	매탄동도서관 건립	1	30	15	19	18	1
	유스호스텔 조성	2	118	52	79	76	3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1	30	1	32	30	2
사회복지	소 계	8	352	44	343	323	20
	연화장 시설개선	3	176	4	188	176	12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2	50	25	31	30	1
	마음건강치유센터 조성	1	46	13	39	37	2
	사회복지타운 건립	2	80	2	85	80	5
기 타	소 계	9	741	52	768	722	46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	531	20	566	532	34
	시민안전체험관	1	30	2	31	30	1
	드론 및 로봇산업 육성 조성	1	100	28	84	80	4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2	80	2	87	8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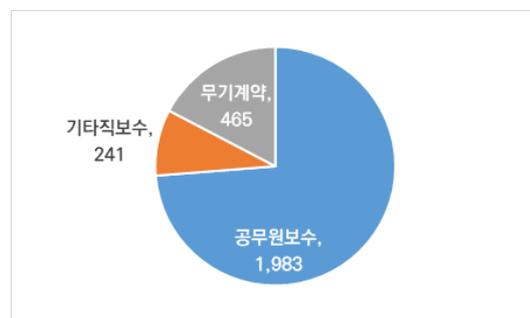
2) 정원 확대,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 공무원 인건비 중 기타직과 무기계약직 인건비의 가파른 증가
 - 공무원 인건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6.2% 증가한 반면, 기타직 보수는 11.9%, 무기계약직은 6.6%가 증가함
 - 2022년 현재 전체 인건비 2,689억원 중 공무원 보수가 1,983억원으로 73.7%, 기타직이 241억원으로 9.0%, 무기계약직이 465억원으로 17.3% 차지

〈그림 4-20〉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추세
(단위: 억원)



〈그림 4-21〉 2022년 기준 종별 인건비 현황
(단위: 억원)



〈표 4-16〉 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추세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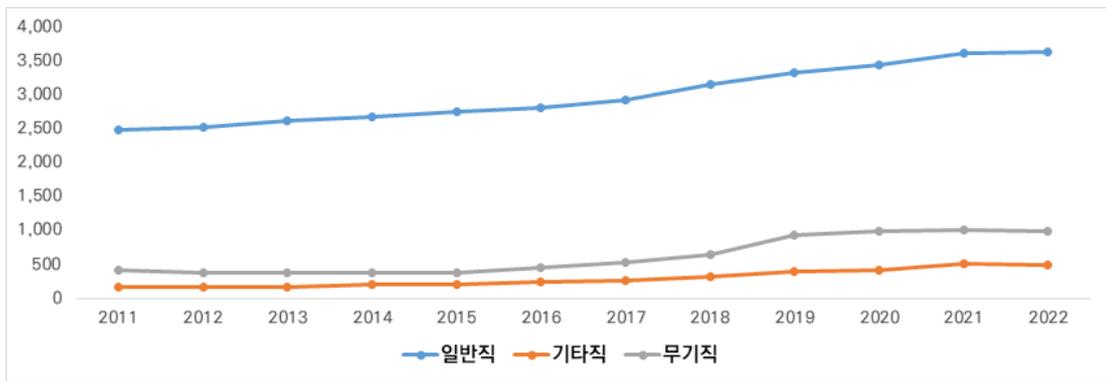
구분	합계	공무원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
2011	1,367	1,025	76	266
2012	1,436	1,108	77	251
2013	1,511	1,178	82	251
2014	1,626	1,268	95	263
2015	1,725	1,372	104	249
2016	1,801	1,406	125	270
2017	1,992	1,542	149	301
2018	2,214	1,652	197	365
2019	2,405	1,724	232	449
2020	2,517	1,827	215	475
2021	2,608	1,869	233	506
2022	2,689	1,983	241	465
연평균 증감률	6.7	6.2	11.9	6.6

주 : 2021년까지는 최종예산 기준, 2022년은 당초예산 기준

- 공무원 인건비 증가 주요 원인은 공무원 수 증원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수는 2011년 3,066명에서 2022년 현재 5,115명으로 연평균 4.76% 증가함
 - 12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일반직 공무원(3.87%), 기타직(11.74%), 무기계약직(9.11%)
- 매년 조직 및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수가 증가되었고, 특히 2016년 이후부터 무기계약직의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짐
 - 2018년 이후부터는 공무직 전환 등에 따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

〈그림 4-22〉 연도별 공무원 종별 추세

(단위: 명)



〈표 4-17〉 연도별 공무원 현원 증가 내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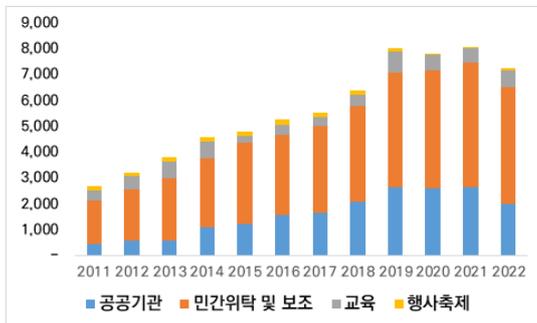
구분	합계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정원 및 조직 증가
2011	3,066	2,474	170	422	34명 ↑ (서울사무소신설, 사회복지직 증원)
2012	3,064	2,527	164	373	60명 ↑ (365만원담당관, 녹지사업소 신설)
2013	3,150	2,609	172	369	72명 ↑ (기획조정실, 장애인복지과 등 신설)
2014	3,256	2,679	200	377	59명 ↑ (도서관사업소정비, 광교동분동)
2015	3,345	2,750	214	381	89명 ↑ (감염병관리팀, 금호동분동)
2016	3,495	2,804	241	450	32명 ↑ (도로교통관리, 사업소 신설)
2017	3,717	2,916	268	533	151명 ↑ (언론담당관, 영통3동 신설)
2018	4,123	3,152	330	641	247명 ↑ (농업기술센터, 미술관사업소 등)
2019	4,669	3,335	395	939	160명 ↑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등)
2020	4,849	3,445	422	982	121명 ↑ (복지기획팀, 여권팀신설)
2021	5,142	3,617	516	1,009	183명 ↑ (스마트도시과, 건강관리과, 아동보호팀 등 신설)
2022	5,115	3,633	494	988	58명 ↑ (군소음총괄과, 청소년안전망팀 등 신설)
연평균 증감률	5.31	3.87	11.74	9.11	

주: 2021년까지는 연말, 2022년은 5월초 기준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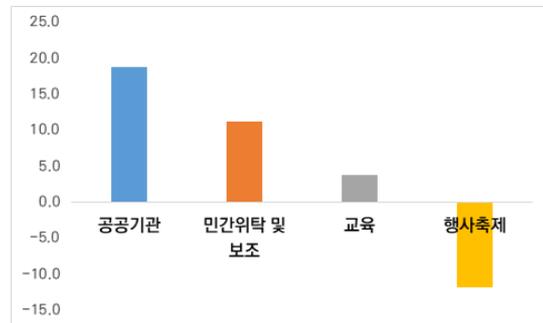
3) 준정부기관, 민간위탁 등 확대에 따른 경상적 경비 증가

- 매년 대규모 지속적 경비의 지출을 요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 사업, 공공기관 등이 증가함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전출금, 민간위탁 및 보조 등 경상적 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수원시 일반회계 증가율인 9.01%를 초과함
 - 최근 11년간 공공기관 전출금 연평균 18.9% 증가, 민간위탁·보조사업 연평균 11.3% 증가, 교육지원 연평균 3.8% 증가
 - 행사·축제 사업은 「행사성사업 감축계획(2018.11)」에 따른 감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 등으로 연평균 11.8% 감소

〈그림 4-23〉 연도별 주요 경상비 증가 추세
(단위: 억원)



〈그림 4-24〉 종별 연평균 증감률
(단위: %)



〈표 4-18〉 연도별 주요 경상비 증가 내역

구분	합계	공공기관 등	민간위탁 등	교육	행사축제
2011	2,689	468	1,658	394	169
2012	3,224	568	2,013	501	142
2013	3,801	603	2,415	619	164
2014	4,597	1,116	2,671	644	166
2015	4,811	1,247	3,113	265	186
2016	5,269	1,580	3,101	388	200
2017	5,546	1,646	3,382	344	174
2018	6,397	2,099	3,707	429	162
2019	8,039	2,635	4,444	832	128
2020	7,840	2,601	4,573	607	59
2021	8,083	2,636	4,826	573	48
2022	7,270	2,019	4,491	664	96
연평균 증감률	11.6	18.9	11.3	3.8	-11.8

주: 수원시 내부 자료

〈표 4-19〉 분야 · 통계목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통계목	예산액	비중
공공기관	공사·공단전출금	61	3.0
	출연금	690	34.2
	공기관위탁사업	1,166	57.8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02	5.1
민간위탁 및 보조	민간위탁금	1,680	37.4
	민간경상사업	275	6.1
	민간단체법정운영비	70	1.6
	민간자본사업	437	9.7
	사회복지사업보조	1,068	23.8
	사회복지법정운영비	961	21.4
교육	자체지원	656	98.8
	국·도비보조	8	1.2
행사축제	행사운영비	37	38.5
	행사실비지원금	5	5.2
	행사관련시설비	3	3.1
	민간행사사업보조	51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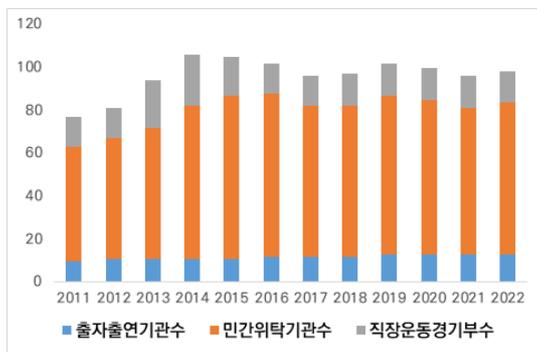
주: 수원시 내부 자료

- 위탁·대행·보조 사업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정 및 행정 운영의 효율을 위한 수단이나, 현재는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변화
 - 위탁·대행·보조사업은 사회의 복잡화와 다원화 그리고 시민의 요구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행정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수원시의 위탁·대행·보조사업은 다음의 문제점을 노정함
 - ① 관행성(사업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지속되는 경우로 재원 잠식)
 - ② 유사성(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소규모 사업 진행으로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 곤란)
 - ③ 중복성(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대행·보조 사업의 중복으로 재원 잠식)
 - ④ 불필요성(공무원이 시행 가능한 사업들로, 공무원은 대행사업을 관리하는 역할만 담당)
- 대규모 경상적 경비의 증가 이유는 기관수, 인력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결과임
 - 출자·출연, 민간위탁 등 기관수 11년간 연평균 2.2% 증가
 - 출자·출연, 민간위탁 등 기관 인력수 11년간 연평균 9.1% 증가
 - 출자·출연, 민간위탁 등 기관 인건비 11년간 연평균 14.8% 증가

-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등 기관수는 매년 증감을 거듭하여 2011년 77개 대비 2022년에 98개 기관으로 총 21개 기관이 증가하였음
 - 출자·출연기관 2011년 10개에서 2022년 13개로 3개 기관 증가
 - 민간위탁기관 2011년 53개에서 2022년 71개로 18개 기관 증가
 - 직장운동경기부 2011년 14개에서 2022년 14개로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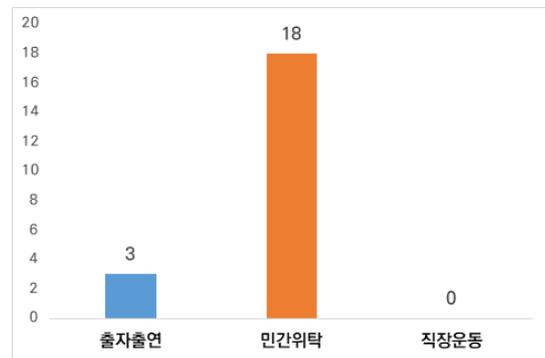
〈그림 4-29〉 주요경상비 증가요인(기관수)

(단위: 개)



〈그림 4-30〉 2011년 대비 2022년 변화(기관수)

(단위: 개)



- 출자·출연, 민간위탁에 더해 직영기관의 급증도 운영비 등의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2년부터 직영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증가된 기관 내에서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기능별로 살펴보면, 도서관과 체육시설, 박물관, 문화공간 등에 대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 수원시 인구 또는 유사자치단체 대비 과도한 수준의 도서관, 박물관 건립 등은 지속적인 경상경비의 증가를 불러옴
 - 반면, 중·장기적으로 재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자본적 지출과 도시 기반시설 (도로,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지 않음

〈표 4-20〉 연도별 주요 재산 취득 현황

범례: 직영 ———— 출자·출연 ———— 민간위탁 ————

구분	주요 취득 시설
2010	매탄공원체육시설, 권선동청소년수련관, SK청솔노인복지관, 꽃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2011	육아종합지원센터
2012	태장마루도서관, 하천유역네트워크, 노숙인실내급식시설, 권선구노인회지회
2013	에스케이아트리움, 전통식생활체험관, 행궁동주민커뮤니티,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광교노인복지관), 종합자원봉사센터, 시립서호·세곡·지방, 산업단지어린이집, 여기산게이트볼장
2014	대추골, 버드내, 한림, 창룡, 광고홍재도서관, 광고박물관, 권선구노인회지회, 밤밭노인복지관, 보훈회관, 고색향토전시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호매실장애인복지관
2015	호매실, 복수원, 일월, 인도래도서관, 아이파크미술관, 영통체육문화센터, 창룡마을창작센터, 국민체육센터, 수원시예절교육관, 예술인의 집, 송죽주민행복쉼터, 금호어린이집,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해우재문화센터, 광고씨름연습장
2016	화서다산도서관, 로컬푸드직매장 더함파크, 화서문앞공공한옥, 칠보체육관,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장애인실내게이트볼장
2017	고색뉴지움, 권선동커뮤니티센터, 연무동공영주차장, 벌터체육문화센터, 칠보청소년문화의집, 한옥기술전시관, 화홍문 공공한옥, 수원시양궁장
2018	매여울도서관, 영화동복합문화공간, 유스호스텔,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매산동커뮤니티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장안사랑채, 팔달구노인복지회관, 바론어린이집
2019	광고푸른숲·망포글빛도서관, 호수공원전망대, 동물보호센터, 만석공원게이트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원컨벤션센터, 천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달보듬터, 청소년희망등대
2020	골목상권교류센터(세류2동 도시재생), 행궁동 마을사랑방, 행궁동 어울림센터, 광고웰빙국민체육센터,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세일공영주차장,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2021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거점공간
2022	팔달문화센터, 광고복합체육센터, 팔달구청·화성박물관 공영주차장(매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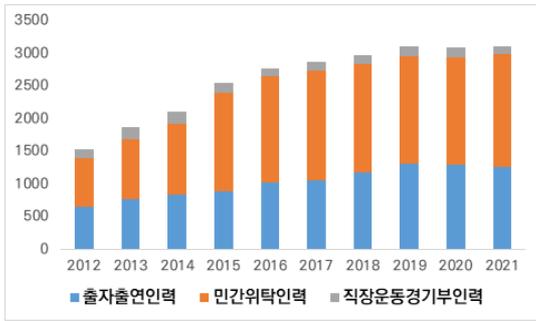
주: 수원시 내부 자료

-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523명에서 2022년 3,189명으로 총 1,666명이 증가하였음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근무 직원의 수는 연평균 8.2%가 증가하는 등 공무원 전체 증가율 5.9%를 초과하는 수준
 - 출자·출연기관 2012년 645명에서 2022년 1,275명으로 630명 증가
 - 민간위탁기관 2012년 750명에서 2022년 1,792명으로 1,042명 증가

- 직장운동경기부는 2012년 128명에서 2020년 144명으로 16명이 증가하였으나,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2022년 122명으로 6명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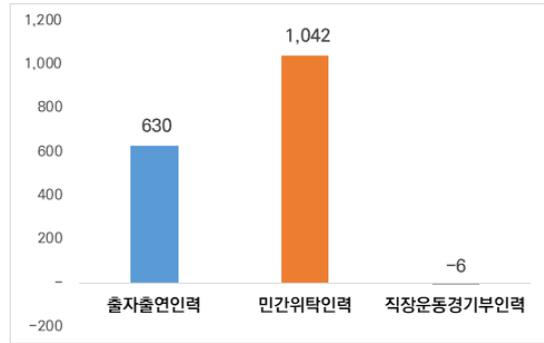
〈그림 4-31〉 주요 경상비 증가요인(인력)

(단위: 명)



〈그림 4-32〉 2011년 대비 2022년 변화(인력)

(단위: 명)



-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기관수와 인력 증가에 따라 인건비도 2012년 499억원에서 2022년 1,836억원으로 총 1,337억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10년간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기관의 인건비는 연평균 14.4%가 증가하는 등 공무원 전체 인건비 증가율 6.9%를 초과하는 수준
 - 출자·출연기관 2012년 184억원에서 2022년 748억원으로 564억원 증가
 - 민간위탁기관 2012년 254억원에서 2022년 1,008억원으로 754억원 증가
 - 직장운동경기부 2012년 61억원에서 2022년 80억원으로 19억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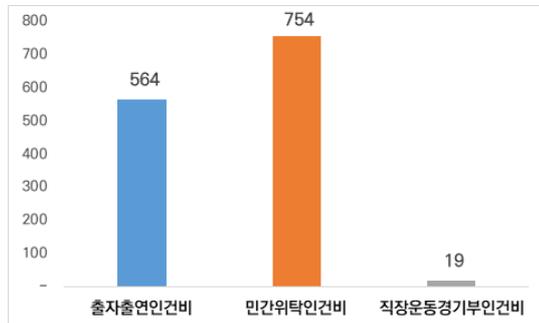
〈그림 4-33〉 주요 경상비 증가요인(인건비)

(단위: 억원)



〈그림 4-34〉 2011년 대비 2022년 변화(인건비)

(단위: 억원)



〈표 4-21〉 연도별 출자·출연, 민간위탁, 직장운동경기부 기관수, 인력, 인건비 추세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22년 -'11년
출자 출연	기관수	10	11	11	12	13	13	13	13	2.7	3
	인력	468	763	893	1,057	1,307	1,292	1,257	1,275	10.4	807
	인건비	143	233	304	453	601	627	658	748	16.5	605
민간 위탁	기관수	53	61	76	70	74	72	68	71	2.5	18
	인력	700	923	1,505	1,680	1,657	1,650	1,728	1,792	9.5	1,092
	인건비	220	324	607	694	813	870	932	1,008	15.5	788
직장 운동 경기부	기관수	14	22	18	14	15	15	15	14	0.7	-
	인력	136	188	144	127	149	144	123	122	-1.0	-14
	인건비	59	83	71	71	81	84	81	80	3.2	21

주: 수원시 내부 자료

3. 2022년 수원시 재정여건 요약

- 재정규모의 확대와 경상경비의 동반 증가로 재정여력이 제약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2조 5,717억원 중 자체 투자사업은 8.2% 수준
 - 투자사업은 연차별 지속추진 사업 및 일상적 유지관리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은 거의 제로(zero)인 상황
 - 반면, 국·도비보조사업은 1조 3,314억원으로 51.8%를 차지하고, 경상사업은 5,849억원으로 22.7%를 차지하는 등 재정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표 4-22〉 수원시 일반회계 자원 배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계	경상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	예비비	자체 투자사업
배분액	25,717	5,849	13,314	850	3,411	188	2,105
비중	100.0	22.7	51.8	3.3	13.3	0.7	8.2

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양분 후,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위 표의 투자사업 배분액은 자체재원 투자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 최근 11년간 투자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1% 수준
 - 최근 11년간 일반회계 연평균 증가율 9.01% 대비 매우 더딘 수준의 증가
 -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세입이 풍족했던 2018년~2020년을 정점으로 투자재원 감소 추세이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여력 제약
 - 인건비, 출연금, 민간위탁,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는 최근 10년간 10.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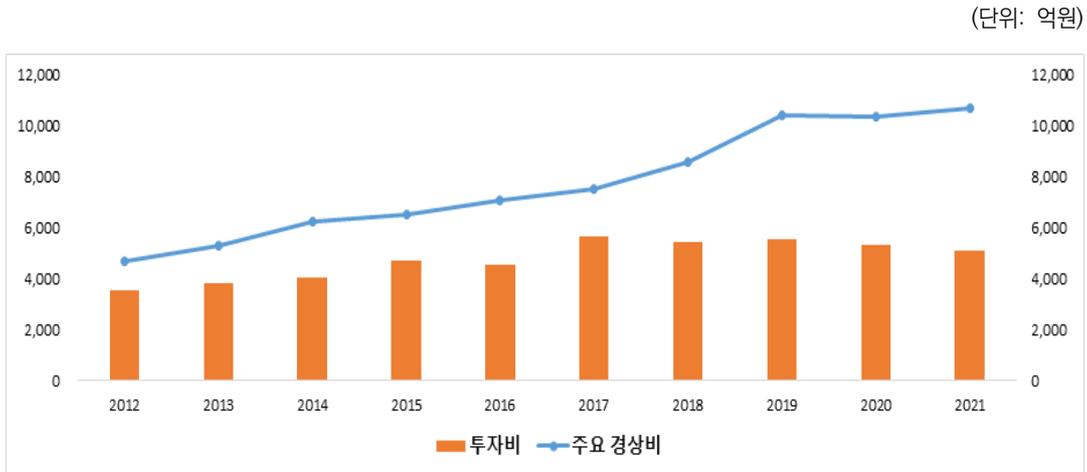
〈표 4-23〉 연도별 일반회계 경상비 및 투자비 추세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주요경상비	4,056	5,312	6,536	7,538	10,444	10,357	10,691	9,959	10.2
투자비	3,101	3,813	4,729	5,682	5,553	5,346	5,123	3,231	5.1

주: 주요 경상비는 인건비, 공공기관 전출금, 교육지원비, 행사 축제, 민간위탁의 합산 / 투자비는 자본지출,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의 합

〈그림 4-35〉 연도별 일반회계 경상비와 투자비 추세



제2절 민선 8기 수원시 재정여건 및 전망

1. 분석의 전제

- 수원시의 재정전망은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며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본 원칙 중 제1의 원칙은 수지 균형에 있음
 - 양입제출의 속성을 갖는 자치단체 재정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는 곧 재정위기 단체로 전환되어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예측이 이루어져야 함
 - 세입 측면과 더불어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의 부담임
 - 세입의 증가 속도에 비해 경상경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클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정전망 부분에서는 경상적 경비와 중기재정계획상 계획되거나 또는 투자심사제도를 사전에 이행하여 계속비적 성격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세입의 특징과 분석의 전제는 세목의 구성과 인구를 들 수 있음
 - 지방세는 세목 구조가 국세와 비교해 재산 및 거래 과세 중심으로 구성됨
 - 일반적으로 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중심의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과세의 비중이 큼
 - 거래 및 보유과세 중심 세입 구조는 자치단체의 경제여력과 인구수에 크게 의존하게 됨
 -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의 일정 부분임
 -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납세의무인데, 인구가 많을수록 납세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특징을 가짐. 여기에 더해 인구를 유입시키는 요인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짐
 - 여기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해 예를 들면 지역의 소득, 소비수준, 사회 서비스 수준, 교육 및 금융 서비스 수준 등을 들 수 있는데, 인구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1차적 세입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인구유입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의 확대는 2차적 세입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됨.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이 역시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또는 자동차의 고급화에 대해 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입의 증가가 발생됨.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유입은 과세대상을 증가시킴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 역시 고급 자동차를 구매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세입의 증가요인이 됨.

- 세입에 대한 예측은 자주재원에 더해 이전재원까지 고려해야 함. 자주재원은 인구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추정을 하고자 하며, 이전재원도 현재의 이전되는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추진함.
- 세출에 대한 여건 판단은 세입 측면보다 더욱 정확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세출에 대한 판단은 중기재정계획상 기준과 투자심사시 활용하는 가용재원 등이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 현실에 있어 형해화 되는 경우가 많고 타당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투자심사시 활용하는 가용재원도 투자심사를 용이하게 통과하기 위해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강함.
 - 따라서 수원시 세출에 대한 판단은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상 및 투자사업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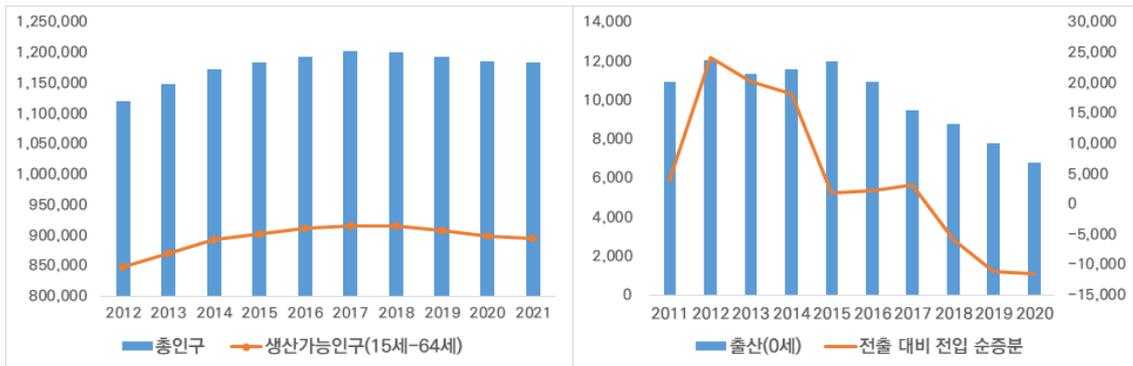
2. 세입 측면

- 인구 충격 본격화 등 구조적 한계는 수원시의 잠재적 위협 요소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수원시 총인구는 연평균 0.85% 증가
 - 인구증가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 2018년부터는 마이너스(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관내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약화
 -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총 인구의 75.7% 수준으로 총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라 함께 감소
 - 신생아 출산은 2012년 12,098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 신생아 출산은 2015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4.90% 감소
 - 공공주택 개발 등에 의해 발생한 인구유출도 성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전입 대비 전출비(전입자-전출자)도 2012년 24,248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 2018년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았고, 2019년에는 전출자 대비 전입자 감소 폭이 2배가량으로 크게 증가

〈그림 4-36〉 수원시 인구 총량 및 생산가능 인구 변화 〈그림 4-37〉 수원시 출산 및 전입·전출 현황

(단위: 명)

(단위: 명)



〈표 4-24〉 수원시 연도별 인구 변화 실태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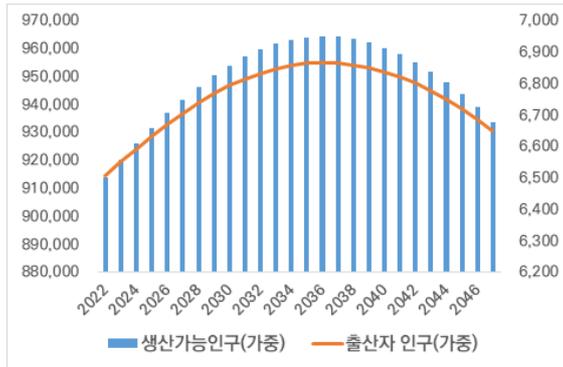
구분	총인구	총인구 증감률	생산가능 인구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 인구비중	전입 (A)	전출 (B)	출산(0세)	전출 대비 전입 순증분 (A-B)
2011	1,088	1.02	824	75.71	202	198	11	4
2012	1,120	2.92	850	75.83	200	176	12	24
2013	1,148	2.49	872	75.98	196	175	11	21
2014	1,174	2.27	894	76.11	196	178	12	18
2015	1,185	0.89	904	76.31	190	188	12	2
2016	1,194	0.79	913	76.49	172	170	11	2
2017	1,203	0.72	917	76.28	177	174	9	3
2018	1,201	-0.12	916	76.28	188	194	9	-6
2019	1,194	-0.56	910	76.15	173	184	8	-11
2020	1,186	-0.70	900	75.85	168	180	7	-12
2021	1,184	-0.20	896	75.73	183	185	-	-2
연평균 증감률	0.85		0.84	0.00	-0.98	-0.68	-4.90	

자료: 통계청 인구 통계 각 년도

- 2047년까지 인구 규모 추계 결과, 2037년까지 연평균 0.40%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38년부터 연평균 Δ 0.35%의 증가율을 보임
 -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인구 충격이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늦게 오기는 하지만 인구 절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임
 - 지방세 중 기초자치단체 세입은 인두세적 성격이 매우 강한 만큼, 인구 감소 또는 인구증가율 하락은 수원시 지방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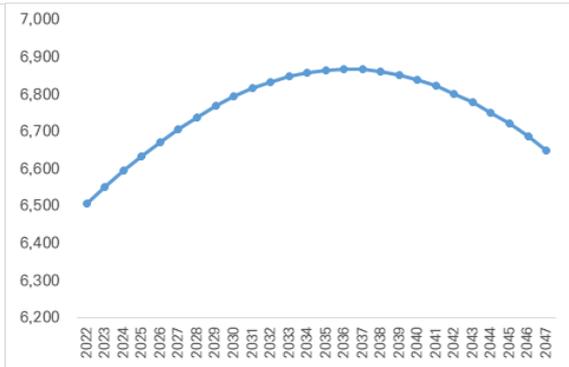
〈그림 4-38〉 수원시 인구 총량 및 생산가능 인구 변화 예측

(단위: 명)



〈그림 4-39〉 신생아 출산 예측

(단위: 명)



〈수원시 장래 인구 추계 방법〉

- ① 인구자료 : 통계청 인구자료
- ② 추계 참고 자료 :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 ③ 추계방법 : 광역단위의 추계이기 때문에 ㉠총인구는 2019년 경기도 총인구에서 수원시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 9.02%를 적용 하되, 2018년 대비 2019년 수원시가 경기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감률 $\Delta 1.78\%$ 를 가중함. ㉡생산가능 인구는 2019년 수원시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75.9%를 적용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 $\Delta 0.73\%$ 를 가중함. ㉢출생자수는 2019년 수원시 총인구에서 출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0.6%를 적용하고, 최근 10년간 평균 증감률 $\Delta 3.73\%$ 를 가중함(연평균을 적용한 이유는 매년 증감률의 편차가 총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추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충격이 자치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코로나19 장기화 및 저성장 지속,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재정 수지 악화 등에 따라 이전재원 증가 폭 둔화 예상
 -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성장은 지속 예상

〈표 4-25〉 2022년 국가재정 수지 및 채무

(단위: 조원)

구분	2022년 예산안(A)	2021년 예산(B)	증감(A-B)
◇ 재정수지	$\Delta 55.6$	$\Delta 75.4$	19.8
GDP 대비(%)	$\Delta 2.6\%$	$\Delta 3.7\%$	1.1%p
◇ 국가채무	1,068.3	956.0	112.3
GDP 대비(%)	50.2%	47.3%	2.9%p

자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22년부터 불교부단체 지위 전환에 따라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도 229억원 감소
 - 국가재정 총량의 증가율 둔화는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률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원시 교부세도 큰 폭의 증가는 예상하기 어려움

〈표 4-26〉 2022년 수원시 보통교부세 내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A)	2021(B)	(A-B)
지방교부세	8,572	31,435	△22,863

3. 세출 측면

- 국가 정책상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부담 지속 증가 예상
 - 주요 출산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은 증가
- 첫 만남이용권(출생아동당 200만원) 및 영아수당(월 30만원) 신설로 35억원의 추가 재원 부담 예상

〈표 4-27〉 주요 국비 신설사업에 따른 추가 부담액

(단위: 억원)

연도	계	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당 200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2	35	25	10

- 복지 분야 이외에도 10억원 이상 사업 중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원시가 2022년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시비는 173억원 규모

〈표 4-28〉 2022년 수원시 보통교부세 내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A)	2021년(B)	부담증가(A-B)
합계	123,210	105,890	17,320
전기자동차구매지원(국비)	6,531	1,326	5,205
기초연금지급(국비)	68,998	65,467	3,531
전기자동차구매지원(국비)	6,531	3,216	3,315
전기자동차구매지원(국비)	6,531	3,803	2,728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국비)	11,852	10,583	1,269
아동수당지급(국비)	8,460	7,909	55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국비)	2,176	1,965	211
지역아동센터운영(국비)	2,474	2,332	142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및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국비)	2,100	1,988	11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	1,114	1,009	105
장애인연금급여지급(국비)	4,266	4,205	61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국비)	1,016	968	48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화성행궁2단계복원)(국비)	1,161	1,119	42

- 민선 7기에 시작하였으나 완료되지 못한 사업과 시민 약속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 다수 존재함
- 특히 민선 8기 들어 정책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은 42개 사업에 최대 9,782억원에서 최소 6,887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4-29〉 민선 8기 정책판단 필요 사업

(단위: 억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미래소요액	
			max	min
계		42개 사업	9,782	6,889
1	교육청소년과	영통1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69	
2	체육진흥과	호매실체육센터 건립	378	
3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	53	53
4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시설 조성	13	13
5		서수원 스포츠 종합타운 조성(수원 스포츠콤플렉스)	1,450	
6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1,389	1,389
7	도시교통과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17	
8	도시개발과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사업	2,750	2,750
9	문화유산관리과	북수동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	37	37
10	문화유산시설과	남창동 136-46번지 일원 문화시설 조성	69	69
11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	147	
12	도서관정책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95	
13	생태공원과	제2호 역사공원 조성	50	50
14		영흥공원~영통중앙공원 생태육교 조성	51	
15		화양어린이공원 조성(장기미집행)	79	79
16		제40호 생태공원 조성(장기미집행)	81	81
17		영화공원 조성	89	89
18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	150	150
19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총괄)	264	264
20		고색역~수원산업단지간 중심도로 확장	65	65
21	도로관리과	신동 334-13번지선(소로1-141) 도로개설(장기미집행)	32	32
22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 우회로 도로개설(장기미집행)	40	40
23		운정로108번길 등 2개소 도로개설	32	
24		서둔로 걷고 싶은 도로개설	19	
25		당수동 소로2-1045호선 도로개설(장기미집행)	24	24
26		서둔동 소로2-592호선 도로개설(장기미집행)	20	20
27		오목천동 1165번지선 도로개설(소1-358)	56	56
28		오목천동 태산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49	
29		서둔동 소로2-697호선 도로개설(장기미집행)	34	34
30		고색동 소로3-1069호선 도로개설(장기미집행)	22	22
31		오목천동 소로3-1142호선 도로개설(장기미집행)	21	21
32		입북동 종로3-63호선 도로개설(장기미집행)	57	57
33		화산로(종로1-7,8호선) 도로개설(장기미집행)	90	90
34		상광교동 소로3-881호선 도로개설	16	16
35		평리동 199-2번지 일원 등 3개노선 도로개설	15	15
36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총괄)	1,373	1,373
37		장안행정지원과	정자2동 청사 신축	101
38	권선행정지원과	세류1동 청사 신축 ※ 보류		
39		서둔동 청사 신축 ※ 공공기여		
40		평동 청사 신축	276	
41	팔달행정지원과	지동 청사 이전 신축(문화동)	110	
42	영통행정지원과	매탄1동 청사 신축	99	

4. 수원시 재정 전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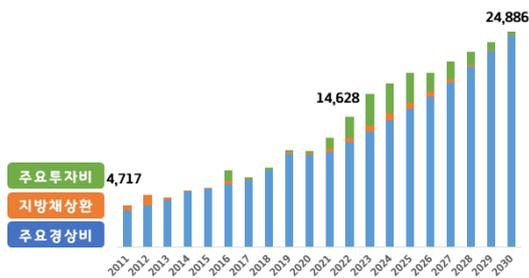
- 수원시 자주재원 증가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큰 폭으로 증가 예상
 - 수원시 세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최근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업황 변화 및 코로나 특수(SD바이오센서, 자가진단키트)로 이익을 보았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변수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큰 폭의 증가는 어려움
 - 10년간 이동평균법 적용 추계 결과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3% 증가 예상
 - 인건비, 공공기관 출연금, 민간위탁 및 보조금 등 주요 경상적 경비와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재원 및 지방채 상환 부담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10년간 이동평균법 적용 추계 결과 필요 재원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6.9%증가 예상

〈비용 도출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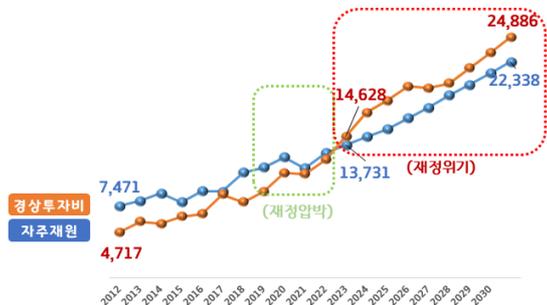
- ① 지방채 2022년부터 미발행함을 가정
- ②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재원이 2030년에 종료
- ③ 현재 주요 투자사업 외의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가정

- 2022년부터 주요 경상·투자사업비가 자주재원을 초과한 상황(재정위기 진입 위험)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전 직원 고تب담 등을 통해 2021년 재정위기로의 전환을 당장은 막아 냈지만, 주요 투자사업 및 국·도비 사업 매칭 여력 고갈 직전의 상황에 처해있음(재정위기 단계 진입 위험 상존)
 - 주요 투자(현안)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
 - 민선 7기 약속사업 중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미래 재정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촘촘한 분석과 판단 필요

〈그림 4-40〉 주요 경상비 및 대규모 투자사업 부담 예측 (단위: 억원)



〈그림 4-41〉 자주재원과 경상 투자비 부담액 (단위: 억원)



〈표 4-30〉 2022-2030 세입 세출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감률 ('22~'30)	
자주자원(A)	8,925	10,922	11,418	12,488	11,340	12,938	13,731	14,564	15,392	16,519	17,602	18,886	19,979	21,160	22,338	6.3	
주 요 경 상 비	공무원인건비	1,801	1,992	2,214	2,405	2,517	2,608	2,879	3,164	3,466	3,769	4,113	4,492	4,918	5,361	5,779	9.1
	공공기관	1,580	1,646	2,099	2,635	2,601	2,636	2,910	3,198	3,503	3,809	4,157	4,541	4,971	5,419	5,841	9.1
	민간위탁보조	3,101	3,382	3,707	4,444	4,573	4,826	5,327	5,855	6,413	6,974	7,611	8,313	9,101	9,921	10,693	9.1
	교육	388	344	429	832	607	573	632	695	761	828	904	987	1,081	1,178	1,270	9.1
	행사축제	200	174	162	128	59	48	53	58	64	69	76	83	91	99	106	9.1
	소계(C)	7,070	7,538	8,611	10,444	10,357	10,691	11,800	12,972	14,206	15,450	16,860	18,415	20,162	21,978	23,688	9.1
자주자원(A)	8,925	10,922	11,418	12,488	11,340	12,938	13,731	14,564	15,392	16,519	17,602	18,886	19,979	21,160	22,338	6.3	
필요자원(B)	8,622	7,843	8,924	10,856	10,727	12,221	14,628	17,077	18,314	19,810	19,605	20,117	21,668	23,237	24,886	6.9	
주요경상비(C)	7,070	7,538	8,611	10,444	10,357	10,691	11,800	12,972	14,206	15,450	16,860	18,415	20,162	21,978	23,688	9.1	
지방채상환	378	97	40	255	205	356	448	636	808	764	653	512	316	69	8	△39.5	
주요투자비	1,174	208	273	157	165	1,174	2,380	3,469	3,300	3,596	2,092	1,190	1,190	1,190	1,190	△8.3	
재정여력(A-B)	303	3,079	2,494	1,632	613	717	△898	△2,512	△2,922	△3,291	△2,003	△1,231	△1,689	△2,077	△2,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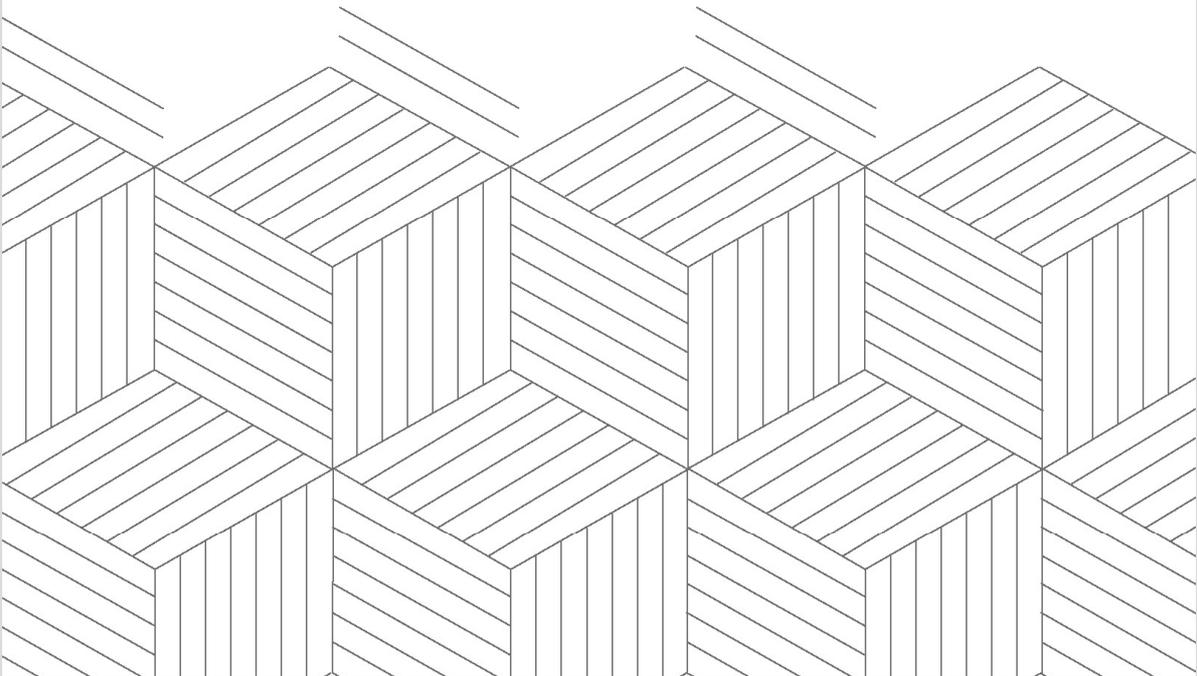
【참고】

- ① 자주재원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매년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되어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후 10년 평균 이동법을 이용하여 추계함[2012년~2021년 최종예산 기준이므로, 2022년도부터 추계함]
- ② 주요 경상비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기관 출연금, 민간위탁 보조금, 교육지원금, 행사·축제비를 포함하였음.
- ③ 지방채 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부거래 250억원을 포함
- ④ 주요 투자비 내역은 「붙임 6」 참조, 단,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자원 여력에 따라 변동가능 (2027년 이후 필요재원은 4년간 동일배분)
- ⑤ 이동평균법 추계치 반올림에 따라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제5장

민선 8기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

제1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한계
제2절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제5장 민선 8기 수원시 재정운용 방향

제1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한계

1. 현재까지의 주요 대응 노력

- 2019년 ~ 2020년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추진 등 긴축예산 편성

- (2019년) 재정운용 효율화 추진계획 / (2020년) 예산편성 및 재정혁신 세부전략
- (2021.01.25.) 예산재정과 조직개편 [팀별 예산심의 및 제도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재정혁신 추진 및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선제적 대응

- 재량지출 분야 우선순위 설정 및 성과 재점검, 우선순위별 구조조정 방안 마련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자원조정으로 이월 및 잉여금 발생 최소화
- 공공기관·민간위탁사업 혁신을 통한 “새 틀 짜기”
 - 수혜자 기준으로 부서간·사업간 유사사업 통·폐합
 - 위탁사무에 관한 전면 재정비 및 과대 계상된 사무의 축소
 - 공공기관·민간위탁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 적극 반영
-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영 해소
-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실익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비 매칭 추진
- 정확한 타겟 설정·맞춤형 세일즈로 이전재원 확보
 - 수원시 전 부서가 발로 뛰는 정책세일즈 통해 착한 국·도비* 확보 총력
 - * 수원시 현안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 수원시가 건의·공모한 사업, 시비 부담 없이 국·도비 100% 지원 사업
 - 지방교부세 산정시 특수수요 반영 위한 건의 지속(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세 감소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보상금,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기준재정수요 반영
- 불합리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통한 자원 확충
 - 2단계 재정분권 적극 대응 및 재정여건 근본적 강화 방안 모색
 - 각 대안별 비교 검토를 통해 최적안 건의 【'21.6.2. 재정분권특위(안)에 반영】
 - 특례시 재정분권 관련 최적 대안 선정 마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확보

2. 대응의 한계와 원인

1) 대응의 한계

- 단일 기준에 맞춘 세출 구조조정으로 사업별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실링을 제공하지 못하였음
 - 재정긴축 기조 하에 실링 제공으로 1차적 절감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분야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정 투입이 성과로 전환되기 힘든 상황
 - 예: 운영비 등의 일괄 삭감으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기관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재정위기 상황 공유 미흡과 성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재정위기를 맞이했음에도, 계속사업의 적정성과 신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제로베이스 검토” 없이 부서 실적 내기에만 치중하는 경향
 - 수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여전히 업무계획 제출 시기에 맞춰 경쟁적으로 특수시책 사업 발굴하기에 바쁨
-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삭감할 수 없어 사업비가 삭감되는 문제 발생
 -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등의 경우 실링에 맞추어 사업비 축소 경향
 - 단기적으로는 재정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유 목적사업의 축소 등으로 공공재 공급의 적정성, 적시성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사업부서(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 담당)의 미온적 이행계획 수립
 - 세출 구조조정의 완성은 사업부서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 결정됨
 - 1차적으로 재정부서가 방향을 수립하면 사업부서가 민간위탁 또는 출자·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연차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함

2) 한계의 원인

(1) 구조적 측면

-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세 자율권의 부재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구조 안에서 제한된 효율을 꾀할 수 밖에 없음
 -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목을 설치할 수도 없고, 공공재 공급비용에 탄력적인 추가적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함
- 증세가 되지 않는 한 특정 자치단체의 재정 확대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복잡성은 수원시의 특수 재정 여건을 쉽게 반영하지 못하게 함.

-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균형발전을 강조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른 다양성과 차별성이 인정되지 못함
 - 균형 위주의 자원배분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으며,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 시킴.
 -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재원 배분은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조세의 가격효과를 무너뜨려 책임성이 저하된 재정운용을 하도록 유도

(2) 행태적 측면

- 재정 구조조정은 혁신에 해당되며 혁신은 그 자체로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확률은 “50 : 50”
 - 재정혁신은 위기에 직면하여 수동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
- 구체적 전략 수립이 어렵고, 혁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 분야임
 - 수원시의 재정혁신을 저해하는 5가지 요인

〈표 5-1〉 혁신 저항 요소

요인	내용
혁신에 반감	•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고통을 감내해야하지? 혁신에 참여하기 싫어!
변화에 저항	• 혁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지 않은가? 예전에 다 해 봤어!
순환보직	• 다른 부서 갈 건데 눈치가 보이네!
온정주의	• 친한 선후배 인데 어떻게 모른 체 하지? 나쁜 사람으로 찍히지 말자
전문성 부족	•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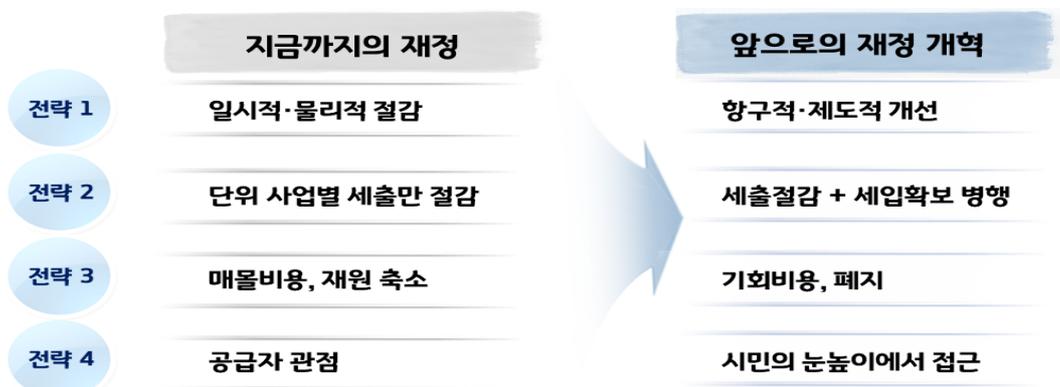
-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지방 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 예: 기재부는 구조조정을 잘 하는데 왜 지방은 못하는가? 기재부는 재경직렬 위주의 인사배치인 반면, 지방은 종합 행정으로 기재부와 같은 힘을 받기 어려움
- 새로운 민선 8기 등장과 함께 즉시 혁신 저항 요소 제거 및 혁신 추진 지속 필요

제2절 전략적 재정운용 방안

1.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논리

- 수원시 재정 위기는 재정위기 발생 원인이 총 집합된 상황
 - 재정위기의 정도와 그 원인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재정개혁의 내용이나 전략도 달라져야 하나 수원시의 재정위기는 종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
 - 단순한 세입의 결손: 대증요법(일시적인 자원보전)으로 치유 가능
 - 정부간 재정관계의 문제: 수술요법(재정제도와 정부간 구조의 근본개혁)
 - 단순 세입 결손과 관리의 문제: 관행의 개선(재정운용의 낭비적 행태)과 체질 개선(재정책임성 발휘) 필요
 - 수원시는 단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낭비적 행태를 개선하고, 재정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정부간 재정구조의 개편을 유도해야 함
- 재정위기의 1차적 대응은 재정 통제에서 시작 되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원시 전 부서의 적극적 동참” 필요
 - 재정압박에 직면, 단기대응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대안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출 구조조정의 한계는 새로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함
 -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단순히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벗어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사, 조직, 채용, 교육, 사업, 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 점검 필요
-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식의 전환을 통한 「재정위기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수원시의 재정 위기는 외부적 충격과 함께 미래를 충실히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체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
 - 따라서 재정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재정관리 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그림 5-1〉 재정혁신 전략의 사고 변화



2.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1) 전략적 세입 확보

- 양입제출의 속성을 갖는 지방재정은 외부적 재정압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제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이 활용되고 있음
- 경제적 저성장 국면에 직면, 국가 도는 도로부터의 이전재원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자체세입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수원시 세입의 증가분이 낮아져 활용할 필요성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활용함으로서 미래 재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드머니로서 작용해야 함
-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임시적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자치단체의 재산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2019년 수원시 재정압박에 직면하여, 2020년 예산편성시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바 있음
- 현 시점에서 수원시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매각을 검토하거나 효율적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선정하고, 방침을 받아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함. 이후, 추진부서가 총괄하여 실태를 조사한 후 비용을 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야 함
- 마지막으로 세입의 정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민과 관이 연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2) 전략적 재원 배분

-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재정수요는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
- 그 외 주요 현안사업은 명확한 시정방향 설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운용」

3)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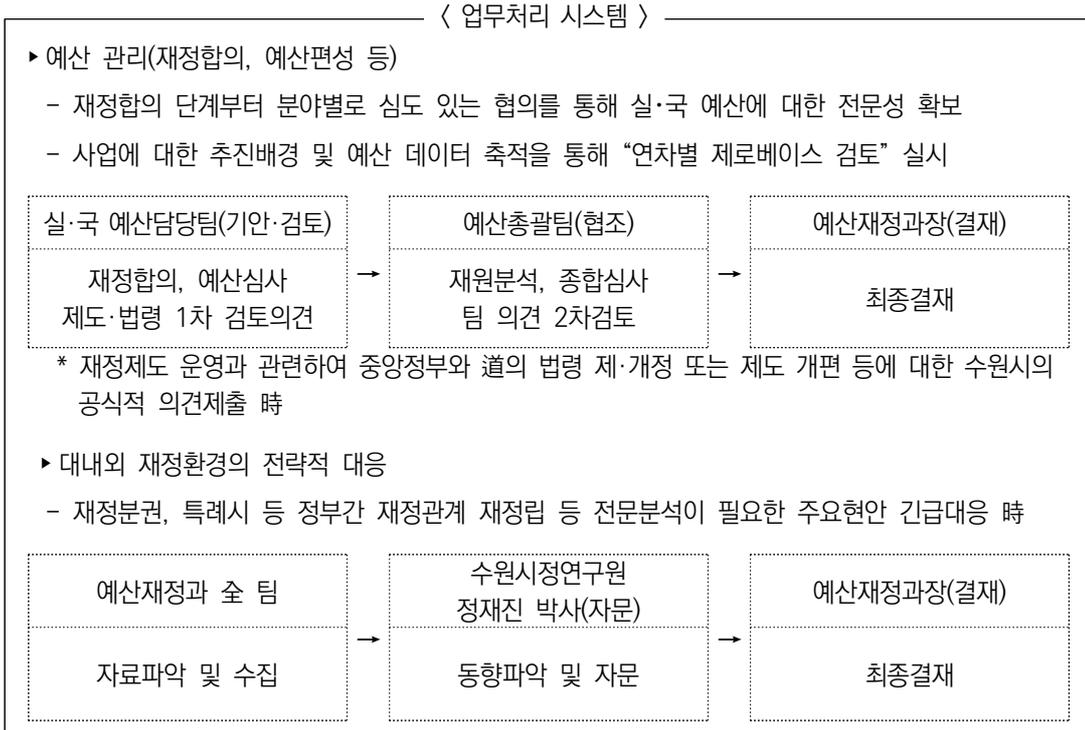
-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재정 효율성 증진
 - 先 계획, 後 편성 체계 구축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유도
 - 가용재원 규모 조기 판단하여 사전절차 추진부터 일관성 확보
 - 심도 있는 사전절차 이행으로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 도모

-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시스템 구축
 - pay-go / one out-one in 원칙 적용
 - 성과지향 재정운용 체계 수립
 - 신속집행 추진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실링제 반영)
 - 재정사업평가 및 보조금사업 평가 결과 하위 10% 사업 의무적 일목
 - 지원근거 또는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배제, 국·도비사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시비부담과 국가사무 또는 광역사무에 대한 시비부담 근절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부담률 준수
- ▶ 불확실한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4)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수원시 대응방안 마련

- 3단계 재정분권 추진동향 및 수원시 대응방안 보고 <수시>
- 정부·도 추경 및 부동산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운용 대응방안 보고 <수시>
 - ▶ 적시성 있는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으로 재정운용 상황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 예산재정과 「협업 시스템」 풀가동
 - (조직) 예산재정과장, 정재진 연구위원(시정연구원), 예산총괄팀, 실·국별 예산담당팀(4)
 - (전제) 팀별 책임제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예산총괄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 진행
 - (목표) ① 재정현황 분석 및 미래 예측력 강화 ② 실·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지식 전문화 ③ 불확실한 대내·외 재정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역할) 각 팀별 분업화된 예산업무 충실한 이행과 팀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용
 - 소관 실·국 사업예산 전문적 관리(재정합의, 예산심사, 집행관리 등)
 - 팀별 운영제도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 공공기관 선진화, 민간위탁 개선, 국·도비확보 T/F팀 운영 등
 - 재정환경에 대한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 도모

- (방향) ① 재정위기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② 인정(人情)에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시각으로, ③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④ 원칙과 절차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최단 기간 내 「재정혁신」을 완수하여 수원시 재정건전성을 회복함



5) 재정부서 직원의 전문성 확보

-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며,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도록 설계됨.
- 그러나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재정부서 직원의 전문성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국가는 재경직렬을 별도로 선발하여 대한민국의 세입, 예산편성, 경제정책 등을 총괄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구조임.
- 처음 입사해서 퇴직시까지 대한민국 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경력구조임.
- 비록 순환보직 등 제약이 있더라도 수원시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가칭) 재정전문관제도를 들 수 있음. 7급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보직 없이 예산부서에 근무함으로써 노하우를 쌓고, 승진하여 예산부서의 팀장, 과장으로 전문성이 확장되는 경력 관리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경기도. (각 연도). 「경기도 예산개요」.

수원시. (각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지방재정 365[Website]. (각 연도). <https://lofin.mois.go.kr>

| 저자 약력 |

정재진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cjj1382@suwon.re.kr

주요 논문 및 연구

「혁신 통합민원실 운영 만족도 및 인식 연구」 (2022, 수원시정연구원)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 시행시 수원시 재정변화 분석」 (2022,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준정부조직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2022 수원시정연구원)

「반려견 보유세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0 한국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경쟁과 확산에 관한 연구」 (2020 정부학연구)

「도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20, 지방행정연구)

